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7권 제2호 (통권 91호) / 2022. 6

#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2호 (통권 91호), 2022년 6월호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 김 욱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Memory Studies by Lim, Jie-hyun and Miroslav Volf | Uook Kim
- 027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에 대한 콜라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 박병애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Using Colaizzi's Method | ByungAe Park
- 057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 송 훈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hurches Roles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a New Approach for Building Christian Communities in North Korea | Hoon Song
- 079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성경적 돌봄의 의미 | 국경아 / 현은자  
The Meaning of Biblical Care in Picture Books About Garden | Kyeong A Kook / Eun Ja Hyun
- 105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 이수형 / 현은자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 Soo Hyoung Lee / Eun Ja Hyun
- 137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 강병덕 / 조성봉 / 정예은 / 손해인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 Byungdeok Kang / Sung-Bong Cho / Ye-Eun Jeong / Hae-In Son
- 171 문화명령과 선교로서의 과테말라 교육 실천 사례 연구 | 박영철 / 홍진근  
Practices Case Study of Cultural Mandate and  
Education a Mission in Guatemala | Young Chul Park / Jin Keun Hong



##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Memory Studies by Lim, Jie-hyun and Miroslav Volf**

김 욱 (Uook Kim)\*\*

### ABSTRACT

This article's issue is how Korean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can integrate Korean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According to Lim, Jie-hyun, throughout western languages, the term "responsibility" has more meaning of "response+ability" than of duty. So response to victims' memories is a responsible response of people of God to triune God that memories and responses to human suffering. Especially Miroslav Volf's explanation about Martin Luther's soteriology and eschatology proves this point well. Based on such theological insights, Korean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must integrate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into Christian education through catechism and Eucharist.

**Key words :** state violence, memory, Lim Jie-hyun, Miroslav Volf, Christian education

\* 2022년 2월 22일 접수, 3월 26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 성공회대학교(Sungkonghoe University) 신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kimcranmer@naver.com

## I. 들어가는 글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 함의를 지닐 것이다. 분단구조 아래에서 흑백논리와 진영논리가 정당화되고, 적으로 지목된 대상에 대한 술한 국가폭력 행위가 조장, 묵인, 은폐, 강요되었다. 분단과 이념대립으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남한의 국가폭력으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 기간까지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과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고문, 실종, 의문사 사건들, 국가의 부작위와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회피, 진실규명방해로 이어진 4.16 세월호 참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폭력은 해외로까지 확장되어 베트남 민간인학살로 이어졌다. 한국개신교회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의 동참자이거나 암묵적 동조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임지현과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남한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탐구이다. 현재도 2010. 9. 22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골령골 민간인학살은 한국전쟁기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서,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에서 7,000명의 보도연맹원들과 대전형무소 재소자가 법적 절차없이 학살, 매립된 사건이다. 2022년 국가단위의 위령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가폭력의 정의와 적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국가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위원회나 칠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이티, 짐바브웨, 알제리, 우간다, 차드, 네팔, 스리랑카, 스페인, 스탈린 체제의 구소련, 우간다 등 20여 개 국가의 과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헤이나, 2008). 헤이나의 저술에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의 해제가 실려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공식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간행한 조사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정의와 범위를 국가폭력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함을 밝힌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법원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들에 내린 판례들도 국가폭력의 판정 기준과 범위와 관련된 논란에 주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기억하면서, 폭력사실을 미화, 정당화, 은폐, 왜곡 심지어 부정하는 행동들이

참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곤하는 동아시아의 사례들에서 보듯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폭력의 정의와 규정, 적용 등은 유골발굴 등을 동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란/폭동’과 ‘항쟁’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건’으로 최종명명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등의 사례가 이와 같은 과정의 결실이다.

## II.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과 기억

임지현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잔학행위와 악행, 주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들을 고찰하면서 동양의 한자어 ‘책임(責任)’과 달리 ‘책임(responsibility)’이란 낱말로 대표되는 서구언어의 책임이란 단어가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원을 따져보면,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죽은 자의 목소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동아시아어의 ‘책임은 ‘잘못責을 떠맡는다任’는 의미가 강하지만, 유럽어의 ‘책임’은 ‘응답’의 의미가 강하다. 영어 responsibility나 프랑스어 responsabilité는 모두 응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더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의미의 영어 answerability는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억에 대한 책임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이다(임지현, 2020: 13).

임지현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입장에서 “응답능력”으로서의 기억이 갖는 책임성 혹은 책임적 기억은 중요한 작업 전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임지현은 조사치, 전승치, 추정치가 모두 다른 희생자수 조사결과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따른 자국가중심적이고 선택적인 기억양상 등을 언급한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기억하고, 또 피해자로서만 자신을 규정하는 기억 속에서 어떻게 기억을 재구성하고 무엇을 진실이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발생한다. 각기 자기중심적으로 다르게 기억하는 과거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서 “응답능력”으로서의 책임성이 갖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임지현의 후속 저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2021)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심화된다. 임지현이 논의 서두에서 지적한 ‘응답 능력’으로서의 책임은 책임적 기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필자는 임지현이 말하는 “응답 능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전용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진영의 자기중심적인 “기억 전쟁”에 대하여 책임적 응답으로서 기억의 동기와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선적 응답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연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주의나 진영논리를 극복 혹은 초월할 수 있는 책임적 기억의 토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정한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동료 인간 혹은 동료 인간의 기억에 대해 응답하기 이전에 인간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기독교 교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서구언어에서 책임이란 개념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의한다고 할 때,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독교 신앙이해에 도입하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책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공동체와 신자 개개인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회중, 즉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회중이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에 의해 형성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구약성경에서 회중이나 총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말이다. 히브리어 카할의 어원은 ‘불러내다’라는 뜻을 지니며,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도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들어가 있다.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뜻하는 두 단어가 모두 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에서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가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 근본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송인규, 2001: 256).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회중을 부르시는 야웨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사람들이 받는 압제와 부당한 일들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대목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출애굽기 3:4).”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과 억압,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 위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웨 하나님의 부르심은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도 기억과 응답이라는 요소가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총회됨-카할됨’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묘사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무리로 나아온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카할로서 이스라



엘이 나아온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기억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출애굽기 20:2).”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억압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불러내시고 해방하신 분이심을 단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사람의 기억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카할은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성경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인 언약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교회 간에 맺어지는 언약에는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이란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억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충실히 기억해야 함을 언약의 기초로 삼게 된다. 언약과 기억의 관계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충실함에 대해 요구되는 충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현이 소개한 서구언어의 책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보여주는 응답하는 능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언약이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맺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교회된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발하는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야웨가 최고의 치료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야웨께서 의도하신 치료는 인간 중개자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점이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20).” 또한 야웨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진실말하기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치료는 진실말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18). 브루그만은 거짓과 부인이 있는 곳에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18). 브루그만은 직접적으로 기억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브루그만이 지적하는 진실말하기는 기억논의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요소이다. 필자는 이 점에서 브루그만이 논의하는 진실말하기와 치유 간의 관계가 기억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은폐되거나 부정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공동체가 되살리고 대변함으로써 국가나 사회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의 치유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실을 말하는 기억은 기독교 교육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자를 진실을 함께 기억하는 중개자 혹은 기억매체로 양성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말하기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가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의사-치료자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 인간중개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 하심으로 치료를 시작하

시는 분이시다. 이 점은 기억과 치유 사이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점은 본고의 이후 논의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구약성경의 윤리를 특징짓는 주변부, 국외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하나님의 기억과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해방사건에 대한 언약백성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천착할 점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카할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기억을 삶의 규범을 삼아야 함을 뜻한다. 즉 언약백성의 규범과 윤리가 기억에 대한 기억, 응답에 대한 응답, 책임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연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권리옹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카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연유하게 된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의와 불공정, 억압과 부당함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구속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책임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기독교적 책임이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능력이 된다. 여기서 폭력희생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각자가 폭력희생자들의 학대받은 기억에 주목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연대하는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충실히 기억하고, 그 고통에 충실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응답하는 존재이다.

필자는 임지현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책임개념에서 시작한 기억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개신교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기억하기를 통하여 역사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진영갈등이 심화된 국가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정치문제를 교회와 기독교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논란을 빚을 수 있다. 필자는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의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복음주의 개신교의 <로잔언약>(1974), 본회퍼의 “두 왕국론” 극복논의와 관련한 독일교회의 경험, 로마 가톨릭의 사회교리 발전 등을 근거로 인내로운 토론과 합의, 설득과 경청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Bethge, 김순현 역, 2006: 224; 한상봉, 114).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니콜라스 월터스토

프(Nicholas Wortorstorff)의 경우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카이퍼는 계급갈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속에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여, 기독교적 정치에 참여하였고, 월터스토프의 경우는 인종갈등과 민족갈등의 현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팔레스타인의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본다.

### III.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독교적 기억

미로슬라브 볼프는 인종청소와 종족갈등, 내전으로 점철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출신 신학자로서, 국가폭력과 종족갈등을 경험한 인물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볼프는 자전적 저서 『기억의 종말』(The End of Memory)에서 폭력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논한다. 볼프는 이신칭의라는 구원론의 요소, 최후의 심판과 같은 종말론의 요소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86).

볼프는 학대받은 기억을 함께 기억하고, 폭로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대세가 된 상황 속에서 기억만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어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볼프의 기억논의는 올바른 기억하기에 관한 성경적인 신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볼프는 지배적 기억담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분명한 기억을 전제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망각을 제안한다. 특별히 망각을 다룬다는 점에서 볼프의 신학적 기억논의는 사회와 인접 학문의 기억논의와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이 볼프의 이 강조점을 채택한다면 사회 일반의 기억논의가 노정하는 또 다른 갈등 가능성에 균열을 내고, 균형점과 화해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이 종말에야 완성될 구원이라는 종말론적 유보에 입각해 “기억 전쟁”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 화해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볼프의 기억논의가 가지는 이러한 독보성은 그의 경험과 더불어 특별히 볼프가 적지않게 의존하는 마르틴 루터의 성경해석과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Volf, 홍종락 역, 2016: 271-272).

#### 1.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구원론

볼프는 자신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을 위한 신학적 기초로서 이신칭의와 용서, 화해 등 구원론적 주제들을 분석한다. 볼프가 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구원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는 새

로운 자아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볼프는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산다.”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르면 그리스도인됨은 이주를 뜻하며,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산다. 즉 하나님 안에 살고,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또는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만들지도 파괴하지도 못한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나 타인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새긴 것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 다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1-272).

볼프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에도 적용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폭력희생자들의 정체성을 만들지도, 규정하지도, 지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이 정체성의 참된 동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함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피해자가 한 일이 자아정체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2).”

볼프의 이와 같은 신학적 진술은 수궁하기가 어렵고, 의문을 자아내며,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비탄과 슬픔을 경험한 희생자들에게 제안하기가 주저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신학전통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복음의 적용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신앙이 폭력희생자들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한 명확한 기억작업과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기억을 통해, 그 기억 안에서, 그 기억과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신칭의에 의거한 기억이라는 강조점은 기독교 교육이 사회와 역사의 기억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강조점은 국가폭력과 같은 사회구조적 죄가 마성을 드러낼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손쉬운 미봉책을 경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일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부여받고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악의 주체를 상대화하거나 책임소재를 흐리거나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하는 신정론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볼프는 루터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루터와 다르게 오늘날은 과거의 일부를 상실하면 자아가 쪼그라든 것처럼 느낀다. ... 동일성에 관한 이런 견해는 '나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신비 속에 머무는 존재였던 자아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담는 그릇 정도로 오그라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채움을 얻고 보호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아는 자기 자신과, 불의를 당한 기억과, 거기서 생겨난 죄책감을 놓아 보낼 수 있다. 이런 자아는 하나님 안에만 마냥 머물지 않는다.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라면 사랑으로 이웃 안에 있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자아는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한 무기억은 상실이 아니라 과거가 비가역성이라는 철권을 휘둘러 행사하는 독재로부터의 자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시지 않으며, 모아진 조각들, 재구성한 이야기들, 참으로 구속된 자아들, 영원히 화해한 사람들로 바꾸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폭력희생자들 안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대 받은 기억에 대해 가지는 힘과 영향에 대한 볼프의 서술은 반복된다. 볼프는 구원론의 함의를 새롭게 기억논의에 적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폭력 경험의 기억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볼프는 강조한다.

괴테의 <파우스트> 속 마가레타가 마가레타인 것은 파우스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 없는 헌신과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 존재와 정체성의 근원으로 믿으며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으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어도 존재하기를 그치지 일은 없게 된다. 에버하르트 융엘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완전한 거처로 만들어진 새 자아를 마가레타 안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파우스트에게 용서와 무기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전달할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아를 발견했으니,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번성할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난 상처를 놓아 보낼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86).

## 2.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종말론

볼프가 제안하는 기독교적 기억의 마지막 단계인 망각은 종말론에 기반한 것이며, 종말론의 현재적 적용을 제안한다. 국가폭력과 연관된 과거사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시키려 할 때,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최종적 구원이 국가폭력희생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종말론과 기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종말론적 이행이 이루어진 후,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파괴될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간 후, 최후의 심판 이후, 사람들이 저지르고 겪은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드러난 후, 가해자들의 죄가 지적받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진 후,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하나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아본 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악행을 당한 기억을 잊게 될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8).

볼프는 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논하면서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언급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3). 볼프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후의) 심판은 악행과 짐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최후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다. 심판에서 은혜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죄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고, 죄인들이 죄책을 벗고 변화되어야 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4).

볼프는 선부른 용서나 망각, 일상으로의 복귀, 책임소재의 희석 등이 끼어들 자리를 배제하면서 하나님이 가져다주실 종말을 완전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완전한 사



량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은혜의 심판과 최종적 상호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7). 볼프의 논리를 따르면, 기독교 교육에서 종말론이 희망과 사랑의 사회, 하나님의 변영으로 충만해진 생태계에 관한 비전으로 가르쳐질 때,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볼프는 논쟁적인 주제인 망각, 즉 기억의 내어놓음을 논하면서도 현실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을 포함해서 보다 공적인 심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바로 심판이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순이다. 용서조차 일방적 행위가 아니며, 기억을 놓아보냄은 더 상호성이 강하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행을 기억해야 할 의무는 유효하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80).

정리하면 필자는 볼프가 기억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구원론과 종말론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관련된 기독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V.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필자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방편으로 하여 기독교 교육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교리문답은 기독교신앙에의 입문과정 특별히 세례교육과 관련하여, 또한 기독교 교육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 주요한 교육적 방편으로서 상시적 중요성을 지녀왔다(정신철, 2015: 44; Kreider, 허현 역, 1995: 43). 성찬례는 설교와 교리문답을 통한 기독교 신앙입문의 최종 단계이며, 설교와 더불어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 방편으로 교회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위해 집행되어 왔다.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통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 이전에 설교가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우선성과 중요성을 잠시 전제하고 들어갈 필요를 느낀다. 기독교예배에서 신경/신조의 낭송을 통한 신앙고백은 성경과 성경말씀에 대한 해설로서의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서 설교 다음에 위치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의 예배내적 관계맺음에서 설교는 언제나 성찬례의 앞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성경의 봉독과 읽혀진 성경본문의 해설인 설교는 예배학적 원리에서 교리문답과 성찬례에 앞서며, 설교는

교리문답과 성찬례에 대하여 “모든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의 우선성과 수위성이라는 교부모적 근본원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재천명되었으며, 이 점은 종교개혁자들이 재천명한 참된 교회의 두 표지인 “말씀의 바른 해설과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설교는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나 예배학 순서에 있어서나 기독교 교육적으로 최우선적 위치를 지닌다. 다만 복음주의적 개신교에게 설교의 기독교 교육적 위치와 가치는 재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교리문답과 성찬례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설교가 우선적으로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가치는 본고가 교리문답의 사례로 들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설교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52주로 구성되어 개혁파 교회의 주일오후예배나 주일저녁예배에서 설교순서에서 문답되거나, 설교되었다.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본래 설교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작성, 고백, 사용되어 신자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적용된 것이다. 교리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육은 설교와 동반된다.

설교와 성례전 사이의 관계에서도 설교의 우선적 위치가 드러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fides ex auditu: 로마서 10:17)”, 성례전은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재천명하며, 설교를 다시 교회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개혁을 실행하였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언명에서 설교와 성례전 사이의 순서가 분명히 보여진다. 성례전은 설교와 함께 하며, 설교에 뒤이어 올 때 복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찬례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 또한 설교의 기독교 교육적 기능과 동반되어 검토되는 것이 정당하다. 필자는 특별히 현재(2021-2023) 진행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세계주교 시노드의 ‘시노달리타스’ 논의를 해설하는 천주교의 교회론학자 최현순의 다음과 같은 해설에 주목한다.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듣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최현순, 2022: 61).” 최현순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첫 자리에, 가장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다(최현순, 2022: 63).” 베네딕트회 수도원장인 이연학은 말씀과 성찬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이 교회를 건설하듯, 성찬도 교회를 건설합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둘은 교회 공동체의 건설에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협력’(synergeia) 관계, 말하자면 ‘시너지’ 관계에 있습니다(이연학, 2013: 91).

기독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설교와 성찬례 사이의 관계는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연학은 다음과 같이 설교와 성찬례, 말씀과 성례전 사이의 관계를 해설한다.



이제 전례와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례는 무엇보다 먼저 신앙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선포하며 거행하는 유일무이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전례집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원래 자리’(locus primordiale)입니다 (이연학, 2013: 77).

또한 교리문답과 성찬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하고자 한다. 교리문답은 성례전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과 성례전이 교리문답에서 학습한 신앙의 구체적 가시화라는 점에서 교리문답과 성찬례는 연계성과 상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리문답과 성찬례는 둘 다 설교에 대한 응답과 설교가 완성이라는 점에서 설교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갖게 된다.

## 1. 교리문답을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기억과 관련하여 교의학의 분야들이 연계될 수 있는 요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억울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카할공동체/에클레시아공동체’로서의 교회론, 이신칭의가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대한 구원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 추시는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가 춤추며 기억을 놓아 보내게 되는 종말론 등등이 그것이다. 교리들이 기억과 관련하여 갖는 적용점이 강조된 교리문답을 개발하여,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활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신앙고백이나 교리문답의 각 항목이나 주제들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들이 기독교 교육에서 다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들에 대한 새로운 적용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교리문답을 개발하여,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바르멘 신학 선언>의 두 신앙고백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주일 본문은 1문과 2문으로 구성되는데, 1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Heidelberg Catechism, 1563, 제1과).

교리문답의 시작을 ‘위로(trost)’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접근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라기보다 아래로부터 즉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짓는 인간적 삶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감의 방식으로 교리가 진술되고, 신앙이 이해되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된 현대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여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억과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는 한국 개신교가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전달자들을 양성할 때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취하고 있는 연민과 공감의 방식으로 진술된 한국교회의 교리문답이 개발된다면, 위로의 전달자들을 양성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거듭된 망언과 몰상식으로 공분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 유가족들의 탈교회화로 이어진 사실은 한국개신교의 신앙이해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측면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대면하면서 공감을 통한 위로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기독교 교육에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 교리문답이라는 교육적 방편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반영한 교리문답의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기를 제안하는 두 번째 자료인 <바르멘 신학 선언>(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1934)은 독일과 미국의 개혁파 공예배의 신앙고백 순서에서 고백되기도 하는 것이다. <바르멘 신학 선언>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에 순응하던 독일국가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맞서서 독일고백교회가 발표한 신앙고백이다. <바르멘 신학 선언>은 유대인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던 독일국가교회에 대항하여 발표된 신앙고백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있어 각별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바르멘 신학 선언>의 서언 부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개신교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현재의 제국교회정부의 오류들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개신교의 진리를 고백한다: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요한복음 10:1, 9).”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선포의 근원으로서 또 다른 사건들과 권력들,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승인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바르멘 신학 선언, 1항).

<바르멘 신학 선언>은 한국의 일부 신학진영에게는 유의미한 전범이 되기도 했다(손규태, 1994: 145). 신경이나 신앙고백서를 통한 기독교 교육과 상황과의 통합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로 예시할 수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공예배시 사도신경과 대체가능한 것으로 위치시키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공동예배서>(Book of Common Worship) 사례에 더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신경> 제정과 공예배시의 낭독 사례, 로마가톨릭의 세례예비자 교육 과정으로서 <사회교리>(Social Doctrines of Catholic Church)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 2.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출애굽 경험을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성찬례는 그 자체가 기억의 의례로서, 제정의 말씀(Institution)과 기억(Anamnesis)이라는 기억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성찬례의 이 두 기억기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과 함께, 기억을 통하여, 기억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은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성찬례 안에 기억기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성찬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성찬례를 통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학생들의 신앙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을 기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성격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 희생자들과 하나님을 동일화하게 하는 구원사건이다.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에서 몰트만(Moltmann)의 십자가 해석을 이렇게 재인용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그분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고통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연대하시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수난을 통해 이 세상의 수난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신적 정의와, 생명을 창조하는 의가 들어오게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화하시는” 동시에 “희생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화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그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Volf, 박세혁 역 2021: 33).”

존 스토틀(John Stott)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Cross of Christ)에서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Der Gekreuzigte Gott)에 나오는 십자가 해석을 인용하고 논평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그의 유기의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Stott, 황영철·정옥배 역, 1988: 271-272).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례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동일화하신 폭력 희생자들을 또한 기억하게 된다.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한다.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성찬례는 기독교 교육이 기억의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례로 예배신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는 그의 저술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Sacrament as God's Self-Giving)에서 성례전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 길게 논의한다(White, 김운용 역, 2006: 230).

특별히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중시하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장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례에 참여하는 기독교 교육의 학생들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배우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이란 배제당한 이들, 학대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본회퍼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계승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른바 배제당한 사람들, 피의자들, 학대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요컨대 고난 겪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끔찍한 사건들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다. 이 시대에 빈정거림과 질투가 마음을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것과 하찮은 것, 행복과 불행, 강함과 약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고귀함과 인간다움과 옳음과 자비를 보는 우리의 관점도 더 분명하고, 더 자유롭고, 더 확

고해질 것이다(Bonhoeffer, 김순현 역, 2016: 51).

특별히 성찬례는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선취, 선참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성례전으로서 볼프가 말하는 기억과 관련된 종말론의 전망을 실체화하여, 미리 맛보는 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우주적 변모 안에서 모든 역울함이 신원되고, 눈물이 씻겨지며, 명예가 회복될 종말론적 전망에 참여하는 성례전인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은 수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성례전으로서의 성찬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한국개신교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 V. 결론

임지현과 미로슬로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온 본고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응답이며, 기독교 구원론과 종말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구원의 전망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적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통찰을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할 방편으로는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근거한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제안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필자는 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을 통합하는 면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로서 진실과 용서와 화해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임지현이 말하는 “응답능력”으로서의 책임을 기독교적 관점의 책임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란 인간의 삶과 문화를 포괄하는 삶의 총체성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인간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운행의 적용하려는 전망이다. 기독교적 책임이란 문화명령이라고 명명된 창조의 말씀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면서, 동시에 타락한 세계를 향한 구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겠다. 타락한 세계와 우주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한 책임적 응답으로서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① 단행본

- 김동춘 (201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서울: 사계절.
- [Kim, D. C. (2013). *This is Memory War: Korean War & Massacre & Truth*. Seoul: Sakyejul]
- 김상숙·박은성·임채도·전명혁·한성훈·홍순권 (2019).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서울: 푸른역사.
- [Kim, S. S., Park E. S., Lim C. D., Jeon M. H., Han S. H. & Hong S. K. (2019).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State Violence*. Seoul: Purunyoksa.]
- 노용석 (2018).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서울: 산지니.
- [Roh, Y. S. (2018). *State Violence and Socio-Cultural History of Relic Excavating*. Seoul: Sanjinibook.]
- 신기철 (2015). **전쟁범죄**. 서울: 인권평화연구소.
- [Shin, K. C. (2015). *War Crime in Korea*. Seoul: Geumjungggul Human rights & Peace Foundation.]
- 송인규 (2001). **평신도 신학1**. 서울: 홍성사.
- [Song, I. K. (2001). *Lay Theology 1*. Seoul: Hongsungsa.]
- 안병직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 [Ahn, B. J. (2005). *Settlement of Past History of the World*. Seoul: Purunyoksa.]
- 이연학 (2013).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거룩한 독서의 원리와 실천**. 서울: 성서와함께.
- [Lee, Y. H. (2013). *Bible Grows with Readers: Principle & Practice of Lectio Divina*. Seoul: Withbible.]
- 임지현 (2020). **기억전쟁**. 서울: Humanist.
- [Lim, J. H. (2020). *Memory War*. Seoul: Humanist.]
-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서울: Humanist.
- [Lim, J. H. (2020). *Victimhood Nationalism*. Seoul: Humanist.]
- 정신철 (2015).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Jung, S. C. (2015). *History of Catechism*. Seoul: DonBosco.]

정찬대 (2017). **꽃갈던 청춘, 화문산 능선 따라 흩뿌려지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기록**(호남·제주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Jung, C. D. (2017). *Korean Wartime citizen Masacre: Honam·Jeju Province*. Seoul: Hanulplus.]

최현순 (2022). **시노달리타스: 저 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서울: 바오로딸.

[Choi, H. S. (2022). *Synodalitas: Uniquely & Together*. Seoul: Pauline.]

한상봉 (2018). **내가 그 사람이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서울: 가톨릭일꾼.

[Han, S. B. (2018). *That Man is Me: Social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Seoul: Catholicworker.]

## ② 정기간행물

손규태 (1994). 바르멘 신학 선언 60주년. 기독교사상, 425(5), 145-155.

[Son, K. T. (1994). The 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60th anniversary. Christian Thought, 425(5), 144-155]

## ③ 연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종합보고서 1~4**.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2010). *Final Report Vol. 1~4*. Seoul: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 서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Truth Committee of Korea (2005). *Korean Wartime citizen Masacre Reasearch Report*. Seoul: Truth Committee of Korea]

## ④ 번역서

김균진 역 (2017).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Moltmann, J. (1972). *Der Gekreuzigte Gott*.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K. C. (2017). *Der Gekreuzigte Gott*.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Trans. Moltmann, J. (1972). *Der Gekreuzigte Gott*.

김소영·김세광·안창엽 역 (2001). **공동예배서**.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1993). *Book of Common Worship*.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 [Kim, S. Y., Kim, S. K. & Ahn, C. Y. (2001). Book of Common Worship. Seoul: Presbyterian Press. Trans.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 김순현 역 (2006). **디트리히 본회퍼**. Bethge, E. (1976). Dietrich Bonhoeffer. 서울: 복있는 사람.
- [Kim, S. H. (2006). Dietrich Bonhoeffer.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Bethge, E. (1976). *Dietrich Bonhoeffer*.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 김순현 역 (2016).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서울: 복있는 사람.
- [Kim, S. H. (2016). Prison Letters-Resistance and Obedience.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München: Neuausg]
- 김운용 역 (2006).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 White, J. (1983).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Kim, U. Y. (2006).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Seoul: Worship & Preaching Academy. Trans. White, J. (1983).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Nashville: Abingdon Press.]
- 류호준·류호영 역 (2003). **구약신학**, Brueggemann, W. (199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서울:CLC.
- [Ryou, H. J. & Ryou, H. Y. (2003).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Seoul: CLC. Trans. Brueggemann, W. (199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inn: Augsburg Fortress.]
- 박세혁 역 (2021). **배제와 포용**.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서울: IVP.
- [Park, S. H. (2021). Exclusion and Embrace. Seoul: IVP. Trans.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 배덕만 역 (2017). **윌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Worto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서울: 복있는 사람.
- [Baw, D. M. (2017). Wortorstorff Justice of God.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Worto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Grand Rapids: Baker Books.]
- 백지윤 역 (2019). **일과 성령**.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서울: IVP.
- [Baek, J. Y. (2019). Work and the Spirit. Seoul: IVP. Trans.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주혜경 역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Hayner, P. B. (2000).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서울: 역사비평사.
- [Chu, H. K. (2008). State Violence and Truth Commuttees of the World. Seoul: Yukbi. Trans. Hayner, P. B. (2000).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London: Taylor&Francis.]

허현 역 (2019).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Kreider, A. (1995).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논산: 대장간.

[Hong, J. R. (2016).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Nonsan: Daejanggan Publisher. Trans. Kreider, A. (1995).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Cambridge: Grove Books.]

홍종락 역 (2016). **기억의 종말**, Volf, M. (2006). *The End of Memory*. 서울: IVP.

[Hong, J. R. (2016). *The End of Memory*. Seoul: IVP. Trans. Volf, M. (2006), *The End of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황영철·정옥배 역 (1988). **그리스도의 십자가**. Stott, R. W. J. (1986). *The Cross of Christ*. 서울: IVP.

[Hwang, Y. C. & Jung, O. B. (1988). *The Cross of Christ*. Seoul: IVP. Trans. Stott, R. W. J. (1986). *The Cross of Christ*. Leicester: UCCF-England.]

#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Memory Studies by Lim, Jie-hyun and Miroslav Volf

김 욱 (성공회대학교)

## 논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을 통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임지현의 논의에 따르면 서구권 언어에서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 ‘리스판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리스판스(response)+어빌리티(ability)”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닌다. 의무성을 강조하는 동양권의 ‘책임’이라는 개념에는 없는 ‘반응’이라는 개념이 서구권 언어의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에 응답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에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응답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구원론과 종말론에 관한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는 이 점을 잘 입증해 준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통찰에 기반하여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은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 안으로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통합하는 일은 교리문답과 성찬례라는 두 방편을 통하여 가능하다.

주제어 : 국가폭력, 기억, 임지현, 미로슬라브 볼프, 기독교 교육

##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에 대한 콜라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Using Colaizzi's Method

박병애 (ByungAe Park)\*\*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ospel acceptance, growth, and church plant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come pastors. It aimed to find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Christian gospel through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A total of 12 pastors, including six North Korean defector-ministers and six evangelis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experienti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1978). As a result, 95 themes were extracted, which was organized into 24 clusters of themes, and established as five categories. The themes were rearranged into the categories of 'War between thought and truth,' 'Narrow road and wide road,' 'Meeting God,' 'Restoration of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Pilgrim's Progress as an evangelist,' to describe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Lastly, based on research results, concrete suggestions we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theology, to support North Korean missions and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conversion,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North Korean Missions, missionary work for displaced North Koreans

\* 2022년 5월 12일 접수, 6월 3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박사 후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의관 404호, [bapark1@hanmail.net](mailto:bapark1@hanmail.net)

## I. 서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남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민들의 회심과 기독교 복음수용을 보라”라고 어떤 탈북민 목회자가 증언하듯이, 지금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적은 북한이탈주민의 탈출과 기독교 복음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국가종교로써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반인 유물론과 이에 근거한 주체사상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 경제적 삶을 통제해 왔기에 주체사상은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hegemony)로써 북한주민들의 정신과 몸을 통제해 왔다(이선호, 2020).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거대한 유사 사이비 종교로써 김일성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주체사상을 종교 경전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의식화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체류 또는 남한에 입국한 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34.8%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3.1%) 천주교(2.2%) 등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4).

남한의 기독교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신선한 충격이자, 다양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아를 극복하고 정치적 자유를 찾아 입국한 사람들로 보지만(권오성, 2022: 공기인, 2020) 기독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인 동시에 그들의 성장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전체 믿음의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회심과 복음수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복음수용의 동기 등 표면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 기독교의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감동과 함께 절대자에 의존하고 싶은 감정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영권, 2005: 197-198; 전우택·조성아, 2003: 114-115)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에서 생존을 위해 도구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고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단순한 절대자에 대한 의존적 감정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절대적 의존 감정은 이미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그의 저서 종교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김승철, 2004).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기

독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 속에서 살아온 경험 즉 주체사상과 같은 유사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특히 북한에서의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모임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교회에 출석해서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이수원, 2011; 김경숙, 2018; 윤현기, 2004).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주관자라는 주체사상의 왜곡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신앙인 기독교와는 근본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독교를 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사상이라는 허울에 좌절하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다.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사고가 기독교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모순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했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믿음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복음수용은 그들의 존재 차원의 깊이에서의 경험이기에 기계적인 과정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는 질적 연구에 기초한 심층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이순형 외, 2015).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수용은 주체사상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심층 구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존재의 기원인 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생활 그리고 중국 체류에서 절망을 경험한다.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를 느끼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데올로기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공허함을 느끼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송영섭, 201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예영(2016)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 기독교인들은 북한 체제와 유사하게 보이는 교회 시스템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갈등 특히 남한 기독교인들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 신앙의 정체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회의의 구조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앙 성장은 일종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순형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발달 경험을 무경험 단계, 종교 수단화 단계, 믿음노력 단계, 믿음 생활 단계에 이어 마지막으로 일상 속 믿음 단계로서 종교가 삶이라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고했다. 람보(Lambo, 1993)는 기독교로 회심한 개인들을 연구한 후 회심의 단계를 정황, 맥락 단계에서 위기, 추구, 만남, 상호작용, 헌신, 결과의 틀에 맞추어 분석했지만 기독교가 이미 문화의 기저에 깊숙이 스며든 서방세계와 달리 기독교에 무지하거나 가독교인이 소수인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분석틀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Rambo, 1993: 43).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적 체험에 기

초한 그들의 종교발달단계를 정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인구집단에 대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을 산출하여 탈북민 선교와 북한선교 전략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성장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회심 과정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민 1세대와 1.5세대들을 합하여 목회자와 신학생이 200여명에 이른다(북한기독교총연합회, 2021). 약 3만 명을 상회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목회자와 신학생이 200명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매우 특별한 비전을 품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민 목회자들은 남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으며 통일 후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통일 또는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은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이다(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 그리고 그들의 신앙 성장과 비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들의 목회전략을 북한선교의 비전으로 다시 세우고 북한복음화 전략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 통찰력 있는 지식과 이해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탈북민 목회자에 대한 연구가 소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조성봉 외(2018)의 “탈북민 목회자의 신앙 성장 요인분석”과 박병애(2019)의 “탈북민 목회자의 복음수용과정 분석”이라는 논문이 존재할 뿐, 탈북민 목회자들의 복음수용의 의미 그리고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과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들의 체험 속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여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앙과 목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이에 근거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전략과 중국 등을 통한 우회적 북한 선교전략을 위한 실천신학 차원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과 신앙의 성장에 의미와 본질 구조는 어떠한가? 콜라지(Collai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접근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출신 목회자들의 회심 경험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은 물론 특히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며 가장 주된 탐구의 목적은 의미의 발굴이다(이남인, 2007). 탈북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수용과 회심과정은 전 생애에 걸친 역동적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교회공동체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후설(Husserl)의 아이디어인 “사태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연구자나 주류 관점이 아닌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 자체로 돌아가 엄밀하면서도 보편적인 의미를 발굴해 내는 것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앙체험은 그들의 생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구성된 의미와 본질만이 현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후설의 선형적 현상학(Transzendente Phänomenologie)에서 영향을 받은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후설은 20세기 초반 심리학계를 주름 잡았던 경험심리학, 즉 인간의 심리적 경험을 조작하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심리학적 주류태도에 반대하여 기술적 심리학 연구를 제시했다. 후설은 인간들이 의식을 통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근무, 2019). 이와 같은 후설의 현상학 도그마를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연구자들 중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Descriptive phenomenology)’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지오르기(Giorgi)의 제자이자 경험의 기술과 함축적인 구조를 제시한 콜라지(Colaizzi, 1978)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콜라지는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적 환원은 세계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소박한 존재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 변경과 본질 직관을 통해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마일스와 휴버만(Miles & Huberman) 그리고 살다나(Saldana, 2018)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표집 유형 중 강도 표집으로 선정했다. 강도 표집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동시에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강도 표집을 통해 현상의 다양한 측면과 함께 그 의미를 발굴할 수 있다. 콜라지는 그의 대표적 연구(Colaizzi, 1973)인 “심리학에서의 성찰과 연구: 배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에서 배움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콜라지의 전례를 따라 12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구체적으로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을 통해 선정했다. 연구자는 탈북민 교회를 돕고 있는 서울시내 5개 교회의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 소개를 의뢰했다. 그들의 소개를 받아 모두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및 신학공부 목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rticipant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성별 (gender)	나이 (age)	남한 체류기간 (period of stay in South Korea)	복음을 접한 년도 (Year of encounter with faith)	복음을 접한 장소 (place of faith)	직업 (job)
연구 참여자 1	남	50대	24년	1992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2	남	40대	13년	1996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3	남	40대	19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4	여	40대	19년	1999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5	남	40대	9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6	남	50대	17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7	남	40대	17년	2004년	한국기도원	목사
연구 참여자 8	여	40대	16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9	여	40대	15년	2006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0	여	30대	14년	2017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1	남	50대	13년	2007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2	여	30대	11년	2011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나이는 연령대로 표시하였고, 탈북 년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요되었다.

### 3. 자료 수집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콜라지는 심층면담 수행 전, 형식적 진술(Formal statement)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형식적 진술이란 자신의 이론적 관점이나 견해 등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반 하여 질문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수용과 북한의 종교문제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형식적 진술문을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형식적 진술문은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2. Formal Statements

번호 (number)	질문 내용 (Question Contents)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2	처음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와 장소, 이와 관련된 사람들
3	기독교 복음을 접했을 때 느낌이나 정서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4	복음을 수용한 후 신앙이 성숙해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준 다양한 맥락들
5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시기와 이유, 장소, 영향을 준 사람들



6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후, 도움 받은 사람들과 본인의 노력들
7	신학생 시절(목회자시절)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사건이나 계기, 맥락, 영향을 준 사람들
8	세상적 유혹을 딛고 다시 목회에 진입하게 된 개인들의 이야기
9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로서의 목회어려움과 극복 내용
10	남한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상호작용
11	북한선교 계획과 통일 후 선교계획과 준비에 대한 내용

연구 참여자들과는 자료의 포화와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 1인당 5회, 1회 50분의 인터뷰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고 이를 문서 본으로 변환했다. 심층면담과 연구 참여자 선정 기간은 중복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다시 연구 질문을 구성하는 순환적 관계 구조로 이어진다. 심층 면담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행했다. 참여자들의 목회지, 신대원 회의실 등에서 수행했다.

#### 4. 자료 분석과 기술

자료 분석은 콜라지가 제안한 7단계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1단계에서는 자료전체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 인터뷰를 전사한 녹취록을 5회 정독했다.

2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다.

3단계는 의미 발견 단계로써 유의미한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암묵적 의미를 탐구했다.

4단계는 주제 결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의미를 주제로 결집했다.

5단계는 포괄적인 기술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기술했다.

6단계는 명증한 진술로의 전환단계인데 5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명료한 기술로 전환했다. 이 명료한 기술로 전환한 과정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괄호 치기와 자유 변경 절차를 따랐다.

7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통한 타당성 검증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과 기술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들로 부터 연구자가 구성한 주제, 의미, 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분석과 기술에 별다른 의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 5.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재고

###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첫째,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을 다른 연구로써 매우 예민한 주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와 북한과 중국 등에서 활동이 노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생지 학교 등은 모두 부호나 익명으로 표시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윤리지침을 구성했고 이를 숭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았다(심의번호: SSU-202202-HR-387-1).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준수했다. 참여자나 소개자를 통한 회유나 강권 등을 하지 않았고 심층인터뷰 전에도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동의를 구했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익은 없으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에 대한 연구로써 북한선교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연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했다. 본 연구는 학문적 목적과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귀중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연구 참여자의 사적 이익이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는 자신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폐지나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보장했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 (2) 타당성 재고 전략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는 리보우(Liebow, 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Rapport) 형성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부터 논문 기술 시까지 2년 이상의 라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는 연구자가 지니고 있었던 학문적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성은 물론 그들의 왜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링컨과 구바(Lincoln and Guba)가 제시한 동료지지집단 구성으로 접근했다(Lincoln and Guba, 1985). 연구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했던 선교사 1인, 북한이탈주민의 선교와 교회개척을 지원하는 목회자 1인, 북한학 전문가 1인,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으로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 참여자 선정부터 자료 분석과 기술 등에 있어 조언을 했고 연구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덴진(Denzin)이 제안한 네 가지 유형, 즉 자료의 삼각화,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적 삼각화에서 자료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으로 접근했다(Denzin, 1978).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기록 외에도 자료의 삼각화 차원에서 참여자들이 출연한 유튜브, 개인 기록물, 단체 카톡, SNS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95개의 주제가 출현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보다 추상화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수렴할 수 있는 24개의 주제결집을 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의 회복’, ‘전도자로서의 천로역정’이라는 5가지 범주에 배열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3.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범주 (category)	주제 결집 (collection of topics)	주제 (List of topics)
사상과 진리의 전쟁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근경에 처해도 주체사상의 잔재로 인해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자 함 성경을 생명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책으로만 받아들임 부자와 고학력자도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 지혜의 부재	기독교가 김일성 숭배와 비슷하다고 판단 한 후 발길을 돌림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기독교의 하나님 경배가 구조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회의 교회생활은 북한에서의 생활총화와 다름이 없다는 불안 사도행전은 김일성의 혁명노작을 모방했다는 오해
	굴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복음을 전달 받았지만 주체사상에 물든 영혼이었기에 회피 함 북한에서 배운 반기독교 교육으로 인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었음 회심에 가장 큰 장애는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이 영혼에 까지 중독되었기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음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창세기 천지창조는 유물론적 사고에 물든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 성경 통독학교에서 무수히 성경을 읽었지만 과학적 사고에 물들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 유물론 교육을 받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함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보이지 않기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학적인 성경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반감

좁은 길과 넓은 길	성장이 지체 된 믿음의 씨앗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나의 자아가 곤고함 남한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꼭 차있을 때에는 애써 썩든 복음의 씨앗도 개화하지 못함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기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여 남한의 재벌과 같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주저함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가난과 고통이라는 생각에 결단하지 못함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의 삶은 주체사상이라는 양다리 걸침 한국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신앙이 귀찮은 것으로 전락 돈과 주님의 길 사이에 방황함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	억지 순종에서 자발적 순종으로 바뀌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주저했으나 이미 무수한 기적을 체험 했기에 자신감으로 도전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의 자손이라 충성을 하고자 해도 불가능했으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받은 사랑의 보답 전도	북한 동포와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상명령 소망이 생기자 북한 복음 전파와 통일의 겨자씨로 헌신하겠다는 각오 하나님과 남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북한 주민들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 복음으로 독재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를 구하겠다는 헌신성
하나님 과의 만남	여호와 이레 의 체험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자신의 탈출과 남한입국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음 북한과 중국에서 고생한 삶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었다는 체험 탈북민 목회라는 험한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찾아옴 경제적으로 신학공부를 포기해야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남 교회와 후원자의 지지로 신대원을 무난히 졸업 함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주는 신학교의 장학금 혜택
	체험으로 거 듭남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자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림 기독교를 종교로만 알았으나 생명으로 받아들임
	자기의 부인	나의 삶이 나의 욕망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심 택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아집으로 뭉쳐진 삶이 산산이 부서짐 실패를 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자각 김일성의 노예에서 벗어나 나의 주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뀜 신앙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일먼저 버린 것은 나의 이기심
	모순을 일깨 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은 후 주체사상의 모순을 직시 함 주체사상은 성경을 복사했지만 사랑만큼은 복사하지 못했다는 각성 성령체험은 지성을 믿어 온 나를 완전히 바꿈 남한교인들의 호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사랑의 체험
	위대한 체험 후 축복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심 운명의 주인 자리를 포기했을 때 생명수가 쏟아 오르고 지혜가 생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함

	순종을 통한 무한 자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자유를 느낌 예수님의 순종을 닮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림 교만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자 능력이 생성 됨 기도가 거둬 될수록 자만심이 사라지고 겸손해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낌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교회	의식주의 문제를 도움 받고자 도구적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함 중국에서는 생존을 위한 도피처로 교회를 선택 중국에서 노숙을 하다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출석함 몸은 교회에 의탁 했으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음 신앙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교회가 주는 편리함만 믿고 따라감
교회공동 체 회복	높은 기대로 인한 실망	교회는 지지도 있지만 탈북민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신앙이 후퇴함 교회 내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자 함 교회에서의 믿음은 돈으로 측정한다는 오해 교회의 지원이 줄어들자 베풀고마음보다는 배신감을 느낌
	피해의식	주체사상에 속았기에 기독교와 성경에 다시 속지 않겠다는 저항 탈북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남한교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 거의 한 평생을 적개심을 품고 살았기에 교회에서도 쉽게 분노함 충분한 헌금을 하지 못하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을 느낌 남한 교인들 틈에 낀 개밥에 도토리 같다는 인식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한 정권이 떠올라 갈팡질팡함
	사랑으로 회 복한 공동체	사람에게는 실망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교회생활이 즐거워 짐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교우들의 사랑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 됨
	하나님의 사 랑에서 발견 한 신비함	교회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고 이타적 삶이 무 엇인지를 깨달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탈북민을 보호해 준 목사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탈북민 목사를 보고 자신도 감화를 받음
전도자 로서 천로역정	복음 맥락에 서 정체성 재 구성	탈북민이라는 편견보다는 나는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신대원 입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 위한 통과 의례 나의 삶은 북한정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사상이라는 죄악에 끌려 다닌 삶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
	살아있는 기 적의 증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모습만 바꾸어 나에게도 일어남 나의 회심은 기적이 사라진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증거
	예루살렘의 회복 북한 복 음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체험하게 하고 싶음 외국유학의 길도 있었으나 탈북민들을 위해 개척을 시작함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주저했으나 이미 무수한 기적을 체험 했기에 자신감으로 도전 나의 남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북한 복음을 위한 삶

일사각오의 선교의지	순교자가 되도 영광이라는 각오로 북한선교에 매진 내가 선 자리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림
이 땅에서 천 국 건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의 길이 영적으로는 꽃밭으로 변함 몸은 지하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있음 누울 자리와 배고프지 않음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

## 1. 사상과 진리의 전쟁

### (1)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연구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고백을 했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 장애 중 하나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자와 고학력자도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체류 때부터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책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는 칸트의 종교 도덕 관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이고 인본주의의 정점이었기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중략)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2)

### (2)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지혜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의 통치체제가 교회와 같고 주체사상은 성경을 모방한 것이라고 구술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남한에 입국한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전된 것이고 초기에는 김일성 숭배와 하나님 숭배는 동일하다고 인식했고 김일성 숭배에 희생당한 자신이 또다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김일성의 항일 빨지산 투쟁을 기록한 혁명노작을 모방했다는 오해를 했다. 특히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가정예배로 이어지는 교회의 예배 시스템을 북한의 생활총화와 동일하다고 인식했다. 북한에서는 각 지역에 거점을 정하고 생활 총화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교육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총화에 싫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한에 와서도 이를 되풀이한다고 생각했다.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내동댕이쳤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십니까? 아니 이 책에 내

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로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연구 참여자, 1)

### (3) 골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연구 참여자들은 회심에 가장 큰 장애는 주체사상이라고 이야기 했다. 참여자들은 메시지를 전달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주체사상에 중독되었기에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에서 받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교육은 기독교는 물론 성경에 대해 불신을 갖게 했다. 이러한 불신은 복음을 수용한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이 독이라는 의미를 구성했지만 그 독이 자신들의 골수에까지 퍼져 영혼까지 장악했다고 구술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철천지원수라는 적개심으로 세뇌시킨 후, 주체사상을 주입하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주체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주체사상은 사상을 넘어 신념이었고 종교였어요. 하나의 신앙이었지요.” (연구 참여자, 4)

### (4)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선교사들에게서 전도를 받았고 성경통독학교에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통독학교는 참여자들에게 신변의 안전과 주거와 음식을 제공했지만 참여자들은 성경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과학적 사고와 사회주의 과학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기에 그들의 사고는 유물론적 사고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은 변증법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세계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물론적 사고체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위적 노력을 다해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반감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은 마음과 영혼이 아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미구성 하였다. 이렇듯 유물론적 세계관은 복음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고 썩게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유물론, 신은 없다고 출발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바로 책을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인간의 상식과 지능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 구절들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9)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구술은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지혜의 부재’, ‘골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라는 주제를 결집했고 이러한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주체사상 유물론적 사고와의 전쟁을 치른 경험이라고 판단되었다.

## 2. 좁은 길과 넓은 길

### (1) 성장이 지체된 믿음의 씨앗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는 신변의 위협과 배고픔 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영혼은 밝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한에 온 후,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영혼이 곤고해졌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영혼의 곤고함은 그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트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불행한 삶을 남한에서 복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짊어졌었고 세속적 성공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했을 때 복음의 씨앗은 싹트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3번째 북한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지요. 살아서 나간다면 주이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강남에 베이커리 창업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S교회 목사님이 너 그러다 아줌마 되서 신학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8)

### (2)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기로

남한입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유 그 자체였지만 남한의 물질문명에 흔들리기도 했다. 주체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참여자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들의 삶은 주체사상이라는 양다리 전략을 사용했고 이런 전략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망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돈과 주님의 길에서 방황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 있을 당시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이 울무에서 빠져나가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했지만 한국의 풍요로움과 물질문명을 접하자 신앙은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으나 순종하는 삶은 가난과 고통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 체류한 선교사들의 일생생활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극도의 내핍생활을 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식 생활을 최대한 절약해야만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것이 순종이라는 생각보다는 외형적 궁핍만 기억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통과 궁핍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참여자들은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과 가시밭길과 같은 하나님의 길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다.



“졸업 전 실습 나갔다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솔직히 대기업에 가고 싶었지요. 제가 몽골 감옥에서 서원기도 했는데 대기업으로 가면 잘 되겠어요? (중략) 그런데 C목사를 보면 두려워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끼니 걱정을 하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누가 신학을 하고 싶겠어요?” (연구 참여자, 3)

### (3)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

참여자들은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돌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감옥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기도는 억지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하지만 남한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바뀌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의미를 구성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소위 반동분자의 자손으로 낙인찍힌 참여자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해도 대상이 없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장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대형 교회에 초빙된 경우도 있었고 외국 유학의 길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개척교회를 선택했다. 그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개척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해주며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서 개척교회는 남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안식의 장이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절대적 장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은 개척 교회의 지하 어두운 골방에 강림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J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형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단지아파트에서 탈북민 자매가 자살을 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에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지요.” (연구 참여자, 8)

### (4) 받은 사랑의 보답 전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은 물론, 복음을 전한 선교사 그리고 남한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도움으로 점철되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 교회의 중직들, 목회자를 보내 도움을 주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물을 전달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남한교인들의 사랑에 빚진 삶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이러한 의미를 구성하자 그들의 빛을 갚는 삶은 북한 동포와 남한에 거주하

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지상명령이자 소망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의 복음 전파와 통일의 겨자씨가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며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하겠다는 사랑과 헌신의 결단을 하였다.

“저는 고향인 황해남도 신원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오셨고 외가가 있는 신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탐사대 차량을 운전하셨기에 광산이 많은 함경북도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고향 황해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5)

### 3. 하나님과의 만남

#### (1) 여호아 이레의 체험

연구 참여자들의 믿음은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탈출과 남한 입국을 운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으로 인지했으나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중간 정류장으로 인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자신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고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예비해 놓고 불러들였다고 믿고 있다.

“중국에서 복송되어 감옥에 있다가 죽기 직전에 나왔어요. 살아나 올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략) 한국에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더군요. O교회 무릎선교회와 다른 선교회에서도 저를 위해 엄청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감옥에서 살아나가면 주의 종의 길만을 가겠다고 서원한대로...” (연구 참여자, 6)

#### (2) 체험으로 거듭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였고 그 체험으로 거듭났다.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으나 성령체험은 주체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자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렸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기독교를 도덕, 선한 일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책임으로만 받아들였으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기도원에서 그분이 아파하시는 절규와 피 흘리는 모습이 보여 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품어 주는데 너는 왜 북한을 품지 않니?’ 그때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가 끝날 때 북한을 품기 위해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7)

### (3) 자기의 부인

참여자들은 체험을 한 후에는 자기를 부인했다. 자신의 삶이 욕망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탈출과 중국체류에서 깨달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새로운 삶이 선물로 온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인식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자 자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의 자기의 부인은 남한에서의 자기 실패와 자신의 이기심을 버렸을 때 일어났고 참여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사역장의 팀장을 맡았을 때는 돈 때문에 했습니다. 사역비를 조금씩 횡령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모으니 3000위안이 되었어요. ‘너는 도둑이야’ 저는 그게 양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어 놓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때 저를 감싸는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연구 참여자, 3)

### (4) 모순을 일깨운 하나님의 사랑

연구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에는 참여자들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 자각은 스스로 생성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을 가장 과학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였기에 복음을 수용한 후에도 이를 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에 모순을 직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이 주체사상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후일 주체사상이 성경을 복사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만큼은 복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각성했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성령체험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성령체험을 하자 자신들이 신봉한 과학적 지식과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깨달았고 오만과 아집으로 뭉쳐진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구술했다.

“기독교 신앙이 내 운명의 주인 자리를 내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대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제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고 순간순간 의지하며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맛보고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차 의지하는 삶으로 굳건하게 되었지요.” (연구 참여자, 4)

#### (5) 위대한 체념 후 축복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자 생명수가 쏟아 올랐고 지혜가 생겼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체념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자신이 지녔던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정과 중국에서의 삶은 물론 남한에서의 삶은 매일 매일이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을 때, 국경이 막혔고, 남한에서 등록금이 없어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때, 교회 지인으로부터 지원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기적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일어났으며 삶은 천국으로 변했다고 구술했다.

“2011년 12월에 10년 형기가 만기되어 도문까지 끌려와 복송되는데.... 착잡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다시 연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 국적 불명자로 처리되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데 10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하고 2년쯤 폭 쉬고 싶었는데.... 벌써 신학대학 등록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연구 참여자, 5)

#### (6) 순종을 통한 무한 자유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순종은 복종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였고 능력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순종을 닮지 못했다고 느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초기에 그들의 기도는 남한에서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점차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만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베푼 사랑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고 자신들의 체험을 구술했다.

“먼저 믿은 한사람은 그 집안의 순교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나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찌르는 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께 나를 맡겼을 때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발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연구 참여자, 11)

#### 4. 교회공동체의 회복

##### (1)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교회

연구 참여자들은 도구적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였다. 하지만 몸은 교회에 의탁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마음은 세상을 향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교회가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살아갔다.

“탈북 초기, 심양에서 노숙하다가 교회에서 밥 준다는 말에 배고픔을 달래려 무작정 교회로 따라갔습니다. (중략) 목사님은 저를 양아들로 삼아 주셔서 6개월쯤 한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저를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1)

##### (2) 높은 기대로 인한 실망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선택했지만 교회에 많은 기대를 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교회는 지지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란 편견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믿음은 현금으로 책정된다는 오해를 가졌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활동에 빠져 연락을 하면 지나친 요구와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교회 안 나오면 나와야 한다고 하고 꼭 주일 예배는 참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교회 왜 안 왔냐고 연락 오는 것도 불편했어요.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깐 거부감이 느껴지더군요.” (연구 참여자, 12)

##### (3) 피해의식

연구 참여자들은 도구적 목적에서 교회를 선택했지만 다시 기독교와 성경에는 속지 않겠다는 저항감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들의 삶이 원한과 분노에 가득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삶으로 의미를 구성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쉽게 분노했다. 투쟁과 적대적 저항만 배웠기에 이해보다는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위축된 정서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교인들처럼 교회에 헌

금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교회에서는 그들의 헌금액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을 느꼈고 이런 자격지심은 소외감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남한 교회에 낀 개밥에 도토리 같다는 인식을 했고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하자 북한 정권이 떠올라 갈팡질팡하는 경험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공동체 내에서도 피해 의식이 있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헌금을 많이 강조하면 부담스러워요. 북한에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을 하면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주눅이 듭니다.” (연구 참여자, 9)

#### (4)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발견한 신비함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렸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 남한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타적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생존을 위하여 오로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타적 삶은 생소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당국의 박해를 무릅쓰고 탈북자를 보호해준 조선족 목사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남한에 온 후에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탈북민 목사를 보고 자신도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같은 탈북민인데 K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계시더군요. 이분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이 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연구 참여자, 12)

#### (5) 사랑으로 회복한 교회 공동체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실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사람에게에는 실망한 경험도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관계가 불편한 교인이 있어도 교회 생활이 좋았고, 또한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공허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교우들의 사랑이 눈에 들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슴이 증오와 분노 적개심으로 꽉 찼으나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교회 공동체를 회복했다.

“목사님이 전세 집을 빼서라도 신학대학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듣고 이들은 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십전을 달라고 해도 힘들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를 보내준다니! (중략) 세상에서 부모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행복합니다.” (연구 참여자, 10)

## 5. 전도자로서의 천로역정

### (1) 복음 맥락에서 정체성 재구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대원 입학과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례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을 때 자신은 주체사상이란 죄에 끌려다니던 삶이었다고 의미를 구성했다. 이러한 정체성은 초기에 성경을 과학과 이성으로 해석하려던 인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주체사상은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목에 매어 끌려가야만 하는 노예 굴종 사상입니다. 북한의 인텔리들 배운 사람들은 북한의 허구성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니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략)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고는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군요.” (연구 참여자, 11)

### (2)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회심과 복음수용은 오늘날의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의 의미구성에 의하면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정치 투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약함으로 받아들여졌고 세상과의 타협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구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회심은 기적이 없어졌다고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중국과 한국의 삶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었는데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건 기적이었지요. 나 같은 상처 많은 탈북여성들, 중국 땅에서 물건처럼 팔려 다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10)



### (3) 예루살렘의 회복, 북한 복음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외국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탈북민 교회를 개척했으며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말보다는 이미 자신들의 삶이 기적을 체험한 삶이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삶은 오로지 하나님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삶이다. 그들은 북한 복음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회다운 교회 하고 싶습니다. 북한 분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까? 사랑이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중략) 평양에 대성지역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7)

### (4) 일사각오의 선교의지

참여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교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선 자리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한 사는 길이 생김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기적과 순종의 체험은 일사각오의 선교의지로 구체화 됐다.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지하교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밝힐 수 없음)

### (5) 이 땅에서 천국 건설

연구 참여자들의 개척교회는 대부분 미자립 교회이다. 참여자들은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꽃밭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몸은 지하교회에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곳에 있지만 영혼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체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기아의 고통, 중국에서 신변 불안과 떠도는 삶을 비교할 때, 자신의 누울 자리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혹독한 고난을 극복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불편으로 생각할 것도 커다란 선물로 받아 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초창기에 지냈던 세상으로의 길을 포기한 후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개척할 때 돈이 없다보니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지하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모자라 직접 공사를 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비록 지하지만 천국이 따로 없었고 자식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6)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목회자 길을 선택 한 후, 사역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콜라지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북민 목회자들의 체험은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의 회복’, ‘전도자로서 천로역정’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현상학적 대 주제는 주체사상과 유물론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인본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북한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수용했지만 골수까지 침투한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북한의 교육을 받아 영적세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학습은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에 가장 큰 장애로 작동한다(조해준·송차호, 2019; 이순영 외, 2015).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만을 보고했을 뿐 그 극복 과정과 결과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기로에서 서서 성장이 정체 되었으나 스스로 개척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러한 그들의 결단은 자신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체험이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기도 했다(이순영 외 2015; 전명희 외 2019; 임정민, 2012).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내에서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기도 했다(박예영, 2016).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함으로써 교회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었다. 이들의 성장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남한 기독교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목회자, 일반교인을 막론하고 한국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찌면 갈등과 불화가 통과되리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탈북민 기독교인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기독교인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모판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학공부와 교회 개척은 남한 교인들의 절대적 도움이 있었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개척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복음화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선교는 통일 후의 일이 아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과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선교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생활총화와 남한의 교회생활을 구분하지 못했다. 복음의 불모지대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박병애(2020)의 연구에는 탈북민 목회자 중 중국에 체류했던 한 목회자는 조선족 교회에서 하얀 성의를 입은 목사를 보고 귀신을 본 줄 알고 기절했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그 역시 북한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었으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했다.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기독교 역사를 휘절 시켰고 악의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과 교회에 의한 전도도 필요하지만 탈북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태생적으로 남한 주민들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남한주민들의 호의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억눌리고 피해를 당한 삶이었기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일수도 있다(이재관, 2022).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의 선교는 그들의 저항감과 거리감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탈북 신학생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 등 세밀하면서도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공기인 (2020).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Ghong K. I. (2020). *A Study Using Life History Research of North Korea Defectors about their Changes of Occupational Identity While Living in Pyoungyang City*.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권오성 (2022). **북한이탈주민의 회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Kwon, O. S. (2022). *A Case Study on the Convers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Help and Realization of Transcendental Being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경숙 (2018).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29(3), 53-94.
- [kim, K. S. (2018). A research on the domestic abuses experiences and the trauma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9, 3, 53-94.]
- 김승철 (2004). **역사적 쉐라이어마허 연구**. 서울: 한들
- [Kim, S. C. (2004). *Historical study on Friedrich Schleiermacher*. Seoul: Handeul]
- 박병애·하충엽 (2019). 로젠탈(Rosenthal)의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탈북민 사역자의 복음수용 과정 분석. **선교신학**, 55, 157-195.
- [Park, B. A. & Ha, C. Y. (2019). An Analysis of the Conversion Process of a North Korean Defector Church Worker by the Rosenthal's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Theology of Mission*, 55, 157-195.]
-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Park B. A. (2020). *A Study on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예영 (2016).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 [Park, Y. Y. (2016). A Study on the *Conversion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 Refugees*. Masters Dissertatio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송영섭 (2016). 디아스포라(Diaspora) 관점으로 본 탈북민 이해와 선교적 의미. **개혁논총**, 37, 131-158.
- [Song, Y. S. (2016).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 in Diaspora Perspective & Its Missiological Meaning. *The Society of Reformed Theology*, 37, 131-158.]
- 유영권 (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상담적 대처방안.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9, 177-220.
- [Yoo, Y. K. (2005).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stress and pastoral counseling measure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9, 177-220.]
- 윤현기 (2004).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변화를 위한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
- [Yoo, H. G. (2004). *A mission Strategy for Changing the Religious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s*. Masters Dissertatio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 이근무·이혁구 (2019). 도박중독회복자들의 낙인극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남성 회복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50(3). 223-259.
- [Lee, K. M. & L, H. G.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vercoming stigma of recovering gambling addicts: Focusing on male recovering gambling addic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50(3). 223-259.]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Lee, N. I. (2004). *Phaenomenologie und Hermeneutik: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d Heidegger's hermeneutic phenomen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이남인 (2007). 현상학적 사회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33, 5-39.
- [Lee, N. I. (2007). Phenomenological Sociology, *Phenomenology and Modern Philosophy*, 33, 5-39.]
- 이남인 (2012).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현상학과 현대철학**, 54, 89-121.
- [Lee, N. I. (2012).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 Future of Phenomenology, *Phenomenology and Modern Philosophy*, 54, 89-122.]
- 이선호 (2020). 북한 교회 실상과 기독교 탄압. **북한**, 58, 56-61.
- [Lee, S. H. (2020).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church and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North Korea*, 58, 56-61.]
-

- 이수원 (2011). 북한 주체사상 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문 제연구**, 23(1), 311-344.
- [Lee, S. W. (2011), A study about religious trait of Juche ideology learning system in North Korea: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ristian religious activities-, *Unification problem research*, 23(1), 311-344.]
- 이순형·최연실·진미정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Lee, S. H., Choi, Y. S. & Jin, M. J. (2015),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 Cultural Center.]
- 전우택·조영아 (2003). 탈북자들의 신앙 경험과 교회의 통일 준비. **통일 연구**, 7(2), 105-128.
- [Jeon, W. T., Cho, Y. A. (2003),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e Role of Churches for the Korean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tudies*, 7(2), 105-128.]
- 조성봉·김경숙·정숙희·전명희 (2018). **탈북민의 신앙발달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학술대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 [Cho, S. B., Kim, K. S., Jung, S. H. & Jeon, M. H.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Faith Development and Growth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Conceptual Map Methods. [Academic Conferenc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ociety, Seoul.]
-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 인권정보센터**.
-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9). North Korean Religious Freedom White Pap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 남북하나재단(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North-South Hana Foundation (2014).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 Colaizzi, P. F. (1973).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 Dubuque, LA: Kendal Hunt Publishing.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s.
- Jung J. H. (2019).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 New York City, NY: Springer
-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fe of Homeless Woman*. New York. Penguin,

142-143.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Miles, M. B. and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Thousand Oaks, Sage

Rambo, L. R. (1993).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Yale University Press.

Volf, M. (2019). *“Exclusion and Embrace, Revised and Updated: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ennessee: A bing Press.



#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에 대한 콜라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Using Colaizzi's Method

박병애(숭실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복음수용과 성장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체험 속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는 탈북민 목사 6명과 전도사 6명, 총 12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는 콜라지(1978)가 제안 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95개의 주제, 24개의 주제 결집을 도출했고 이를 5개의 범주로 결집했다. 이를 다시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 회복, 전도자로서 천로역정 범주에 재배열하여 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선교와 탈북민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신학 차원에서 구체적 제안을 했다.

주제어 : 탈북민 목회자, 회심, 콜라지 현상학적 연구, 북한 선교, 북한이탈주민 선교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hurches Roles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a New Approach for Building Christian Communities in North Korea

송 훈 (Hoon Song)\*\*

#### ABSTRACT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was a monumental event for world peace and reconciliation, follow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a relevant and promising model for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churches in the West and East Germany cooperated to ensure the unity of German churches and increased people's hop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The exemplar endeavors of German churches had shown the responsibility heavily raided upon Christians' shoulder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However, German churches in the age of the new Millenium have been facing challenges of conflicts between people had lived in the West and the East and a strong wave of secularism. These conflicts show how hard it is to achieve people's integrit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Also, the leaning of churches in the old East regions shows how ideology can cleanse people's religiosity even after the decline of the communist regime.

Hence, it is needed to critically analyze the roles of churches during and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to present a new idea of missions toward North Korea from a mission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provide historical evidence that mission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an integral mission for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s based on evangelical efforts to build Christian communities in the North from this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ase.

**Key words : missions toward North Korea, unification of Korea, German churches, peace, reconciliation, evangelism**

\* 2022년 5월 16일 접수, 6월 3일 게재확정

\*\* 송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서울시 상도로 369, meersong@ssu.ac.kr.

## 서론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서독 교회의 통일 노력을 본받아서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인 관여와 통일 이후에도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정책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일명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관계, NGO 기관을 통한 선교와 그 원칙, 교회 개척의 정당성과 가능성의 문제들에 대해 두 진영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과거 북한지역에 설립되었던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좁은 개념의 복음 전도를 확장시켜 다양한 화해, 용서, 일치를 추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회 건물의 재건을 넘어서서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전문가 그룹의 준비까지 이어지는 담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선교적 접근에 따른 북한선교를 과거의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북한 교회 재건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북한 교회 세우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교회 세우기의 역사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한 예로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독일 사회의 통합 과정에서의 독일 교회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북한 교회 세우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 교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전도를 기반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북한 교회 세우기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 독일 개신교회와 독일의 분단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동서독 교회의 역할과 그 이후의 통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와 베스트팔렌 협약 이래로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몸처럼 서로 협력하는 공교회의 형태를 띄어왔다. 또한 종교개혁 시기 황제권의 몰락과 더불어 제후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제후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방분권화 된 독일연방 이후에도 이어져 교회 조직이 중앙 집중이 아닌, 지역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갔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에

교회가 사회복음에 매진하면서 복지기구들을 설립하였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전후과정에서 독일교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한계는 없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하면서, 독일 개신교 교회연맹은 연방 소속의 제국교회로 재편되어 ‘독일개신교회(Deutsche Evangelische Kirche)’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치 독일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를 제국의 발아래 굴복시켜 종교를 제국의 선전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히틀러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독일개신교회의 출범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352,000명이 교회를 탈퇴하며 제국의 압박에 저항해나갔다(발만, 2006: 318). 특히 1933년 마르틴 니묄러 목사가 결성한 ‘긴급목사동맹’은 후에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되었고, 1934년 루터파, 개혁파, 연합파 신학자들이 함께 모인 총회에서 신학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는 교회와 나치즘의 결합은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가 바로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으로 독일을 대표했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이 선언에 참여한 이유로 본 대학의 교수직을 잃게 되었다. 칼 바르트처럼 고백교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고, 고백교회는 지하교회가 되었다(발만, 2006: 320). 특히 본회퍼는 고백교회 출신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나치에 대항한 정치운동을 전개하다가 투옥되었고 결국 1945년 처형되었다.

전후 독일의 사정만큼이나 독일 개신교 교회의 사정은 너무나 처참했다. 독일 지역의 종교분포를 보았을 때 개신교 교회는 주로 동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승전국에 의해서 분할되었다. 게다가 인구의 90%에 달했던 동독의 개신교 교인들은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합한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과거의 위상을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된 ‘독일 개신교 교회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아니었기에 지역교회를 통한 재건과 선교활동이 이어지게 되었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민족, 국가, 교회의 동일체에서 벗어나 비판적 연대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했다. 즉, 독일 개신교 교회협의회는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연합회”의 성격이 강한 기구로 주 교회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등 정치에 있어서 연방제처럼 구성된 교회 연합기구이다.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에는 크게 세 교파가 속해있는데, 첫 번째는 연합파 교회로 과거 루터파 교회와 칼빈파 교회가 연합한 교회를 지칭하는 교파이다. 두 번째는, 루터파 교회이고 세 번째는 개혁파 교회이다. 이 두 교파는 과거 연합운동을 거부하고 루터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하는 교회이며, 개혁파 교회는 역사적으로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 독일 교회가 과거의 독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교회가 아닌 독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였다(정일웅, 2015: 81).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결정적 사건이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이었다. 이 고백은 바로 나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협력한 교회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표명한 교회의 공식적 문서였다. 이 문서의 시작은 죄책의 연대성에 대한 강조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독일 교회의 시작을 다짐하고 있다(장수환, 2013: 115-116). 이 선언은 독일 개신교회 내에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한 편에서는 나치즘의 악행과 교회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독일 정부와 사회가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교회의 죄책고백이 독일의 의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정일웅, 2013: 119-120). 죄책고백과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연대를 천명하며 탄생한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는 정치적인 논쟁을 지양하면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재건활동을 전개했다.

동서독의 분단의 과정에서도 독일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로서 독일사회 내에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 행사로, 이 행사는 대규모의 평신도 운동으로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인식하고 연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954년 라이프치히 행사에서는 65만 명이 참가하였지만 이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전체 독일 교회의 모임이 성사되지 못했다(발만, 2006: 336-337) 사회복음 확산의 통로로서 독일개신교회의 날이 기능하였고, 이를 통해 독일교회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특히 사유재산, 노동, 여성, 토지, 인권 등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969년 동독 지역의 교회들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는 다시 연합과 일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 II.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교회의 역할

1945년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를 설립한 독일교회는 패전으로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리된 와중에도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수많은 정치적 논쟁과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교회의 통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의 이면에는 비록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이유로 독일이 분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된 교회로 남아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사명의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게 되고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 동독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 되었는데, 특히 동독 정부는 군인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교회 멤버십을 포기하고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에 입당할 것을 강요하고, 교회 건물의 건축을 불허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종교교육에 간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동독의 청소년 중의 90%가 교회의 견신례 대신에 사회주의 헌신식에 참여할 정도로 국가가 교회의 여러 활동에 관여하였다(이범성, 2005: 104).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자유롭게 동서독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서독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며 독일 통일의 불씨를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했다.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은 같은 성서, 찬송, 성서해석을 공유했고 기독교적인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범성, 2005: 110). 하지만 동독 정부의 계속된 억압과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 서독정부 사이의 군목협정에 관한 동서독 교회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1969년 동독 지역의 교회들이 동독 개신교 교회연맹이라는 교회연합 기구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의 독일어 공식명칭은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약자는 BEK)로서 독일 민주공화국이라는 동독의 국가명칭을 넣음으로서 동독 지역의 교회공동체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와의 특수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독정부의 압력과 군목협정이라는 이유로 동독개신교회연맹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맹이 동독의 개신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로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서독의 교회와의 교류할 수 있었던 동시에 동독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교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발만, 2006: 352).

## 1. 사회주의와 공존하며 시민사회 역할을 감당한 동독교회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BEK)이 독립하여 활동하면서 동독의 개신교회들은 정부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유일한 시민사회로서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증언과 봉사공동체’라고 정의하고 동독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응도, 완전한 거부도 아닌 제 3의 길’을 추구할 것임을 명시했다(발만, 2006: 354-355). 이러한 BEK의 입장은 사회주의 이념 체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체제 안에서 복음적 목표를 지향하며 동독 국민들을 위한 봉사의 기관이 되겠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결국 이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정일웅, 2015: 113) 보여주며 국가에 대한 비판적 협력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를 BEK가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그리고 동독 정부와의 관계의 설정과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시기로 보았다면 1980년대는 본격적으로 세계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들에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BEK는 서독교회와 함께 반전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전개하면서 친소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반냉전 운동을 전개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두 교회 연합이 반전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는 1978년 군사학이란 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준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는 청년들이 무조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이 시행되면서이다. 이 때부터 동독교회는 서독교회와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고, 1980년 11월부터 매년 10일간의 교회 평화주간을 통해 무기 없는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발만, 2006: 357). 이 외에도 동독교회는 소련을 비롯한 냉전의 당사자들의 군사행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개했고, 청년들은 평화를 지지하는 의사를 ‘칼을 쟁기의 보습으로 만들자’라는 표장으로 만들어 부착하고 다녔다. 이는 당시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교회의 국가의 군비 증가에 대한 저항이었다. 결국 정부의 항의로 이 캠페인은 1982년 가을에 끝이 났지만, 동독 교회는 계속해서 양심(종교)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도화(정일웅, 2015: 120-121)<sup>1)</sup>하는 데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동독 교회의 평화운동은 1983년 밴쿠버에서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한 세계 교회의 평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밴쿠버 총회는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이라는 표어로 교회의 연합된 목소리와 활동을 요청했고, 이 총회의 연장선상에서 동독교회가 1988년 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총회를 유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동독교회가 수용하였고 1989년 드레스덴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대회를 통해 동독 국민들과 정권에 대하여 평화와 정의,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과 함께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렇듯 넓은 의미의 동독교회의 평화운동은 후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존이란 이슈의 중심 지역으로 동독이 세계교회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결국 동독의 정치와 사회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독일 통일에 전주적인 역할(정일웅, 2015: 124)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2. 분단 시기 통일을 위한 서독교회의 역할

동독 지역의 개신교회가 새로운 연합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교회 중심의 독일개신교 교회 협의회는(EKD)과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BEK)는 하나의 특수한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치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동서독이 갈등하고 동서방의 냉전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이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로서 평화와 통일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양 교회연합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 후에 대체복무라는 말 자체가 청년들이 군사 행위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사회를 위한 평화봉사’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동독 교회는 1952년까지 교회 운영과 목회자에 대한 사례를 교인들이 내는 교회세에 의지했었다. 하지만 동독정부는 교회세를 징수하는 것을 거부했고, 달리 재정을 충당할 길이 없었던 동독의 교회는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교회는 부족한 재정을 보조하면서 동독의 교회들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독일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일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독교회에 대한 서독교회의 현물지원은 사회봉사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물품의 종류 또한 식료품과 옷 등 매우 다양했다. 현금의 경우에도 동독교회 재정의 40%를 서독교회의 지원에 의존했음을 볼 수 있다(이범성, 2005: 110).

김영동은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A형이 원자재 등의 공급을 통한 재정 지원이라면 B형은 인도적 목적으로 동독지역의 정치범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지역으로 거주시키는 지원방법이었다고 정리하였다. A형의 지원방법을 통해서 동독교회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이외에도 차량, 산업용품, 휘발유 등의 물품 등을 우회하여 받았고, 동독교회 목회자들의 급료 및 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전쟁기간 동안 파괴되어버린 동독지역의 교회들의 재건축 비용 또한 서독교회가 감당하였다. 통일까지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원해준 현물지원 액수는 40억 2천만 마르크에 달해 동독교회 예산 전체에 20-25%에 달할 정도였다(김영동, 2016: 60-62).

B형은 일종의 서독교회와 동독 정부와의 비공식적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서독교회가 동독에서 구금되었던 목사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서독정부의 요청으로 동독 주민을 위한 인도적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서독교회는 동독정부와의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서 동독에 구금되어있는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현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지원은 서독 정부에서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전독일에 관한 문제 담당 부처’ 혹은 ‘내독관계성(Bundesministerium fur gesamtdeutsche Fragen)’에서 인도적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독일 통일 때까지 서독교회는 34억 마르크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김영동, 2016: 67). 인원으로는 총 34,000명의 구속자를 석방시켰으며 25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이봉기, 2001: 289).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를 위한 현물지원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러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사회주의 정권의 연장에 도움을 주진 않았는지, 혹은 인도주의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출 하는 일에 재정과 현물을 사용함으로써 동독정부로 하여금 동독 주민들을 인질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의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서독교회의 동독에 대한 현물 지원이 동독이 서독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높이게 만들었고, 통일 이후에도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독대사관이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은 독일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큼을 볼 수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서독교회의 지원이 “동독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기독교적 유대관계가 향상되고, 정치적, 법률적 장애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기관을 통해서 동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줬고, 동독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전파를 통해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유물론적 사회주의를 향한 저항의 토양을 형성케 하였다”고 평가된다(Armin Volze, 1991; 김영동, 2016: 71에서 재인용). 즉, 무신론이 기반인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 동독교회가 생존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유일한 시민사회의 주체로 남게 되는데 서독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만은 동독교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활약상들을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동독교회는 동독 내의 시민운동가들의 보호소가 되었고, 군중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지원해줬다. 또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기도회는 이후 많은 군중시위의 동기가 되어주었다. 이렇듯 동독교회는 놀라운 자제심과 사회참여로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발만, 2006: 361).

### 3. 통일 후 일치를 위한 동서독 교회의 역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의 시민들이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기 시작했고, 이제 바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독일 시민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동독 시민들은 이제 서독과 같은 발전된 통일 국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1990년 인민선거에서 독일연합과 정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일연합과 정당은 동서독 사이의 국가간 협정을 통해 통일 독일을 향해 재결음을 건게 되었고, 1990년 7월 1:1로 화폐통합이 동서독 사이에 이뤄졌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에 공식적인 정치적 통일을 이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독의 주들이 서독에 편입되는 통일로 귀결된 것이었다.

1969년 EKD와 BEK로 갈라졌던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다시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정치적인 통일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리되어나갔던 BEK가 EKD로 편입 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즉, BEK 소속 교회들이 EKD의 회원자격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논의기로 한다. 1990년 로쿰에서 있었던 동서독교회의 대표들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독일 전체 개신교회 교인들은 특수한 공동체로 분단되고 교회가 조직상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존재했다. 장차 정치적인 발전이 되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전체 개신교인들의 공동체성을 하나의 교회 안에 조직적이고 적절한 형태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토 분단 동안 있었던 경험과 차이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다루고자 한다.<sup>2)</sup>

2) 1990년 1월 17일 로쿰 공동선언문, 요하네스 발만, 361에서 재인용.

이 선언 이후에 독일교회의 통합의 과정에서는 요하네스 발만의 견해처럼 많은 논쟁들이 존재했다. 즉 서독교회와 기존의 연합기구로 통합되는 것보다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의 문제, 구 동독 개신교회의 정체성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발만, 2006: 362).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동독개신교회협회는 분단 이전의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로의 복귀를 결정하게 되면서 두 교회연합이 통합되었다. 물론 동독교회의 일부 인사들은 서독교회와의 통합을 유예하면서 독자생존의 길을 찾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독 교회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 동독 교회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결국 두 교회연합은 과거의 EKD로 1991년 6월27일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교회법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 하더라도 두 교회 연합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특히 교회세의 문제, 군복제도의 문제 등이 두 교회연합간의 통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선 앞에서 서술한 바 동독교회는 동독의 법에 의해 교회세의 징수가 금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교회와는 달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교회운영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서독교회에 의존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교회는 서독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 징수되는 교회세에 의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동독의 경제 상황에 비례해서 교인들이 교회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정일웅, 2015: 161). 즉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경제상황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고,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독보다 높아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세를 감당치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군복제도는 동독 교회가 동독 정부에 저항했던 이슈 중의 하나였다. 즉, 동독 정부가 청소년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와중에 동독의 교회는 평화 이슈를 기치로 내세워 청소년들이 대체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를 위한 평화봉사”의 제도를 만들어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할 정도로 평화이슈에 민감하게 대항해 나갔다. 이러한 동독의 상황에서 군복제도의 정착은 동독교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독교회가 BEK를 만들어 EKD에서 이탈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 이후에도 군복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BEK가 EDK에 통합되는 와중에서도 군복 문제는 별도로 취급할 정도로 동독교회의 입장이 관철되기에 이른다.

### III. 21세기 독일교회의 과제와 역할

#### 1. 동서독 교회의 일치운동과 한계

동서독교회가 하나의 교회연합인 EKD로 통합되었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봄날은 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해결되었지만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교회가 당면하게 되었던 세속화의 거센 파도에 부딪치게 되었다. BEK의 경우 세속주의와 사회주의의 도전에서 큰 상처를 안게 되었다. 분단 이전에는 동독 지역의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서독 지역을 압도했지만, 사회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25%로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서독지역에서도 세속화의 여파로 교회를 이탈하는 인원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보다 시골지역의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예로 과거 프러시아 지역의 가장 큰 개신교회인 포메르쉐 지역교회(Pommersche Evangelische Kirche)의 경우 교인 수가 1950년 55만명에서 2002년 1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신입 세례자와 입교자의 숫자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에서 1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이는 지역인구가 205만 명에서 174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세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Dietrich Werner, 2007: 298-299). 심지어 통일 이후에 독일지역의 천주교인 숫자가 개신교인의 숫자를 앞서는 현상이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가 세워진 이후 최초로 벌어지기도 했다(발만, 2006: 330). 교세의 감소는 목회자의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포메르쉐 지역교회의 경우엔 한 목회자가 8개의 교회건물을 관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Werner, 2007: 299). 주도홍 교수가 정리한 하이노 팔케(H. Falcke)가 지적한 통일독일 교회의 문제점은 “교세의 감소, 재정위기, 역할의 위기, 습관적 무신론, 동독시절의 비교회와, 종교다원주의의 침투, 다원화된 사회로의 진입,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이다(주도홍, 2005: 73). 과거의 디아코니아의 신앙에 입각하여 정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통일의 전주를 놓았던 독일교회가 통일 이후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사회, 정치 참여의 과제

독일 통일 이후 교회는 양 국가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들은 독일개신교회협의회 공식 문건으로 “연대와 정의 안에서의 미래를 위하여”를 채택한다. 이 문서를 만들고 이제 교회가 독일 사회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 예민함을 가지고 부조리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통일된 독일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2년여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2,500여 건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일 사회의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동서독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 그리고 반목에 대해 교회는 상호교류의 사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교회의 사업방향이 독일에 있어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으로 잡고 월요시위를 부활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 정치 참여를 지향하였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동독지역 기업의 통폐합과 실업율의 증가 등의 부작용들이 동독 사회에서 사람들의 교회의 탈퇴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 3. 독일사회에서의 새로운 선교의 필요성

앞에서 서술한 바 독일교회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복음주의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신교회로 번역하는 연구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복음주의가 영미권에서 들어온 용어로서 19-20세기의 개신교회 내의 보수적 신앙양태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독일교회를 지칭하는 데 있어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신교회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교회들은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명 복음주의와 개신교회가 구별 없이 사용된 역사적 용례를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서술한 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교회 연합의 위주로 운영되어 있는 일명 공법상의 주(州)교회라고 분류되어진다. 즉 한국에서의 교단의 의미는 신학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교파를 의미하지만 독일은 그 역할을 주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인들은 주교회가 본인의 교단이고, 지교회는 교회 공동체 혹은 공동체(Gemeinde)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주교회는 독일의 공법에 의해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특히 교회세를 징수하여 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법상의 종교단체로 인정받는 개신교회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의 공공 사회분야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이상조, 2017: 166). 개신교회는 독자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교육, 복지,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 밖에 없으며 다른 종교들은 사법 종교로서 자발적 헌신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제도는 기존 카톨릭 교회와 같은 교구가 중심을 이룬다. 즉 교인들은 본인의 거주지 내에 있는 개신교회 연합회 소속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교

회에 이명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2021). 그렇기에 한 교구가 다른 교구에 전도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의 정책결정을 통해 미약한 지역교회 연합회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세속화로 인한 교인들의 감소와 그에 따른 교회세의 감소는 교역자들의 수급 부족과 기존 목회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교구들도 돌보기가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 교회의 교구적 구조와 인력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동독 개신교 교회 연맹은 기존의 사회, 정치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동독교회는 독일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어지지만, 통독 이후에 동독 교회는 분단 시대보다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는 동독 주민들의 무종교성 현상을 들 수 있다. 분단 시대 동독교회는 하나의 시민사회로 국가와 공존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에 대해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얻지 못했다. 이 외에도 동독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권으로의 진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독에 대한 반감이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 되는 등, 통독 이후의 동독 지역의 개신교회는 통일 이후에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종교탄압이나 무종교 교육,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의 감소로 인해서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종교적 지형이 변화되어 급격한 개인주의와 비종교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오영훈, 2004: 410).

현재 독일의 교회 형태는 한 편으로는 로버트 벨라가 이야기한 공민종교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가 복음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공민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벨라는 미국의 기독교를 이러한 고도로 발전된 공민종교라고 분석한다. 즉 성경적 용어들을 메타포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김종서, 1995: 10). 예를 들어 선민의식, 약속의 땅, 희생, 부활등의 용어들이 미국 정치, 사회 상황에서 순수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은 아브라함의 메타포로, 그리고 케네디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의 메타포로 사용된다. 미국은 약속된 땅이고, 선민이라는 인식이 성서의 용어들을 미국의 공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공민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9/11 테러 이후 미국 개신교에 있어서 공민종교의 종말과 더불어,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음주의 신앙이 다시 부흥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민종교의 특징은 신의 존재는 믿으나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매주 공예배의 참석하는 인원이 실제로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는 인구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교회도 교회활동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급속한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교회의 위기에서 공민종교화된 종



교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 전환기의 독일사회의 비종교적 경향은 19세기 경건주의에 기반한 내적선교의 전통이 에큐메니컬의 사회복음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보다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 교회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 신앙의 기본에는 과거 내적선교를 불리일으켰던 복음주의적 유산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화시기 디아코니아로 발전된 내적 선교(Innere Mission)을 주창했던 비헤른(Johann Heinrich Wichern)의 사례가 있다. 루터의 만인제사설과 진젠도르프의 경건주의적 전통을 기치로 하여 비헤른은 교회의 본질을 봉사를 통한 선교를 강조했다(최무열, 2015). 하지만 내적 선교의 근본은 개인과 공동체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 이를 디아코니아로 발전하는 운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선교의 경건주의적 전통은 후의 영미권의 복음주의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음주의 또한 경건주의적 전통을 기반으로 성경, 그리스도, 십자가, 회심 중심 신앙을 기반으로 한 행동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David Bebbington, 1989: 2-3).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복음전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치즘의 출현과 교회의 저항, 분단과 통일을 위한 독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독일 교회 역시 내적 선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독일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담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 이후의 독일교회는 세속화의 도전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로 인해서 급격한 교세의 감소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교회가 통일 이후에 겪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개방 이후의 북한 교회의 세우기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통일 후 독일 사회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내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진 동독 지역에서는 새로운 극우적 활동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교회는 진정한 내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 교회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공적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교회가 새로운 봄이 아닌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은 것이 공적 교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회세를 비롯한 공적 지원에 기대어 비헤른이 추구했던 내적선교를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독일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선교와 변화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도홍 교수는 최근의 “독일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사랑의 실천을 외치는 교회로 나서게 되었음”을 평가하고 있다. 이제 독일 교회가 열린교회로 나아가며 독일교회의 “부흥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고, 각성을 위한 기도과 중생을 외치는 새로운 시대”를(주도홍 2005: 30-31)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동독 교회들이 스스로 교구의 목회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도전들을 하고 있으며, 과중화 되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교구 목회의 틈을 다른 전통의 개신교회들, 예를 들면 한인 이민교회들이 들어와 지역사회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의 통일 교회의 한계를 성찰해 볼 때,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축인 복음주의에 기반한 선교운동과 사회적 전환기에서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함께 추구하는 종합적 선교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종합적 선교의 핵심은 복음전도와 사회에 대한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상황에 맞춘 섬김의 선교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회변화만을 추구하고 교회의 성장에 무심하다면 사회변화와 복지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동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교회 전도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이분법적 접근을 강요하고 사회 내에서의 신뢰를 잃게 되어 교회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선교적 방법의 균형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독 이후의 독일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이후의 교회 선교의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IV. 통독 후 독일교회의 현상을 통해 살펴본 종합적 통일선교의 가능성

### 1. 과거 북한 교회 재건운동의 배경과 한계

한국에서의 북한선교운동은 한기총의 설립 이후 복음주의 교회들의 통일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진보적 교회들은 한국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선포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바라보고 민주화운동과 연관지어 정치적인 담론으로까지 통일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하며 북한선교론을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한기총의 설립되면서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을 공유하여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며 북한 붕괴 후 북한을 흡수하는 형식의 통일론을 확산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기총의 이러한 북한인식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이념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정책을 통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의 확산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일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북한 붕괴론이 남한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며 한기총은 북한 선교의 한 방법으로 북한 교회 재건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기총은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안에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 교회의 재건을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과거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하며 한국교회가 연합의 원칙, 단일교단의 원칙,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김현웅, 2002: 102).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은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남북 정부 간의 화해, 협력 무드의 강화, 그리고 남한사회 내에 통일회의론의 확산과 더불어 그 추진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김일성 사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도 북한 체제는 더욱 더 공고하게 유지되었고, 노태우 정권부터 남한 정부의 통일원칙이 인위적 통일이 아닌 평화 정착 후의 단계적 통일론이 통일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기대 심리가 약화 되었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북한의 경제 개혁과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되며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평화적 공존에 국가정책과 시민운동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 통일, 그리고 북한 지역에 교회의 재건이라는 패러다임이 선교적 관점에서 그 영역이 확장되기에 이른다. 즉, 탈북민 지원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권운동, NGO 등을 통한 북한주민 돕기 운동 등을 진행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면을 확장하고 있어왔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남북교류 중단 등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 개념의 북한선교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적 접근으로 북한선교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 종합적 통일선교의 제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종합적 선교의 방향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과거 통전적 선교가 가지고 있는 우선성의 한계를 먼저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종합적 선교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박현신은 이를 팀 켈러의 선교적 교회론을 기반한 센터처치의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북한 도시의 문화적 상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사역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박현신, 2021: 38). 비슷한 맥락에서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현대의 복음주의의 대표적 인사인 존 스코트(John R. W. Stott)가 강조한 그리스도 개인 자체가 “증인인 동시에 중”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디아코니아 (diakonia, 섬김)’과 ‘마르튀리아 (marturia, 증거)’는 불가분의 사역이며, 복음전도사역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하였다(존 스토티, 2005: 49-50). 홍기영은 통전적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있다고 규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분석한다(홍기영, 2014: 424). 즉,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공의를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자체가 바로 통전적 선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함께 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사회와 문화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었고, 이를 현대 사회의 선교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홍기영, 2014: 428). 특히 동독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국가 사회에서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유물론적 세계관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은 경제, 문화적 상황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교회의 역할이 디아코니아를 통한 사회복음의 진정한 원칙인 복음 선포의 사역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 안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선교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 공동체의 세움과 더불어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 교회의 세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 편에서는 복음전도가 우선이나, 사회봉사가 우선이나, 즉 증인으로서 북한 사회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나, 아니면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한 디아코니아가 우선이나는 이분법적 논리로 북한선교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통독 후 독일교회의 공교회로서의 자리매김에 주목하면서 굳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인들이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공적 시민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시민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이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구 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신앙인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교회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복음의 확산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세움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지적한대로 섬김과 증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뜨릴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이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전적 선교의 한계는 이분법적 논리로 우선성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다른 한 편을 등한시하거나 부수적인 사역으로 여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에 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선교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재정의 분산으로 인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안승오, 2019). 통전적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의 전파와 회심이 우선이며 복음의 발로로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통합적 사역을 추구하는 선교는 복음의 선포-섬김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선교가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비종교화의 거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동독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이다. 예를 들어 동독 출신이면서 뮌헨 대학의 조직신학 명예 교수인 볼프 크뢰케(Wolf Krotke)

는 독일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 교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라는 정체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독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이를 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Wolf Krotke, 2012: 446).

이러한 북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종합적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사역자들의 양성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북한선교는 NGO,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을 통한 여러 방식으로 디아코니아 신앙에 근거하여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아 사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만 오해, 배척, 갈등이 예상되는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긴밀한 복음선포와 나눔이 가능한 소규모의 신앙공동체의 양성이다. 이는 복음전파야말로 선교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준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앞으로의 북한지역에서의 복음전도와 디아코니아 선교의 주체는 남한 교회가 아닌 탈북민과 북한에서 양육된 현지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기에 있어서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교의 역량과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의 한국교회의 선교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지역교회들을 탄탄하게 양육했던 장로교회와 기관과 문서를 통한 사역을 확대하고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세우지 못한 감리교회가 1910년 이후 10년간의 침체기 동안 보여주었던 교세의 차이가 확연하다. 이는 선교에 있어서 현지의 리더십을 세우고 복음전도를 위한 확실한 기반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Hoon Song, 2009). 셋째로, NGO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로, 교회 자체가 시민적 참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된 인원들이 다시 사회, 복지 기관으로 선순환되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안에서 확장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교회의 역할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동독교회가 사회주의 속의 교회로서 하나의 시민사회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서독교회, 서독정부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찰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 결론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독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디아코니아 선교를 지향하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분단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독일교회의 이러한 저력의 이면에는 독일 국민의 과반수가 개신교회 등록교인이었고, 공법적 교회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보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에 큰 공헌을 했던 교회는 통일 이후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겠지만, 통독 이후의 독일의 현실은 특히나 교회에 가혹했다. 신입 교인들보다 교회를 탈퇴한 인원이 3-4배에 이를 정도로 교인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어 독일을 더 이상 개신교 국가로 부를 수 없을 정도이다.

교인들의 이탈과 더불어 동서독의 교인들의 비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독 지역의 교회에 대한 신뢰상실과 구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은 교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독일식의 디아코니아 중심의 사역과 더불어 복음주의적 선교 사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교정책과 원리는 앞으로 북한 개방 시에 이뤄질 북한 교회 세우기의 한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축으로는 복음전도를 통한 제자양성을 우선하며, 그리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 복지, 교육 시설을 통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자면, 교회 공동체와 기관 사역을 남한교회가 아니라 북한에 세워진 신앙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맡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북한 교회 세우기는 북한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와 더불어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구축되어온 유물론적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두 가지 축을 지향해야 한다. 복음 선포와 전도의 축이 무너지면 디아코니아 선교의 역량이 약화되어 오히려 불신과 선교의 목적의 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디아코니아의 축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치유와 베품, 해방됨의 사역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북한선교를 디아코니아나, 아니면 복음전도나, 이분법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복음 선포와 회심을 기반으로 하여 이 두 사역을 필수불가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식하는 종합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영동 (2016).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참여방향 연구. 안교성(편저), **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전망: 신학적 성찰과 과제**. 서울: 나눔사.
- [Kim, Y. D. (2016). Churches' Strategy to Partake i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hn, Kyo Seong (Ed.) (2016) *Reflections 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ological Issues and Assessments*. Seoul: Nanumsa.]
- 김종서 (1996). 미국적 신앙의 뿌리와 공민종교의 성립. **종교학연구**, 15, 1-15.
- [Kim, C. S. (1996). The Root of American Belief and the Establishment of Civil Religio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5, 1-15.]
- 김현웅 (2002). 북한 교회 재건 전략. **인문과학논총**, 7, 83-110.
- [Kim, H. U. (2002). A Strategy to Re-establish Churches in North Korea. *Humanities Research*, 7, 83-110.]
- 박현신 (2021). 팀 켈러의 센터처치와 북한교회. **기독교와 통일**, 12(2), 7-47.
- [Park H. S. (2021). A Study of Tim Keller's Center Church and Churches in North Korea. *Christianity and National Reunification*, 12(2), 7-47.]
- 오영옥 역 (2006).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교회사**. Johannes W. (1993). *Kirchengeschichte Deutschlands Seit Der Reformatio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Oh, Y. O. (2006). *History of German Churches after the Reformation*. Seoul: Korean Society of Christian Literature. Trans. Johannes W. (1993). *Kirchengeschichte Deutschlands Seit Der Reformation*. Mohr Siebeck: Tuebingen.]
- 안승오 (2019). 통전적 선교신학의 한계점 소고. **복음과 선교**, 45(1), 45-80.
- [An, S. O. (2019). A Study on Limitations of the Holistic Mission. *Evangelical Missiology*, 45(1), 45-80.]
- 오영훈 (2004). 독일통일과 동독교회의 역할: 통일 후 동독교회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그 원인. **독일어문학**, 12(3), 399-419.
- [Oh, Y. H. (2004). The Role of Churches in the DDR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Changes of Social Role of Churches in the East after the Reunification and Their Reasons. *German Literature*, 12(3), 399-419.]
- 이범성 (2005). 독일교회의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선교와 신학** 15, 101-124.



- [Lee, B. S. (2005).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Reunification Movement of German Churches from an Ecumenical Perspective. *Mission and Theology*, 15, 101-124.]
- 이봉기 (2001).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분단 이후 통일까지(1945~1990), **통일문제 연구**, 13(1), 271-306.
- [Lee, B. G. (2001). A Research on the Financial Aid and Exchange from West Germany to the DDR: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and its Reunification, 1945-1990.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3(1), 271-306.]
- 이상조 (2017). 공법(公法)상 주(州) 교회인 독일 개신교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교회체제의 특징. **장신논단**, 49(2), 159-186.
- [Lee, S. J. (2017). The German Protestant Church as the Constitutional Body of Public Law: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urch-political Structure. *Korean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9(2), 159-186.]
- 장수한 (2013).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의 역사적 평가. **복음과 실천**, 51(1), 103-129.
- [Chang, S. H. (2013). Stuttgart Confession and Historical Evaluation on It. *The Gospel and Praxis*, 51(1), 103-129.]
- 정옥배 역 (2005).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Stott, J.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 [Chung, O. B. (2005).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Seoul: IVP. Trans. Stott, J.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Basingstoke: Marshalls.]
- 정일홍 (2015).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 서울: 범지출판사.
- [Jeong, I. H. (2015). *Efforts of Korean Churche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Learning from German Churches*. Seoul: Beomji Publications.]
- 주도홍 (2005). 통일 전후 독일 교회의 문제와 과제. **통합연구**, 18(1), 65-92.
- [Joo, D. H. (2005). Facts, Problems and Assignments of the German Church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8(1), 65-92.]
- 최무열 (2015). 독일교회 위기극복을 위한 비헤른의 인네르 미션과 디아코니아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들에 관한 소고. **복음과 선교**, 32(4), 221-257.
- [Choi, M. Y. (2015). A Study on the Innere Mission and Diakonia of Johann Heinrich Wichern as a Way of Restoration of the Church of German in 19<sup>th</sup> Century. *Evangelical Missiology*, 32(4), 22-257.]
- 홍기영(2014).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신학**, 36, 403-444.
- [Hong, K. Y. (2014). Mission Reviewed with an Idea of Missional Church. *Mission and Theology*,

36, 403-444.]

황대현 (2006). 16-17세기 유럽의 교파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사회적 규율화의 첫 단계로서의 교파화 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독일 사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00, 293-321.

[Hwang, D. H. (2006). A Historical Research Review on the 'Confessionaliz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urope. *History Education*, 100, 293-321.]

Bebbington, D. W. (1989).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Routledge.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Kirchengesetz über die Kirchenmitgliedschaft, das kirchliche Meldewesen und den Schutz der Daten der Kirchenmitglieder (Church law on church membership, church reg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data of church members)," <https://www.kirchenrecht-ekd.de/document/3168>. 2021년 10월 20일 접속.

Song, H. (2009). *American Methodist and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First Decade of the Japanese Occupation*, circa 1910-1919. Master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USA.

Werner, D. (2007). "The Future of the Rural Church: Perspectives on Rural Evangelism in a German Context."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6, 382/383, 296-305.

Wolf, K. (2012). 'A Jump Ahead'; The Church as Creative Minority in Eastern Germany, *Theology Today* 68(4), 438-447.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erman Churches Roles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r a New Approach for Building Christian Communities in North Korea

송 훈 (송실대학교)

### 국문초록

독일의 통일은 과거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이념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한 사회에게 희망과 역사적 교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교회가 보여주었던 통일과 화해, 일치를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 교회가 통일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서의 동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동독교회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인들의 이탈과 주민들 사이의 비종교화의 도전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볼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마주하는 우리는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적 교회의 측면에서 북한 교회 세우기의 방법론을 재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 북한 교회 재건을 목표로 한 북한선교의 복음의 일방성에 한계와 디아코니아 기관을 통한 선교를 분리되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선교적 과제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북한 교회 세우기는 복음전도를 기반한 사회적 섬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역사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북한 교회 세우기, 복음전도, 사회적 책무, 디아코니아 선교, 통일, 화해

#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성경적 돌봄의 의미\*

## The Meaning of Biblical Care in Picture Books About Garden

국경아 (Kyeong A Kook)\*\*

현은자 (Eun Ja Hyun)\*\*\*

### ABSTRACT

In these days, the conflict between children's autonomy and the protec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teachers is becoming a real topic of discussion in the educational field. This paper examines the essence of education-care in a Christian way and point out that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children is the right that adults should provide to children. To this end, in this paper, picture books based on gardens were selected and exami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icture books based on the garden, it was found that the care devoted to others with royal authority and humanistic meaning of the garden, which restores life, as a 'separated area'. In addition, we could see the teachings and care of older generations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bear fruit. Through picture books that examine the essence of car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show it well, we will be able to reaffirm our responsibilities as adults who should practice caring.

**Key words:** The Christian Essence of Caring, picture book, child education.

\* 2022년 5월 17일 접수, 6월 7일 최종 수정, 6월 8일 게재 확정.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2021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viruskka@skku.naver.com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hyunejl@skku.edu

## I.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Rober, 1995; 하여진, 2020: 36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동의 인권도 예외될 수 없는데, 특히 아동 인권은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채택과 이후 각 국의 비준 등으로 본격적인 국제적 관심과 정책 추진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된(배윤주, 2013: 47)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 인권과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기본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규정되고 이 4대 기본권은 다시 차별금지, 아동의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4가지 우선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임세와 외, 2020: 하여진, 2020). 이 때 4가지 우선적 가치 중 하나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가 규명되어야 추구될 수 있는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는 결국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하는 아동관을 기초로 하게 된다.

아동관과 관련하여 현 시대에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동의 자율성에 관한 것이다. 성인의 축소판으로만 여겨져 오던 초기의 아동관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로서 아동관을 거쳐 이제는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가 과거의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관의 변화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로만 바라보던 과거의 아동관이 성인의 과도한 간섭과 아동의 수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폐해를 불러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고민을 야기하고 있다. 아동은 성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장 중인 존재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아기는 동물들의 아기와는 다르게 매우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기라고 불리우는 이 기간 동안 아동은 부모와 교사의 돌봄을 통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완성되어 나가게 된다. 아동 고유의 이러한 특성은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아동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김호현, 2019: 270). 이처럼 성인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장단계에 놓인 아동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권리의 개념은 권리주체인 아동의 자율성 대 성인과 사회의 보호권 간의 불가피한 마찰을 구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임세와 외, 2020: 643).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원리와 아동의 의견 존중 원리를 함께 증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데 두 원리가 조화되기도 하지만 충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기범, 2018: 24).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의 충돌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개편 이후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가 더 권장되고 있는 시대 분위기에 따라 아동 교육에 있어서 성인의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원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동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을 가진 교사와 부모가 어떤 돌봄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될 지 고민하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평론하는 작업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소명은 **정원-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정원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자 경영을 명하신 세상이었으며 이때 경영은 피조물들을 지혜롭고 다스리는 돌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정원을 가꾸는 행위에는 생명들을 가꾸고 그 생명들이 조화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면이 분명히 들어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인 '정원을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 특히 세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영유아들에게 그림책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현은자 외, 2019)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그림책은 여타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은총 교리를 반영하는 은유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살펴보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정보책, 그리고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면서 그 안에 가득한 생명력을 노래하는 책들이 많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많은 그림책들이 정원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가꾸어지는 모티프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 혹은 정원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매체가 다름 아닌 그림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많은 그림책들이 정원과 용서, 정원과 회복 등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정원과 연결 지어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돌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돌봄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살펴본 돌봄의 본질을 현시대에 적용했을 때, 즉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의 보호 간 개념적, 실천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는 아동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성인의 보호 및 개입이 꺼려지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해 아동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봄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연구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동 인권, 아동 돌봄을 직접적으로 논하기보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돌봄 명령이 정원-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평론하며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살핀 돌봄의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 인간의 받은 최초의 소명이었던 정원을 돌봄이라는 소재를 가진 그림책들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아동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정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인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원은 꽃과 작물을 심어 그 소산물을 취하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이라는 실용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가지지만, 본 연구는 정원의 실용적 기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원이 가진 인문학적 의미가 인류 최초의 정원이었던 에덴 동산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돌봄의 본질을 아동 돌봄에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림책은 『용서의 정원』, 『지하정원』, 『리디아의 정원』, 총 3권으로, 이 3권의 그림책은 2021년 서울문화재단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사업에서 필자가 참여했던 ‘어린이의 정원’ 프로그램에서 선정, 사용됐던 그림책들 중 일부이다. ‘어린이의 정원’은 초등 3,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와 그림책을 연계하여 개발, 실시한 총 20차시의 통합예술수업 프로그램으로, 20차시의 프로그램을 위해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주제와 구성에 적절한 텃밭, 정원 관련 그림책들을 사용하였다. 당시 그림책 선정을 위해 필자를 포함하여 아동문학 전공자 대학원생 1명과 함께 제목과 내용에 정원, 텃밭의 키워드를 가진 그림책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림책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어린이의 정원’ 프로그램에 적절한 그림책들을 20권 최종 선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텃밭과 그림책을 연계한 통합 예술 수업으로 어린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인간의 돌보는 수고와 자연이 거저 주는 햇빛, 비, 바람 등 자연의 선물이 어우러져 생명이 자라나는 경험을 직접 하며 그 안에서 자연과 생명, 아름다움, 예술적 감성을 충만히 느끼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프로그램이었으며 함께 텃밭의 식물들을 가꾸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20권의 그림책들은 자연, 생명, 돌봄, 공동체 등의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텃밭, 정원 소재의 그림책들은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나 정원에서 꽃과 식물이 자라나는 1차적인 내용뿐 아니라 정원에서의 돌봄이 2차적으로 회복, 화해 등으로 연결되는 내용, 혹은 회복, 화해 등을 그 내용과 제목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뒤에서 상술



하게 되겠지만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원에서 일어나는 돌보는 행위와 연결되어 돌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20권의 그림책 중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본질 등이 잘 드러나는 3권을 다시 선정하였고 각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를 관찰, 분석하였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를 관찰, 분석하는 데에는 현은자(2017), Barrett(2000)의 묘사, 해석, 판단 중 묘사,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술 비평 이론가 테리 바레트(Terry Barrett)는 묘사, 해석, 판단으로 그림 비평의 세 요소를 정리했으며, 현은자(2017)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매체이므로 묘사, 해석, 판단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을 함께 보며 그림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다양한 관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의 흐름, 페리텍스트, 도서로의 물성 등을 세세히 살피며 글과 그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바레트의 묘사, 해석, 판단을 좀 더 상술하면 먼저 묘사 단계는 관찰의 단계로서 좋은 묘사는 해석과 비판의 기초가 되며 평가에 설득력을 부여한다(현은자, 2017: 218). 해석의 단계는 작품에 담긴 주장, 세상과 인간과 나의 삶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Barret, 2000: 200) 그 무언가를 읽어내는 단계로서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에 자주 비유되곤 한다(현은자, 2017: 219). 마지막 판단은 그 작품이 가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단계(현은자, 2017: 220)로서 작품 비평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 등을 꼼꼼히 관찰(묘사)하고 정원의 의미, 돌봄의 본질, 아동 돌봄의 바람직한 모습 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글과 그림, 스토리텔링 등을 해석해 내었다. 다만 판단은 이것이 가치 있는 그림책인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작업이므로 판단 단계를 생략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돌봄의 성경적 본질은 무엇인가?
3.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3권의 그림책들을 통해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성경적 본질,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각 그림책들이 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점들을 그 그림책과 함께 중점적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3권의 그림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본질 등을 기술하는 것도 연구의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 문제를 특히 잘 보여주는 개별 그림책 1권씩을 짚지어 논지를 좀 더 선명히 부각하고자 하였다.

## II.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 1. 정원의 어원적 의미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 정원(庭園, garden)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사전적으로 볼 때는 흙·돌·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구성요소로 계단, 담, 울타리, 테라스, 벤치, 잔디와 지피류, 조명, 조각, 기타 장식물 등)을 의미한다(산림청, <http://www.forest.go.kr>; 최지연, 2018: 825에서 재인용)

정원은 역사적으로는 동·서양 모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텃밭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고정희, 2011; 최지연, 2018). 한국, 중국 등에서 정원은 신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채소를 가꾸는 채소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어떤 격리된 구역(최지연, 2018: 826) 등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고 서구에서는 성경의 에덴 동산이 최초의 정원으로 여겨진다(최지연, 2018: 826). 정원의 어원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한자로 정원(庭園)은 쟁기로 가꾸는 것, 울타리 안에 과수, 화목이 어우러진 공간, 주거공간에서 벗어난 들과 산림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우경숙·서주환, 2016: 4; 최지연, 2018: 826에서 재인용). 서구권에서 통용되는 정원을 뜻하는 단어들은 영어 garden, 독일어 garten, 프랑스어 jardin 등인데 이 단어들은 원래 히브리어 gan과 oden 또는 eden의 합성어로서 gan은 울타리 또는 둘러싸는 공간이나 둘러싸는 행위를 의미하며 oden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한다(김용식, 2013, 19; 최지연, 2018: 826에서 재인용). 이상 정원의 어원적 의미에는 동서양 모두 구별된 구역이라는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권에서는 성경의 에덴동산이 정원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구별된 곳 -『용서의 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용서의 정원』은 로런 톰프슨이 글을 쓰고 크리스티 헤일이 그림을 그렸으며 2018년 시공주니어에서

출판되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분쟁을 치유하고자 만들어진 ‘용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한다. 실제로 있는 ‘용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만큼 그림책의 내용 역시 적대 관계에 있는 가상의 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곡의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얌 마을과 감테 마을은 이유도 모르는 채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어왔다. 어느 날 두 마을의 말다툼 도중 감테 마을의 소년 카룬이 던진 돌에 바얌 마을의 소녀 사마가 쓰러지고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사마는 분노와 슬픔을 달래러 개울에 갔다가 자신의 얼굴에 생긴 흉터를 비춰보며 그 흉터보다 더 어둡고 찌푸리고 있는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건너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자신들이 모두 똑같이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사마에게 돌을 던졌던 카룬이 바얌 마을에 잡혀 오고 마을 사람들은 사마에게 돌을 던져 복수하라고 한다. 그러나 사마는 집어들었던 돌을 멀리 던지며 이 곳에 용서의 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마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카룬에게 던지려고 가져왔던 돌들을 쌓아 정원의 울타리를 만들고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용서의 정원을 만든다. 완성된 정원 안으로 사마와 카룬은 먼저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책이 끝난다.

책의 모든 장면들은 펼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펼친 면을 활용함으로써 계곡의 개울을 사이에 둔 적대 관계의 두 마을을 가로로 긴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한다. 책의 색조는 전반부, 용서의 정원이 만들어지기 전의 본문들은 주로 갈색과 차가운 청색이 주조를 이루다가, 용서의 정원이 만들어진 후의 본문들은 노랑, 청록, 보라 등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바뀌며 색조를 통해 이야기의 분위기 변화를 전달한다. 사람들의 모습은 주로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사람들의 동작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교차되곤 하는데, 이렇게 확대된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좁혀가며 자세히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과 얼굴표정-심리상태-의 대조는 이야기의 흐름과 맞물리어, 정작 서사가 적대 관계에 있는 이유도 모른 채 오랫동안 습관처럼 공격하고 다투기만 하는 성찰 없는 행동들과 그 성찰 없는 행동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마음의 복잡다단함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2) 구별된 곳으로서 정원

『용서의 정원』은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지만 실제로 꽃과 나무 등 정원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장면은 한 장면에만 등장한다. 정원의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사마의 마음의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정원을 만든 이후에도 정원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원 안

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하자면 『용서의 정원』은 정원 자체보다는 정원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그림책뿐만 아니라 정원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에서 이렇게 정원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이 꽤나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Frances Hodgson Burnett의 『비밀의 화원(정원)』을 들 수 있다. 1911년 초판 인쇄 이후 100여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 아동도서인 『비밀의 화원』은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함께 놀면서 상처와 서로 간 관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이들의 관계성 회복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화원을 폐쇄시켰던, 주인공 소녀의 삼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온 집안 식구들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정원 안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관조와 성찰의 힘, 그 구별된 공간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생명의 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의 정원』 역시 그러한데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장면 10과 장면 11에서 사마와 마을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돌씩 쌓아서 정원의 벽을 만드는 장면이다. 증오와 분노 속에서 용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원의 벽, 즉 다른 곳과 구별되는 장소로서 정원의 울타리를 만든 것이었다. 앞서 정원의 어원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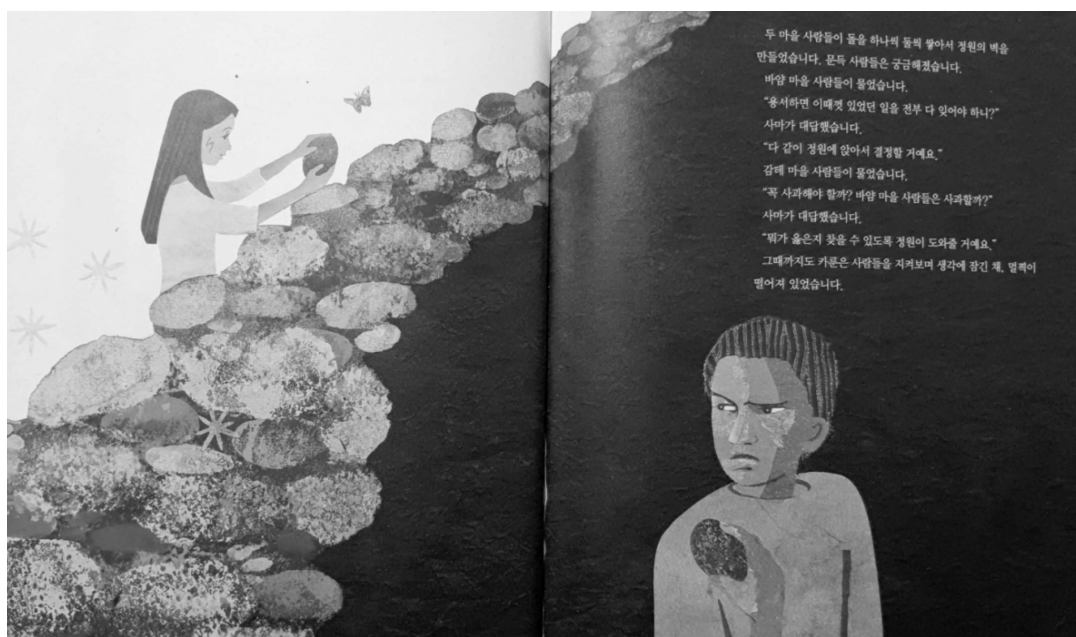


Figure 1. 『The Forgiveness Garden』 Scene 11



는데 『용서의 정원』은 바로 정원의 이런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바깥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서 정원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관조와 성찰을 통해 새롭게 세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Harrison(2012)은 뉴욕시의 홈리스들이 주변의 자잘한 물건들을 가져와 자신들만의 구별된 장소로서 정원을 만든 일화를 소개하며 집이 없는 그들조차 세상과 잠시 구별되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원은 이처럼 주변에 대해 경계를 그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그곳을 소란한 세상의 고요한 정지점(Harrison, 조정진 외 역, 2012: 12-13)으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정원의 또 다른 속성은 이렇게 바깥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실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원은 일정 정도 바깥 세상과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가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이 이렇듯 바깥 세상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실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원이 가진 휴식과 성찰의 힘, 그 안에 깃든 생명력이 결국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용서의 정원』의 장면 11-장면 13은 두 마을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증오가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하는지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대한 증오와 분노 앞에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주저하고 염려한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사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한다. 그 곳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한다. 정해져 있는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새로운 시각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바깥 세상과 구별되지만 엄연히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이런



Figure 2. 『The Forgiveness Garden』 Scene 13

공간이 가진 인문학적 힘에 대해 Hrrison(2012)은 ‘가장 나쁜 층동에서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 문화적, 윤리적, 시민적 덕목을 가꿀 수 있는 곳은 지상의, 자기 안의, 혹은 사회 집단 가운데에 있는 한 뼉의 땅 (Harrison, 조경진 외 역, 2012: 20)’이라고 평한다. 새로움은 거대한 정복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자신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원의 이러한 공간적 속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역사와 묘하게도 닮아 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12지파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는 구별된 한 사람에서 한 민족으로, 그리고 온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역사이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구별됨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돌봄의 성경적 본질: 인간의 소명 - 『지하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지하정원』은 조선경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보림 출판사에서 2005년에 출판되었다. 『지하정원』은 지하철 역을 청소하는 청소부 모스 아저씨의 수고와 돌봄을 통해 더럽던 지하철 역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 생명력이 그 주변 전체로 퍼지는 이야기이다. 본문은 뒷산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를 비좁은 화분에 심어놓고는 그 나무를 어딘가 적당한 곳에 다시 옮겨 심어줄 것을 신경 쓰면서 새벽 출근을 하는 모스 아저씨가 모습으로 시작한다. 모스 아저씨는 정체모를 악취에 대해 불평하는 승객들을 위해 그 다음날부터 자신의 청소구역이 아닌데도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지하철 터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청소하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모스 아저씨는 환기구를 통해 지상의 빛이 한 조각 들어오는 작은 공간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던 나무를 그 곳에 옮겨 심고 매일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며 정성껏 나무를 돌본다. 아저씨의 돌봄 덕분에 나무는 점점 자라나 지상의 환기구 틈새로 가지를 뻗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소식은 금세 뉴스거리가 되지만 사람들의 신기해하는 관심도 잠시뿐, 새로운 뉴스거리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모스 아저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하정원으로 매일 출근하며 나무를 돌보고 책을 읽곤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지상의 환기구로 가지를 뻗었던 모스 아저씨의 나무 주위로 누군가 다른 나무들을 심으며 삭막했던 구역이 푸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제는 백발이 된 모스 아저씨는 오늘도 청소를 마치고 지하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가 끝난다.

책은 가로로 좀 더 큰 판형이며 모든 장면들이 펼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장면마다 글 텍스트는 왼쪽 페이지의 일부 가운데에, 그림은 왼쪽 페이지의 글 옆 일부와 오른쪽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물들의 구도는 주로 중경으로 잡혀 있는데 일부 장면들, 모스 아저씨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지하철 터널 안을 마주하고 염려하는 장면과 어린 나무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장면은 근경으로 잡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나무가 지상의 환기구를 뚫고 나와 점점 자라는 장면과 그 주변이 나무들로 가득하게 바뀌어 푸른 도심으로 바뀌는 장면은 원경으로 잡혀 있어, 나무 한 그루에서 비롯된 생명력이 도심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전체적인 시선으로 조망해 주고 있다. 『지하정원』의 주 색조는 청색과 갈색, 초록색이다. 지하철 터널은 주로 차가운 청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모스 아저씨는 주로 갈색 계열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갈색은 갓 구운 빵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는 어린 나무를 묵묵히 지지하고 돌보는 흙을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다. 차가운 청색의 지하철 공간은 갈색의 흙과 갈색 옷을 입은 모스 아저씨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자라는 나무 덕분에 책의 후반에서는 산뜻한 초록색이 가득한 색감으로 변하게 된다.

## 2) 돌봄의 성경적 본질

『지하정원』은 돌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모스 아저씨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를 돌보며 걱정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청소구역이 아닌데도 악취의 근원을 찾아 터널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청소하며 버려진 공간을 돌보는 모습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나무를 날마다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모습에서, 그리고 모스 아저씨가 돌본 그 나무의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 주변 전체가 푸른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돌봄의 근본적 동기와 그 결과를 보게 된다.

‘돌보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로 ‘도와주다’, ‘보호하다’, ‘보살피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Harrison(2012)은 영어의 ‘care’에 ‘돌봄’과 ‘걱정’의 의미가 함께 있으며, 일평생 누군가를(자신을 포함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아가 그는 돌봄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권의섭(2015)도 인간은 누구나 배려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배려 없이는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권의섭, 2015: 26). 권의섭(2015)에서 말하는 배려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마음(권의섭, 2015: 26)으로, 돌봄과 유사한 의미로 배려를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 생존이라는 기본 욕구를 넘어선 ‘인간다운’의 상태, 인간이 갈구하는 사회적, 미학적, 생태적 충족감과 관련이 있다(최성희, 2020: 83)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건이라는 이들의 관점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



는 것이다.

또한 돌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으로 나타난다(김경이 외, 2019: 83).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עבד, 개역한 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עבד, 개역한글 다스리며) 지키게(עבד) 하시고(창 2:15)”

위에서 보듯이 5절의 ‘갈’과 15절의 ‘경작하다’는 히브리어의 같은 어근 ‘아바드(עבד)’를 사용하고 있다. ‘아바드’는 ‘일하다’(창 30:26)라는 기본 의미 외에도 ‘갈다, 경작하다’(창 2:5), ‘봉사하다’(창 29:25), ‘다스리다’(신28:39), ‘힘쓰다’(신 5:13)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쓰인다(이상하, 2011-39). 또한 15절의 ‘지키다’의 어근은 ‘좌마르(שמר)’인데 이는 ‘살피다’(욥13:27), ‘보존하다’(시 86:2), ‘주관하다’(왕하 22:14)등의 뜻으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하, 2011: 39-40; 서성열, 2017: 123).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구별된 구역으로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곳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는데, 그 돌봄은 힘써 일하고 보존하며 주관하고 다스림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로 부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배정훈, 2012).

‘다스림’과 관련하여 배정훈(2012)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다(배정훈, 2012: 29)고 하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창세기 1장 26-28절의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즉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에서, ‘다스림’은 권위의 분명한 위계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권위가 쓰이는 목적은 결국 그 다스리는 땅, 다스림의 대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스리다’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며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다스림의 권위는 약탈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의미가 있으며(배정훈, 2012: 31) 이는 권위를 부여받은 왕적인 책임, 목자의 책임을 동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배정훈, 2012: 31).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돌봄의 소명은, 권능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능을 자신의 소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인 수고를 하며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

름다운 통치가 임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하정원』에서 모스 아저씨가 자발적인 수고를 통해 죽어가는 작은 생명을 돌보고 더러워진 장소를 가꾸는 모습은 돌봄의 선한 동기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선한 수고가 결국 주변으로 퍼져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돌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돌봄은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인간에게 주신 땅과 그 안의 모든 생물에 대한 다스림과 돌봄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우리 서로에 대한 돌봄, 약자를 향한 돌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약자를 향한 돌봄은 구약에서 나그네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쓰심에서부터 신약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봄으로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교회는 목회적 돌봄, 돌봄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으며(정성하, 2005: 176)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꽃 하나도 없신여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정성하, 2005: 175). 돌봄의 수고는 이 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든 생명에게로 향하고 있다.

『지하정원』에서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지하철 환기구를 뚫고 자라난 나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금세 쏠려 유명해졌을 때에도, 그 관심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 때도 사람들의 찬사나 유명세에 상관없이 묵묵히 지하 정원을 가꾸는 모스 아저씨의 성실함이다.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정원 안에서 삶으로 키워내는 것의 행복에 헌신(Harrison, 조경진 외 역, 2012: 220)하는 그의 모습은 돌봄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새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리던 어느 봄, 누군가 나무 둘레 딱딱한  
바닥을 걷어 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꽃씨가 날아와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도, 그 이듬해 봄에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속속 저라,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이면 고운 빛으로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작은 유평터가 생겨난 것입니다.



Figure 3. 『The Underground Garden』 Scen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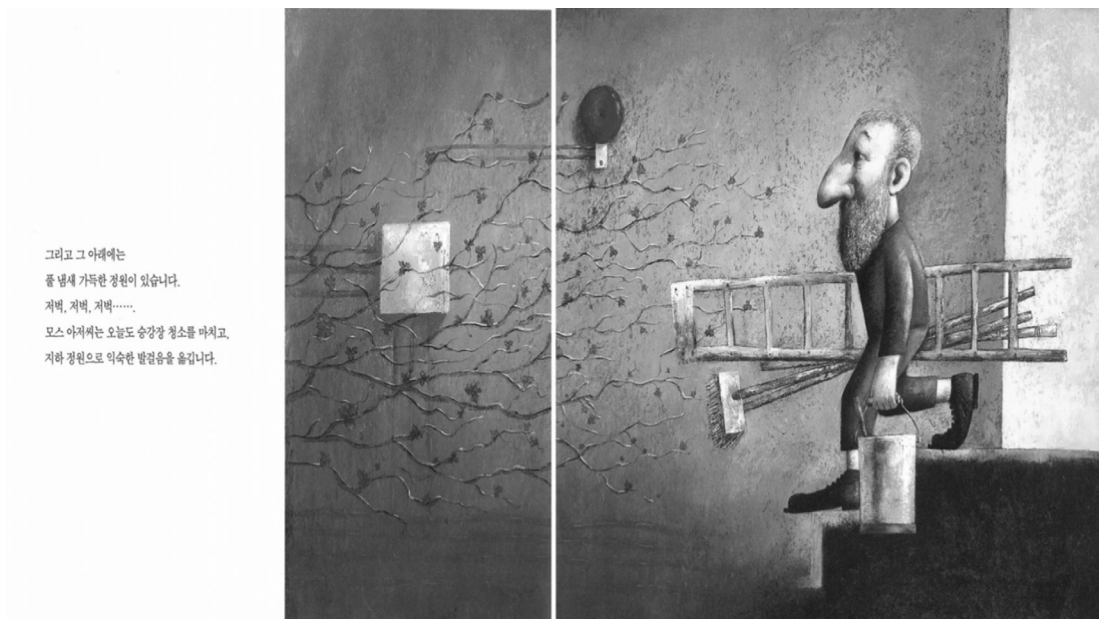


Figure 4. 『The Underground Garden』 Scene 16.

#### IV.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 삶 속에서 전수되는 가르침 -『리디아의 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리디아의 정원』은 사라 스튜어트가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렸으며, 유아와 교사에게 비교적 친근하게 잘 알려진 그림책 중 하나이다. 시골에서 할머니, 부모님과 농장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소녀 리디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시에 사는 외삼촌 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다. 리디아는 도시로 떠나는 짐가방 안에도 꽃씨들을 가지고 가고 외삼촌 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원을 가꿀 생각부터 하는 꼬마 정원사로, 호기심도 많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반면 빵집을 운영하는 외삼촌은 금전 문제로 늘 고민하며 늘 뿌루통한 채 사람들에게 웃는 일이 없다. 외삼촌 댁에서 근 1년 정도를 보내면서 리디아는 건물의 버려진 더러운 옥상을 청소하고 가꾸어 아름다운 옥상정원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그 옥상정원을 어느 날 외삼촌을 위해 깜짝 공개를 한다. 외삼촌은 리디아아 자신의 집에 온 뒤 처음으로 감정 표현을 하며 빵집을 하루 휴업하고 조카를 위해 손수 케이크를 구워준다. 리디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1년 전 처음 리디아를 마중나오던 무뚝뚝한 때와는 이번에 외삼촌은 리디아를 꼭 안아주며 진심 어린 작별인사를 한다.

『리디아의 정원』은 전체 글 텍스트가 리디아가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윤곽선이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색채 대조를 통해 장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리디아가 도시에 처음 도착한 장면에서는 리디아가 거대한 역사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 때 역사는 검은색과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역사를 올려다보는 리디아만이 색깔을 입고 있어 도시의 삭막함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역사가 책의 후반부 리디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색채가 입혀진 채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외삼촌과 눈물 흘리며 리디아를 떠나보내는 빵집의 종업원들과 함께 따뜻한 곳으로 바뀌어 있다. 또한 많은 장면들이 갈색 색조로 표현되어 있는데 작가는 갈색의 톤을 달리 하여 빵집 장면에서는 빵 색에 가까운 갈색을, 황량한 옥상을 표현할 때는 어두운 색조의 갈색을 사용하고 있다.

## 2) 성경적인 아동 돌봄

사라 스투르트와 데이비드 스폴은 부부 작가로 함께 여러 권의 그림책을 냈는데 이들의 작품에는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작품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관점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리디아의 정원』 역시 소녀가 주인공이며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어 에코페미니즘으로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신세나·조희숙, 2010; 우기연, 2018).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자연, 즉 환경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생태학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성과 땅의 관계를 하나로 보고, 땅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존재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신세나·조희숙, 2010: 74). 또한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고 규정함으로써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김옥동, 1997; 신세나·조희숙, 2010: 74에서 재인용). 실제로 『리디아의 정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인공 리디아와 리디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할머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앞 면지에서 리디아와 할머니는 함께 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돌보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리디아가 꼬마 정원사로서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할머니의 역할이 컸음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리디아가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갈 때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리디아가 미리 챙겨온 그녀의 짐가방 속 꽃씨 봉투들이 이리 저리 흩어지는 장면 역시 주인공 리디아가 자연의 힘을 주변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시사함과 동시에 여성과 자연이 결합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신세나·조희숙, 2010). 또한 리디아는 작품 속에서 계속 푸른색,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이 색조는 자연의 대표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도심의 삭막한 회색과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신세나·조희숙, 2010).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코페미니즘 외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한다. 리디아의 정원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아무래도 주인공 리디아로 인해 외삼촌의 삭막한 가게가 아



름다운 꽃들의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행복해지고, 가게 경영에만 매달려 잘 웃지도 않던 외삼촌이 리디아를 위해 하루 휴가를 내고 케이크를 구워주는 모습, 그리고 리디아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첫 만남 때와는 달리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모습, 즉 리디아로 인해 그녀가 머무는 장소와 그녀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점일 것이다. 당연히 리디아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리디아가 가진 이런 삶의 태도,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리디아의 정원』은 리디아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글 텍스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장면 13, 즉 리디아가 외삼촌을 위해 준비한 옥상 정원의 깜짝 공개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장면의 글 텍스트에서 리디아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림책의 플롯 전개상으로도, 리디아의 외삼촌 덕 살이에서도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을 앞두고 리디아가 가족에게 보내는 이 편지글에서 그녀가 꽤나 비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원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배운 아름다움이 모두 자신의 윗 세대인 부모와 할머니에게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배운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이 문장은, 그녀가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에서 직접 배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여전히 그녀 안에, 그녀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리디아의 가족 중 리디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할머니 역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리디아의 윗 세대를 대표하는 노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노인은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 주인공을 도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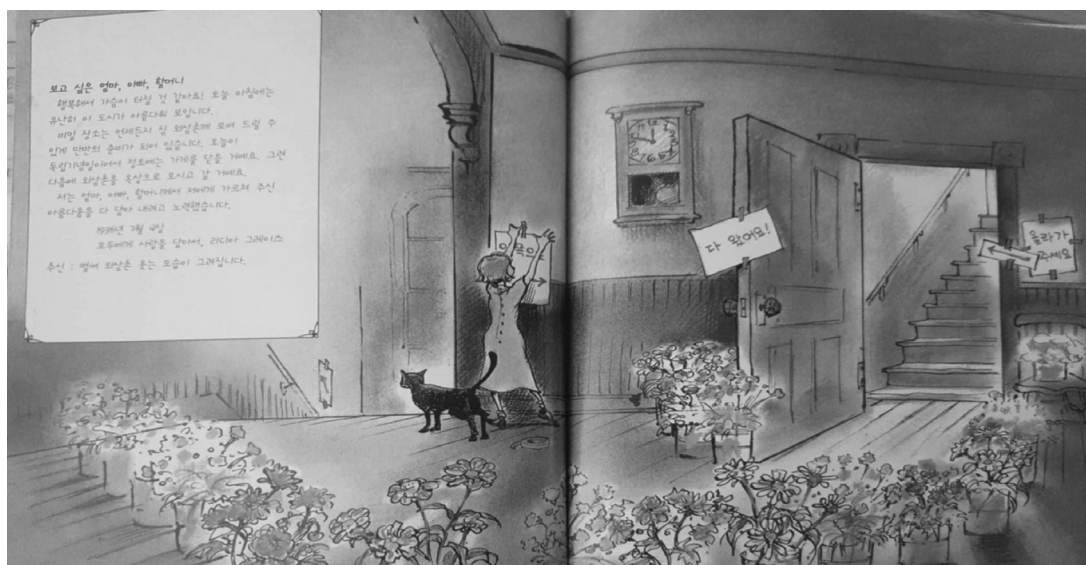


Figure 5. 『The Gardner』 Scene 13.

고 지지하는 역할로 작품들에서 종종 등장하곤 한다. 결국 리디아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윗 세대의 보호 속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았으며 그 가르침은 할머니,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삶 속으로 스며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디아가 삶 속에서 부모와 할머니와 상호작용하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어린이가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어린이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뿐 아니라 윗 세대들의 양육, 돌봄, 회심, 성화의 방법 등을 통해 부모 및 믿음의 선배가 가진 고백적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오연미, 2009: 39)이기 때문이다. 물론 회심과 성화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리디아의 정원』은 앞 뒤 면지의 그림을 통해서도 본문의 플롯 전개를 돕고 있는데 앞 뒤 면지의 비 교에서 재미있는 변화가 드러난다. 책의 앞 뒤 면지는 리디아가 밭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작물을 가꾸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각각 리디아가 고향을 떠나기 전,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의 변화를 미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 면지에서는 리디아가 자신이 거둔 농작물을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드리고 있는데 리디아와 할머니가 둘 다 같은 페이지 안에 그려져 있다. 뒤 면지에서는 이들의 구도가 변화하는데, 리디아와 할머니는 둘 다 앞을 향하며 각각 바구니에서 꽃씨를 뿌리며 앞을 향하여 가고 있고 페이지를 차지하는 양상도 변해 있다. 리디아는 왼쪽 페이지에, 할머니는 오른쪽 페이지에 양분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뒤 면지에서의 이러한 구도 변화와 리디아의 자세 변화, 즉 할머니와 대등한 자세로 버



Figure 6. 『The Gardner』 The inside of a bookcover

젖이 한 쪽 페이지를 혼자 차지하며 꽃씨를 뿌리고 있는 리디아의 모습은, 집을 떠나 외삼촌 댁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돌아온 리디아의 성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디아의 이런 성장은, 그녀가 그녀의 부모, 할머니에게서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장면 11을 함께 고려할 때, 바로 리디아 자체가 그녀의 윗 세대가 키워내고 피워낸 꽃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새싹에 비유한 것이나 자식농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이야말로 윗 세대가 키워내야 하는 가장 소중한 나무이고, 성인들은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IV. 나오며

인간은 그가 처한 사회의 반영(문선화, 2015: 19)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 주변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속에 자아를 형성하며(문선화, 2015) 이 시기의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주변 성인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오연미, 2009: 33). 서론에서 아동의 인권을 논했거니와 아동은 아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아동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의 행위 속에서 아동은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생생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러한 돌봄의 성격적 본질을 정원을 소재로 한 3권의 그림책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성격적 본질을 살핀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 정원-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정원은 하나님이 아담-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이자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명령하신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으로서 ‘돌봄’의 장소였던 정원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을 돌보고 생명을 돌본다는 것의 성격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먼저 『용서의 정원』에서는 다툼과 반목을 일삼던 두 마을 사이에 정원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곳에서부터 평화와 용서의 싹이 움트는 것을 살펴 보았다. 동·서양 모두 정원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는 울타리나 담을 쌓아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특히 서구권에서 정원의 시초로 여기지는 에덴 동산의 어원적 의미에는 ‘구별된 곳’과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들어 있다. 정원이라는 장소는 생명들과 그 생명을 돌보는 손길을 한데 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관조와 성찰을 통해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소이다. 그리고 일상 속 구별된 장소로서 그런 새로운 변화를 품



고 있는 장소이다. 그림책 『용서의 정원』은 그 구별된 곳에서 새로운 시선이 시작되어 두 마을 간 용서와 화해라는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며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가 가지는 힘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정원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가 정원 안에 머물지 않고 정원 밖 일상의 변화, 즉 반목 속에 있던 두 마을의 변화로 이어짐은 정원이라는 일상 속 구별된 장소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상 속에 있으되 구별되어 있어 그 안에서 변화를 꾀하고, 구별되어 있으되 그 힘이 다시 정원 밖 일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이러한 속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이 건설되는 여정과 묘하게 닮아 있다. 우리의 돌봄이 행해지는 영역은 혼탁한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와는 구별되어 있으며, 구별되어 있으나 결국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지하정원』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식물을 정성껏 가꾸는 지하철 청소부 모스 아저씨의 손길을 통해 그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날 뿐 아니라 그 생명력이 주변에 퍼져 도심이 푸른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스 아저씨의 돌봄은 자신의 소욕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림책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돌봄의 이러한 성격, 즉 누군가를 걱정하고 관심을 쏟는 것은 인간 삶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왕같은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되 돌봄의 대상을 향해 선한 사랑의 수고를 베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돌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고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돌봄의 대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리디아의 정원』에서는 주인공 리디아가 경제 불황으로 고향 집을 떠나 도시의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고향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꽃씨를 심고 화분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면서 삭막했던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리디아가 꽃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면서 장소의 외관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생업에만 매달리느라 한번도 쉬지 않고 한번도 제대로 웃지 않았던 외삼촌이 리디아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쉬는 모습으로, 그리고 리디아가 다시 고향 집에 돌아갈 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모습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처럼 정원으로 인한 변화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용서의 정원』에서 정원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소녀 리디아가 가진 이런 힘은 그녀 혼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 그녀의 윗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것임을 그림책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리디아의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꽃씨는 바로 리디아임을, 가장 중요한 정원은 아동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녀의 가정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아동이야말로 우리가 잘 키워내

야 하는 가장 소중한 꽃씨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아기는 동물의 아기와는 달리 연약한 채로 태어나며 일정 기간 동안 성인의 지지와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성인의 책무이다. 『리디아의 정원』에서는 아동 돌봄의 이러한 면과 함께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아동을 돌보고 키워내는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리디아가 그렇게 자라난 모습은 신앙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신앙의 성장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하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3권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살펴본 결과, 돌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고,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돌봄의 대상을 향해 자발적으로 애쓰는 것이며 선한 왕 같은 다스림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이 지향하는 바는 돌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돌봄이 행해지는 그 영역은 혼탁한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와는 구별되어 있으며, 구별되어 있으나 결국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의 돌봄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리디아의 정원』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상 돌봄에 대한 기독교적 본질, 우리의 돌봄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그림책을 통해 확인했거니와 이를 서론에서 제기했던 현 시대의 교육 사조와 맞물린 문제, 즉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의 개입 간 개념적, 실천적 갈등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나 갈등 등을 실제로 들으며 아동 돌봄의 책무를 맡은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의 아동 인권의 밑바탕에 깔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아동관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아동관에 따라 아동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림책을 통해 본 돌봄의 성경적 본질, 성인의 아동에 대한 돌봄의 원리를 이같은 현 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 중 하나는 아동은 성장 중인 존재라는 것이다.

아동의 이런 특성에 대한 고민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호현(2019) 같은 경우는 강행 규범, 불가침의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의 3 기준으로 권리의 위계를 살펴보고 이를 아동인권에 적용하여 생존권과 보호권을 발달권과 참여권보다 더 상위의 위계로 설정하였다. 권리의 위계 설정을 고민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이 모두 동등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가정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충돌은 결국 아동이 아직 성장 중인 존재라는 특성 때

문에 기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아동은 성장 중이므로 자신의 복지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동 자신의 의견을 늘 100%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동의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고 아동의 참여권이 구현되지 않게 되더라도, 아동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보호권과 생존권이 참여권보다 더 상위의 위계를 점하므로 원칙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온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인권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아동의 이런 특성을 이기범(2018)은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로, 배운주(2013)은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인격성장기본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나 이 논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인간존엄은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인격성장기본권)라는 특수성을 갖는데(배운주, 2013: 23), 이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독립되고 책임 있는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격의 형성, 성장, 발전 및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배운주, 2013: 23)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기범(2018)은,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인 아동만이 갖는 이러한 권리를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라고 부르며, 미래에 아동이 어떤 삶을 사는가는 현재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이기범, 2018: 32). 그리고 Feinberg(1988: 264)를 들어 아동의 자율적 선택(자기결정)과 ‘잘 삶’을 위한 이익(자기실현)이라는 두 이상이 함께, 열린 미래에 근거하여 아동권을 성립시키는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며(이기범, 2018: 32), 이 두 가지, 즉 아동의 의견 존중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연계하는 열쇠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이익이라는 발상이라고 논하고 있다(Brighouse, 2011; 이기범, 2018: 33에서 재인용).

아동의 자율성 구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연계하는 열쇠가,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논의는, 아동의 당장의 현실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성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기범(2018)은 아동의 열린 미래를 위해 합당한 지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권리 ‘침해’도 허용될 수 있으며 아동에 관한 원리 혹은 의견이 충돌할 경우 균형을 맞추는 상위 기준을 아동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기범, 2018: 33). 물론 성인의 지지와 관심이 권위적 간섭이나 과보호로 흐를 염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해, 아동 의견 경청, 아동 주변 성인들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아동 의사 수용 및 아동의 자기 결정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 등 오히려 성인의 민감성과 효과적인 지도가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아동이 이처럼 성장 중인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중인 존재로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란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두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인으로서 우리는 아동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대한 1차적 책임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아동 돌봄에 임해야 한다. 아동이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을 지니고 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지대하다(문선화, 2015: 34)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을 돌보는 성인의 역할은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돌보는 성인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생각할 때 정원 소재 그림책들이 보여준 돌봄의 본질, 돌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성장 중인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용서의 정원』에서 정원이라는 구별된 구역을 만들어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며 변화를 꾀하고, 『지하정원』에서 보잘것없는 생명을 돌봐 주변을 그 회복된 생명력으로 물들였던 모습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의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돌보는 대상들에게 자발적인 선한 수고를 해야 함이 여전히 유효하고 옳은 원리임을 말해준다. 또한 『리디아의 정원』에서 소녀 리디아가 정원을 만들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리디아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내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가치를 전수받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삶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꽃씨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동들임을, 그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삶으로 함께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전수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게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아동의 내일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 창조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들은 혼탁해진 이 시대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정희 (2011). **신의 정원, 나의 천국**. 고양 나무도시
- [Ko, J. H. (2011). *God's garden, my heaven*. Koyang: namudosi]
- 권의섭 (2015).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실천. **새한철학회 발표논문집**, 2015(11), 13-37.
- [Kwon, E. S. (2015). *The Direction and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in a Postmodern Age*.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015(11), 13-37]
- 김경이·임숙희·김울옥 (2019).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가톨릭종교교육의 맥락에서. **종교교육학연구**, 60, 75-98
- [Kim, K. E., Lim, S. H. & Kim, Y. O. (2019). A Study on Self-Discovery and Care in Context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75-98]
- 김호현 (2017).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진화하는 능력 개념의 발달심리학적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21(3), 269-287.
- [Kim, H. H. (2017). Developmental Understanding of Evolving Capacities in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Pap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1(3), 269-287]
- 김호현 (2019). 권리의 위계: 영유아 교실 내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의 구분 가능성 탐색. **아동과 권리**, 23(2), 215-233.
- [Kim, H. H. (2019). Hierarchy of rights: Exploring possibility of ordering young children's rights in importa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3(2), 215-233]
- 문선화 (2015).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발달권. **동광**, 110, 3-36.
- [Moon, S. H. (2015). Children's right to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DongKwang*, 110, 3-36]
- 배윤주 (201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e, Y. J. (2013). *A study on the legal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배정훈 (2012).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본 생태 신학. **Canon&Culture**, 6(2), 21-50.
- [Bae, J. H. (2012). The Ecological Theology in Genesis 1-9. *Canon&Culture*, 6(2), 21-50.]
- 서성열(2017). 흙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을 치유하다.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1(1), 119-137
- [Seo, S. Y. (2017). A Man of the Soil, Healing God's Creation. *Journal of Korean Naturopathy Education*, 1(1), 119-137]
- 신세니·조희숙(2010).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리디아의 정원'의 인물 연구. **유아교육연구**, 30(3), 71-91.

- [Sin, S. N., Jo, H. S. (2010). Reading 'Lydia' of 『The Gardener』: An ecofeminism perspec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0(3), 71-91.]
- 오연미 (2010).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아동교육 -신앙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 E. M. (2010). Christian Child Education in the Postmodern Era -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mmunity of Faith*.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우기연 (2018) **사라 스튜어트의 그림책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oo, K. E. (2018). *Examine The Aspects of Ecofeminism Found in Sarah Stewart's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Busna University]
- 이기범 (2018).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아동과 권리**, 22(1), 23-43.
- [Lee, K. B. (2018). Convergence of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ward the Child's 'Right to an Open Futur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2(1), 23-43]
- 이상하(2011). '땅'의 회복을 위한 우주적 그리스도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2011). Cosmic Christology for the Restoration of the 'Earth'.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임세와·양옥경·배은경 (2020). 아동·보호자·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수준 비교 연구: '아동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4(4), 641-664.
- [Im, S. W., Yang, O. K. & Bae, E. K.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on children's rights among children, guardians and teacher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4(4), 641-664]
- 정성하(2005). 기독교적 교양과목과 모성적 돌봄. **대학과 복음 제 11집**. 167-187.
- [Jung, S. H. (2005). Christian Liberal Arts and Mothering-Caring. *Universities and the Gospel*, 11, 167-187]
- 최성희 (2020). '아방 가드닝': 영미문학으로 살펴보는 정원의 생태정치학. **영미문학교육**, 24(2), 79-104
- [Choi, S. H. (2020). 'Avant Gardening': Ecopolitics of Garden in English Literature.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education*, 24(2), 79-104]
- 최지연 (2018). 교육공간으로서 정원의 의미 탐색: 정원교육 강좌 '비밀의 정원' 운영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823-844.



- [Choi, J. Y. (2018). A Study on the Meaning of Gardens as Educational Spaces: Case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arden education course called 'Secret Gard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3), 823-844]
- 하여진 (2020).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분석: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2), 33-64.
- [Ha, Y. J. (2020).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influential factors in the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With a special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Youth Research*, 31(2), 33-64]
- 현은자 (2017). 어린이 그림책 서평에 내포된 윤리적 속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207-226.
- [Hyun, E. J. (2017). Ethical Attributes Implicit in Children's Picture Book Reviews.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18(2), 207-226.
- 현은자·김정준·연혜민·김민정·김현경·장시경 (2019). **어린이교육 전문가가 엄선했던 100권의 그림책**. 서울: CUP
- [Hyun, E. J., Kim, J. J., Yeon, H. M., Kim, M. J., Kim, H. K. & Jang, S. K. (2019). *100 picture books carefully selected by children's education experts*. Seoul: CUP]
- 이태호 역. (2015). **미술비평(그림 읽는 즐거움)**, Barrett, T. (2000).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파주: 아트북스.
- [Lee, T. H. (2015). *Art Criticizing(The Joy of Reading Pictures)*. Paju: Artbooks. Trans. Barrett, T. (2000).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조경진·황주영·김정은 역. (2012). **정원을 말하다**, Harrison, R. P.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고양: 나무도시.
- [Jo, K. J., Hwang, J. Y. & Kim, J. E.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Koyang: namudosi. Trans. Harrison, R. P.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성경적 돌봄의 의미

## The Meaning of Biblical Care in Picture Books About Garden

국경아 (성균관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 논문초록

아동의 자율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특히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 교사의 보호 및 개입 간 갈등은 실질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교육-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림책은 유아동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소명은 에덴 동산-정원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것이었다. 정원 소재의 그림책들을 살펴본 결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향해 헌신하는 돌봄, '구별된 구역'으로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윗 세대의 가르침과 돌봄이 어떻게 대를 이어 아동에게 전수되고 열매가 열리는지를 볼 수 있었다.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잘 드러낸 그림책들을 통해 우리는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돌봄의 기독교적 본질, 아동교육, 그림책, 정원.

##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이수형 (Soo Hyoung Lee)\*\*

현은자 (Eun Ja Hyun)\*\*\*

#### ABSTRACT

As a crossover phenomenon in picturebooks, Gnosticism, which is horror literature for adults, began to emerge.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worldview by applying Vanhoozer's (2009)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to Hui-na Baek's picturebook "Strange Mom," and illuminated it as a Christian worldview.

First, the world of the text itsel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mily issues continued through book cover. The main character was an antagonist that subverted the protagonist, and manifested the notion of nihilism highlighting social problems by demonstrating that the wicked help the righteous. Second, the world behind the text, Hui-na Baek lost the copyright lawsuit, and pessimism was reflected in her work. She studied at CalArts, which followed a postmodernist trend, and she has created several Gnostic picture books. Third, the world ahead of the text, adults were comforted and children found the book either fun or terrifying, which shows that the readers of each group expressed opposite reactions. Hui-na Baek won the ALMA and, raised her profile, while ALMA's award-winning writers reflected the postmodern paradigm.

Finally, this literature contains a new-age worldview that advocates Gnosticism to replace the nihilistic world. It emphasizes the absolute necessity of analyzing the worldview of picture books as a means to recover Christianity.

It also demonstrates that children's literature can contain the Christian worldview, such

\* 2022년 5월 12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8일 게재확정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elodyofsea@naver.com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yunej6029@gmail.com

as in Tolkien's fantasy theory. A good picturebook cultivates one's mind to find grace, the gift of God. Although we are currently in the era of postmodernism to which culture the picturebook adheres, one should examine it through a worldview analysis, and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individuals to be a critic, a man of letters, and a believer that repents and recovers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depravity, and redemp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New Age picturebook, cultural hermeneutics.

## I. 서론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이야기를 엮어가는 형태로 어린이 문학에 해당한다. 어린이에게 적합한 이유는 그림책의 그림이 이해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글만 있는 책을 읽기 이전의 연령인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물을 이해하고 글을 깨우쳐가며 사회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어린이 문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성인과 어린이의 구별이 없다. 비평가들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크로스오버(crossover) 경향은 어린이만의 고유한 문학성을 깨고, 순수함을 보전하기 어렵게 한다. 판타지 그림책에도 이러한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타나며, 그림책의 독자 차원에서 성인과 아동의 경계가 분명했던 과거와 달리 독자 연령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다(Beckett, 2012; Judith, 1997; Meibauer, 2017). 크로스오버 현상으로 그림책은 여러 가지 금기를 깨고 있다. 한 예로 성인만의 영역으로 취급된 ‘공포 문학(Horror Fiction)’이 그림책에 등장하며 크로스오버 현상을 보인 것이다.

『A Children’s Book of Demons』(Aaron Leighton, 2019)는 아이들이 악마를 부르는 주술을 소개하는 그림책으로 Amazon에서 팔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술을 하는 무당의 자문을 얻어 만든 그림책『부적』과 부적에서 튀어나온 할머니를 소재로 한 같은 작가의 그림책『깊은 산골 작은 집』(2011)이 출판되었다. 출판사는 이 책을 우리나라 전통문화라고 소개한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재미로 취급되고, 미화되어 전달된다. 이것은 영지주의 세계관이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평이나 관심은 매우 적은 반면, 비슷한 부류의 그림책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ی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현실에 대하여 신학적 비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우상은 여러 형태로 삶에 스며들어 나타나기 때문이다(Wilkens & Sanford, 안종희 역, 2014).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스(Gnosis)이며, ‘인식’, ‘지식’이라고 해석된다. 정일권(2020)은 그노시스의 근원을 그리스어 피시스(Physis, 자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자연의 선함을 부정하고 그 악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지주의 권위자인 Jonas는 영지주의가 본질적으로 신화적이며, 이후 신비철학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반유대교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Jonas는 영지주의는 창조세계의 선함을 말하는 유대교의 유일신론적 입장에 대한 반향이며 복수라고 설명을 덧붙인다(Jonas, 1993; 정일권, 2020에서 재인용).

그림책, 문학과 미디어는 문화로서 인간의 정신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Vanhoozer(2009)도 인간이 문화 텍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다양한 유형의 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크로스오버 현상에 대해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보는 그림책으로 여기는 단편적인 시선보다는 다층

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현실에서 분별해야 할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 Vanhoozer(2009)는 특히 기독교인은 문화를 배척하거나 포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문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지만, 내면에 담겨진 통합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에는 소홀하다. 예술 비평가 Brand & Chaplin(2004)은 올바르게 통합된 가치 평가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예술의 형식, 내용, 세계관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Wolterstorff(2016)도 예술을, 예술가가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세계에 대한 가설이 드러나는 세계 투영(world-projection)행위로 보았기에 세계관이 담겼다고 했다.

예술을 포함한 광고, 영화, 문학 등의 문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 Vanhoozer(2009)는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술과 문학으로 특징되는 그림책도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Vanhoozer(2009)가 『문화신학』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 문화 텍스트의 뒤의 세계, 자체의 세계, 앞의 세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에 비추어 그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이 생성된 배경으로, 저자와 저자에게 영향을 미친 교육 및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는 그림책의 문학 요소 및 표지 등을 분석하는 텍스트 내부를 말한다. ‘텍스트 앞의 세계’는 그림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독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세 가지 층위를 총합하여 그림책의 세계관을 도출한 이후 세계관을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신학적 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Vanhoozer(2009)는 문화 텍스트가 주는 은유와 가설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anhoozer는 세계 가설로 이루어진 문학은 사회의 은유로 세계 전체를 이해하도록 권장함에 주의를 요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견해와 습관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텍스트의 상상력이 실제로 독자의 신념이 되고, 텍스트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이념, 즉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것이 우상이 되고 있음을 Vanhoozer는 경고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신학적 비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그림책 비평에서 세계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 현은자와 김주아(2019)의 <빛나는 아이> 해석이 있다. 그림책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 뉴욕에서 활동하던 그래피티 예술가인 Jean Michel Basquiat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림책이 반영하는 세계관은 표현적 개인주의로서 예술가에 대한 단편적 시선으로 전기문을 만들어 우상화함을 기독교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현은자 외(2018)는 Jon Klassen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형이상학, 인식론과 윤리학 측면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림책에 나타난 허무주의 세계관을 논증하기 위함이었다. 현은자와 이지운(2022)은 『고민 해결사 펭귄 선생님』의 주

제인 ‘상당’에 관한 세계관을 깊이 있게 평론하였다. 그의 평론은 크로스오버 현상을 지적하며 그림책이 지닌 허무주의 세계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인이 성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화두로 삼았고, 어린이는 사라지지 않는 공동독자임을 상기시켰다. 김현경(2021)은 『돼지책』에 나타난 세계관에는 소비주의와 포스트모던 부족주의<sup>1)</sup>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 생겨나게 한다.

그림책 세계관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허무주의는 라틴어 ‘무(無)’를 의미하는 니힐(nihil)에서 왔기에 니힐니즘(nihilism)이라고도 한다. 이는 절대적 진리나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보는 입장으로 그러한 생활태도를 총칭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Nietzsche는 ‘신은 죽었다’라는 현대의 정신 상황을 허무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학사유로 규명하였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실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교회용어사전, 2022). 허무주의를 충족하기 위해 문학은 하나님의 실재를 대신할 이방신을 가져와 영지주의를 보인다(정일권, 2020). 영지주의는 뉴에이지(New age)의 특성 중 하나이다.

뉴에이지(New age)란, 새로운 세대라는 개념으로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20세기 말에,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신문화 운동이다(두산백과, 2022). 두산백과 설명에 따르면, 뉴에이지 사상은 첫째, 점성학으로는 별자리를 믿으며, 동양의 사상인 도교,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과 심리학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환생과 카르마를 믿으며 명상에 심취한다. 둘째, 기독교 신앙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지주의(gnosis)로, 강신술, 영매 사상 및 이교적 종교 예식(음식, 제사)도 포함한다. 셋째,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치유하고 해방되는 우주적 인본주의를 믿는다. 뉴에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 문학, 영화, 심리치료, 스트레스 치료, 명상 등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문화로서 넓게 확산되는 측면에 있다. 종합한다면, 그림책이 동양 신앙의 영적 존재를 반영하고, 종교적 성향의 무속인 또는 이교적 종교 예식인 음식과 관련되거나, 심리나 스트레스 치료와 관련된다면 뉴에이지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하지만, Tolkien과 같은 문학가는 자신의 작품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판타지 문학 속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찾았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자신의 문학에 담았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선한 결말로 기쁨을 주는 이야기’로 악한 가운데 선함으로 승리하는 문학적 전개를 강조했다. 이는 판타지 문학으로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할

1)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란 마치 부족사회의 구조처럼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속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나 의미, 경험, 사상을 가진 작은 집단 내에서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경, 2021).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 해석을 영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은혜의 사전적, 신학적 개념을 통해 세계관 비평을 하고 은혜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그림책은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역할을 돕고, 신념을 형성하게 하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평론 대상은 크로스오버 특징을 지닌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이다. 이 그림책은 백희나의 이상한 시리즈의 첫 번째로, 매우 독특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선녀를 현대의 신화로 재해석하였으나, 그 공포스러운 외모에 대해 대체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문화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백희나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백희나는 북라이브 잡지(2020)에서 어린이만이 아닌 어른도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내 학술 연구자들은 그림책 작가들 중에 백희나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문화 연구로 임정진(2019)의 『장수탕 선녀님』그림책 속 공중목욕탕 표현방식의 문화연구가 있다. 미디어 매체의 확장으로 최혜립(2012)의 『구름빵』 2차 콘텐츠 연구가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새봄(2012)의 미술교육, 김희주(2014)의 음악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양새롬(2021)의 이야기 구성 능력의 신장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작가가 강조했던 크로스 오버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백희나 그림책의 가족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영경·김은주, 2019)와 백희나 판타지 그림책의 환상성 연구(남지현, 2016)는 판타지 속 인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뒤로하고, 조부모라는 명명으로 영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백희나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영지주의 성격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백희나 작품의 세계관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문화적 방식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학적 문화 해석학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선행 연구에서 환상에 관한 담론은 성인문학의 정의들을 가져왔기에 어린이 문학으로의 담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백희나 그림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총체적 시각의 세계관 분석을 통해 어린이 문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하는 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백희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 대하여 Vanhoozer(2009)의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으로 그림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이상한 엄마』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1-1. 텍스트 자체 세계는 어떠한가?
- 1-2. 텍스트 뒤의 세계는 어떠한가?
- 1-3. 텍스트 앞의 세계는 어떠한가?
- 1-4.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II. 텍스트 자체의 세계

### 1. 표지와 면지 (Paratext)

그림책은 표지와 면지를 가리켜 파라텍스트(Paratext)라 불린다. 표지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림책에서 중요하다는 이론(Serafini, 2012; 한아름, 2016)에 따라 파라텍스트만 연구되기도 한다. 백희나의 그림책 앞표지는 주로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특히,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이상한 손님』의 표지는 유사한 형식이다. 그림책의 내용을 참고하면, 각각의 표지인물 전부가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린이에게만 보이는 가상의 인물로서 허구 세계인 하늘나라에 사는 인물이다. 표지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사는 모호한 존재가 중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상한 엄마』 앞표지에는 어두운 배경과 대조적으로 하얀 구름으로 얼굴을 가린 인물이 있다. 한복과 유사한 옷에 옛날 머리장식, 목걸이를 한 인물은 집 안에서 나갈 때 보이는 현관문 앞에 서 있다. 두 손을 마주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앞치마를 한 모습이 일하는 중인 듯하다. 머리에는 옛날 사람들이 할 법한 장신구를 하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정체를 알기 어렵다. 『장수탕 선녀님』은 표지인물이 선녀임을 제목으로 알 수 있으나, 『이상한 엄마』의 인물은 엄마로 보기엔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장수탕 선녀님』의 선녀와 같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엄마』의 인물도 선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표지에는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있고, 작가의 이름만 작게 있을 뿐이다. 집안에 낮게 깔린 구름들이 몽환적인 인상을 풍긴다. 배경은 현실의 우리 집 현관인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뒤표지에는 작은 프레임 안에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의 베란다가 내려다보인다. 빨래들이 널려있

는 배란다는 내리는 비에 젖을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어 엄마의 부재를 표현했다. 이야기가 끝나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면지는 앞과 뒤가 다르다. 작가는 면지를 통해 그림책 제작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한아름(2016), 김정준과 신원애(2016)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앞, 뒤 면지가 다른 이유는 내부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나 장소를 보여주어 플롯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요색을 사용함으로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를 색채대비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상한 엄마』의 앞 면지에는 달같이 쌓여있다. 달같 뒤로 구름이 지나고 있어 호기심이 증폭된다. 뒤 면지에는 어두운 하늘, 구름 속으로 선녀의 뒷모습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야기의 끝을 알리듯 그림책 안에서 나가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앞과 뒤 면지에서 하나의 문제 해결 서사가 끝났음을 보여주지만, 앞과 뒤표지에는 가정의 문제가 지속됨을 시사하고 있다.

## 2. 문학구조

문학구조는 플롯, 등장인물, 배경, 주제를 말한다. 이는 Frye(2000)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플롯(plot)은 Mythos로 구성 원리를 말하며, 등장인물과 그 배경은 Ethos로 이 둘의 작용을 말하고, 주제는 Dianoia로 관념 또는 시적 사상을 말한다.

『이상한 엄마』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다. 작가는 아픈 아이 호호와 직장을 다니는 엄마, 하늘에서 온 이상한 엄마인 선녀로 인물을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은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와 안타고니스트(antagonist)로 나눈다. 중심인물인 프로타고니스트의 어원은 첫 번째(proto)와 갈등(agon)에 인칭 어미(ist)로 이루어졌다(엄다혜, 2021). 즉, 갈등을 주도하는 주요인물로서 강력한 의지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주인공이다. 어린이 문학에서는 주로 어린이가 사회를 배우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극복하는 선한 인물들을 프로타고니스트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악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띠는 안타고니스트의 어원을 보면 반대(anti)와 투쟁(agon)에 인칭 어미(ist)로 구성되어 있다(엄다혜, 2021).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를 위협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나, 프로타고니스트의 정체성 확립과 플롯의 전개에 서스펜스(suspense)를 증가하는 인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어린이 문학에서 주인공에게 역경을 안겨주는 초현실적 존재로 두려운 외모와 마법을 사용한다. 『이상한 엄마』의 선녀와 같은 인물이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

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던의 해체이론으로 인물의 선악은 혼용되었고, 영화에서는 이미 사회적 배경에 탓을 돌리는 안타고니스트의 주인공 점령은 활발히 제작되었다(임대희, 2020; 류훈, 2019). 영화 속 조커와 한니발의 악한 인물이 프로타고니스트 자리로 올라선 것은 전복(subversion)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전복이 가능한 것은 어두운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 선녀는 영화 속 조커와 같이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그리고 있다. 복장과 장신구는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이 떠오른다. 선녀의 근원을 찾아보면 무당과 분장의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녀는 도교사상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월간문화재사랑』(2008)에서, “도교는 인간이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도를 터득해 하늘에 오르는 신선이 되며, 관련한 설화에는 선녀, 옥황상제, 신령 등이 존재한다”라고 소개한다. 시간이 지나 도교는 불교와 결합되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간신앙과 섞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김한중 외, 2015). 특히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6)을 보면 도교의 옥황상제는 “우리나라 무당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신격이다. 전통적으로 하늘에서는 하늘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인식하여 하느님과 동일시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상한 선녀의 화장법은 8세기를 전후하여 중국 당대의 불교문화와 외래 종교 유입으로 시작된 문화이다. 중국의 화장문화를 연구한 임재영(1994: 467-469)은 “당시의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의 개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관점으로, 귀신의 통로인 입에 적색 칠로 잡귀의 근점을 막았다”라고 보았다. 독특한 화장법은 선녀가 무속신앙 속 인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왜곡된 선녀이다.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서 이례적인 인물로서 안타고니스트의 전형이다.

안타고니스트의 전복은 지면 분할에서도 나타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펼침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끌여가는 여느 그림책 주인공 소년들과 다르게, 호호는 총 15 화면에서 7 화면만 등장하며 대체로 작고 무기력하다. 대사도 거의 없다. 호호의 엄마는 시작과 말미에 나오며 6 화면만 등장한다. 또 다른 주인공으로 표지에 나타나는 선녀가 있다. 총 10 화면에 등장하여 이례적으로 이상한 엄마에 해당하는 선녀가 이야기를 끌여가는 중심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녀는 주인공인 프로타고니스트가 되었다.

주제는 Frye(임철규 역, 2000: 132)가 언급하듯 “소설이나 극과 같은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작품 내부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독자가 작가로부터 얻게 되는 Dianioia는 관념 또는 시적 상상이다. 번역어로 가장 적합한 말은 ‘주제’라는 말일 것”으로 중요한 무게를 가지게 된다. 백희나 작

가의 그림책은 어린이가 외롭고, 두려울 때에 영적 존재가 나타나 해소함을 표현한다. 인물 해석에서 보듯 사회문제가 가장 큰 주제이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이 주는 행운일 뿐이다.

플롯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에서 아이가 혼자 아픔, 무서움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호호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호호가 아파서 조퇴를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 엄마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답변을 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호호를 부탁한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리는 하늘과 어두운 아파트 배경을 향해 밝은 분홍빛의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구름을 타고 가는 뒷모습의 그림 텍스트가 있다. 글 텍스트는 “나더러 엄마라니..., 잘못 걸려온 전화 같은데, 아이가 아프다니 하는 수 없지. 좀 이상하지만 엄마가 되어 주는 수밖에,”라는 혼잣말과 ‘이상한 엄마는 호호네 집을 찾아 내려왔습니다.’라고 설명이 있다. 선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얼굴을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뒷모습이거나, 어둠에 감추어져 실루엣만 보인다. 호호가 선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는 겁이 났다. 온통 하얀 얼굴 화장에 빨간 입술연지와 볼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픈 호호를 위해 노란 연기를 피워내는 달걀국을 만들어주고, 하얀 구름 연기를 피워 침대를 만들어 주기도 했기에 호호는 점점 마음을 놓는다. 마법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의지할 곳 없던 아픈 호호는 위안을 얻고 잠이 든다. 엄마가 퇴근하여 돌아온 늦은 밤, 선녀가 만든 구름 침대에서 잠든 호호를 보고 안심하며 옆에서 잠이 든다. 엄마와 호호가 깨어난 후, 주방에는 커다란 달걀부침을 올린 볶음밥이 가득히 있었다. 엄마 또한 식사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상한 엄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호호의 진짜 엄마는 집안에 걸려 있는 선녀의 날개옷을 바라보며 서 있다. 아주 작은 프레임 안에 있는 엄마의 표정은 놀람, 희한함, 의문 등을 보여준다.

하나의 서사 속에서 선녀는 선행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녀는 현실에 없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족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부모 가족일 경우, 엄마나 아버지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고, 자녀는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작품에서 보여주는 분위기는 일종의 허무주의를 전달한다. Sire(김현수 역, 2017: 123)는 “관계의 절망, 걱정, 권태 등의 감정을 느껴보는 자만이 진지한 세계관을 이루는 허무주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20세기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허무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술과 문화에 깃든 허무주의 세계관은 삶의 무(無) 가치를 암시한다(현은자 외, 2018).

문학 구조의 마지막인 ‘배경(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환상의 구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린이 문학이 가진 환상의 정의와 다른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tott(1977)는 현대 어린이 문학의 환상에 대한 깊은 구조에 관하여 첫째, 환상은 현실인 1차 세계에서 시작하여, 둘째, 잠재적이고 물리적으로 위협적인 세계에서의 어린이들의 모험, 소원의 성취, 창조적인 부분으로서의 성인 생활에 취약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된 상황을 겪는 ‘상상의 2차 세계’를 경험하며, 셋째, 마침내 어린이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안전한 집(1차 세계)으로 돌아온다. 환상의 필수 요건은, 환상이 아동에게 안정된 정서를 주어야 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백희나 그림책의 환상 구조는 이러한 안정감을 벗어난다. 환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동네, 자주 가는 목욕탕, 나의 집 안으로 내가 일상을 보내는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어린이 문학의 구조와는 달리, 성인들의 공포 문학(Horror Fiction)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공포 문학의 오컬티즘(occultism)<sup>2)</sup>은 옛이야기 속 마녀, 귀신, 선녀나 도깨비가 현실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결론적으로, 『이상한 엄마』의 인물은 프로타гон리스트에 대한 안타고니스트의 전복으로, 공포 문학의 오컬티즘 속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인 선녀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는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손길, 기관 등 아무도 없는 사회문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플롯은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배경은 어린이 문학의 전형인 현실의 1차 세계와 환상의 2차 세계의 구분이 없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성인문학 형태로 크로스오버 현상이 그림책에 나타난 결과이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징이다.

### III. 텍스트 뒤의 세계

#### 1. 포스트모던 패러다임과 작가의 사회적, 교육적 배경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 작가의 가치관 및 사고와 행동 방식으로 작가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세계를 말하며, 작품 및 작가의 시대적 배경 등 텍스트에 영향을 끼친 세계를 말한다.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팽배한 시대에 교육을 받았으며, 창작에 대한 소신을 가지게 된다. 백희나 작가의 초기 연구에는 『구름빵』의 연이은 성공에 따라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백희나는 “『구름빵』에서 회사에 가는 아빠와 빵 굽는 엄마, 남매라는 딱 떨어지는 가족공동체가 마음에 걸렸고, 이후 작품에서 가족 형태의 범위를 다양하게 넓혔다

2) 오컬티즘(occultism)은 ‘감추어진 것’, ‘비밀’ 등을 뜻하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보통 경험이나 사고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고 한다. 한때 ‘결손’이라고 불렸던 형태의 가정, 일상이 험난한 워킹 맘 가정, 혈연이 확실치 않은 가정, 인간과 동물이 결합한 가정에 천적 관계인 두 종의 동물이 이루는 가정까지 담아낸다.”(시사 IN, 2020: 657호)라고 한다. 백희나는 대학내일 인터넷 잡지(2016)에 스스로 염세주의자라고 소개하며, ‘세상의 선은 상대적인 것이라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도덕적 상대주의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도덕의 절대 진리는 없으며, 누구도 옳다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해당한다. 작가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사고하고 있다.

백희나는 신인 작가 시절에 출판사에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고서 『구름빵』 그림책을 출판했다. 이 그림책은 하나의 콘텐츠 역할을 하며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2014년 알려진 수익은 대략 4천억이며, 2차 콘텐츠 생산의 모든 수익금도 출판사에게 귀속되었다(NEWS1. 2014).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이 논란은 출판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020년 6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였다(한겨레. 2020). 백희나 작가는 이러한 오랜 과정을 거치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런 경험이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되었다’(한겨레. 2020)고 토로했다. 작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절망감은 작가에게 도덕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는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백희나 작가는 입체적인 화면 처리를 하는 작가이다.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애니메이션 교육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받았다. 대학의 홈페이지(2021)에 따르면, CalArts는 1961년 Walt Disney와 Roy O. Disney, Nelbert Chouinard에 의해 설립되었다. 교육은 시각, 공연, 미디어 및 문학 분야에서 70개 이상의 종합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음을 자랑한다. CalArts 대학은 홈페이지(2021)에 “역사적으로 Disney의 유토피아적 개념을 가진 열렬한 반문화적(counter-cultural) 버전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CalArts 연구소는 예술의 독창성을 갖춘 온상지가 되었다”라고 홍보한다. CalArts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연구는 그 수가 상당히 많다. 김지홍(2004)은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전통 가족 구성원을 거의 다루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외동이거나 고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정과 이해원(2019)은 최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영웅 캐릭터가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항하는 중심인물로 표현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노승관(2018)은 고전적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리의 현대적 재구성을 연구하여 그 성공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상업적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는 한계를 지적한다. 조윤경(2016)은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와 디즈



니의 판타지가 합작한 애니메이션 협업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대체로 성공사례를 다루거나, 인물, 가족, 애니메이션 기술 등이 전통과 다른 전복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사조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림책에 미친 영향들도 발견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인과 아동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크로스오버(crossover) 현상이다. Judith(1997)는 그림책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큰 요소이며 ‘그림책은 모든 연령을 위한 장르’라고 규정하였고, Beckett(2012)는 어른에게 매력적인 그림책의 요소를 실험적인 관습, 코드, 규범에서 찾는다. Meibauer(2017) 역시 21세기에 나타난 그림책의 특징으로 모든 연령층의 관객을 다루는 다양성을 들고 있다. 그림책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오던 주제인 전쟁, 죽음, 정신질환, 아동학대를 다루며 우울한 분위기와 열린 결말로 등장인물의 불안한 심리 세계를 그린다.

백희나 작가의 초기작인 『구름빵』, 『달야벳』 이후의 그림책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드러난다. 할머니의 영혼을 불러오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알사탕』 그림책이 있다. 장르로 보면 판타지(Fantasy)<sup>3)</sup>로 볼 수 있지만, 영지주의로 해석해도 들어맞는다. 가족의 형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상한 손님』에서 달걀귀신을 비롯한 도깨비들이 외로운 남매와 놀아주고 떠난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매 둘은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이 나간 듯 초현실적 인물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크로스오버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다. 판타지 장르를 가장한 호러 장르로서 성인 문학과 어린이 문학의 경계를 깨고 있다.

가족에 대한 포스트모던 풍조를 그림책 『나는 개다』에서도 볼 수 있다. 강아지는 ‘돌봐야 할 가족’으로 사람인 할머니와 다섯 살 동동이를 자신이 보살핀다고 말한다. 강아지 입장에서 동동이는 다섯 살인데도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표현한다. 인간 동동이와 강아지 구슬이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이상한 엄마』 그림책은 오컬트 인물을 구원자로 그리고 있다.

Mouw(2021)는 사회문제가 외로움과 불안을 증폭시켜 사람들이 오컬티즘에 빠짐을 지적한다. 공동체 중심이던 기독교 문명사회에서 가족을 중시했던 시절에는 웃어른에게 지혜를 구하고, 형제와 자매가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현대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박탈감, 소외감, 절망감, 그리고 영적인 의존의 문제까지 나타난다. 문화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이라는 변명 아래 가족의 형태를 약하게 만든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배 참석과 기도로 자신을 돌보던 영성의

3) 판타지(Fantasy)는 가상의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상을 깨며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을 담은 문학 작품이다(네이버국어사전, 2022).



회복이 아닌, 무속신앙과 환각, 자극과 재미로 면피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탈기독교화’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C. S. Lewis(Pike, 송은정 역, 2017)는 우려를 표명하며, 서양의 역사를 기독교 이전 시대,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기독교적 문명사회’가 서서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후기 기독교 시대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회,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분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 IV. 텍스트 앞의 세계

### 1. 독자 반응

본 연구는 백희나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을 대형 출판사 교보문고(2022)의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았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독자 즉, 아동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인과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교보문고의 크로버 리뷰는 도서 구매 후 90일 이내에 10글자 이상의 리뷰와 크로버 앞의 개수로 평점 내는 것이다. 이 리뷰는 구매자만의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리뷰를 남기는 독자는 주로 성인이며, 자녀의 반응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의 크로버 리뷰는 2016년 3월 15일에서 2022년 4월 26일까지 총 213개이다. 성인의 리뷰는 백희나 작가에 대한 신뢰를 보인 내용이 가장 많으며, 워킹맘의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고, 힐링 된다는 것과 선녀님 얼굴이 너무 무섭게 그려져 있어서 아이가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긍정적인 리뷰도 있으나, 부정적인 리뷰로는 그림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꼽았다. 성인의 리뷰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은 오타를 포함한 모든 글을 똑같이 적어 오류를 없앴다.

“어른 정서로 봤을 때 볼때마다 무섭긴 한데 맛벌이 엄마로 자주 겪는 상황... 공감도 되고요.”

“알사탕 정말 좋아해서 샀는데... 제가 봐도 가끔 무서워요..”

“이상한 엄마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나도 모르게 뭉클해 졌네요. 아이 책인데... 워킹맘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데 작가님 다큐보고 구입했습니다. 컷 하나하나에 들어간 공을 생각하면서 읽으니 더 사랑스럽고 뭉클하네요. 자녀가 생기면 꼭 들려주려(?)구요~”

“비오는 날의 어둑어둑한 풍경과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까지... 백희나 작가여서 가능한 것

진 그림책!”

“워킹맘의 아이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는 책...”

“재밋고 따듯하고 이상한 동화책이지요”

아래 글은 아동의 반응으로 양육자가 적은 것이다. 대부분 구입한 사람이 적는 리뷰로 아동이 직접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살 여아 알사탕 잘 읽어서 이상한 엄마 책도 구입했는데 이상한 엄마 무섭다고 못읽겠다하네요

ㅋㅋ 얼굴에 흰색으로 분칠?해서 그런가봐요 ㅋ 저는 재밋게 잘 읽었어요”

“아이가 조금 무서워해요. 저희 아이에겐 백희나 작가님 책이 구름빵만 잘 맞네요. 아쉬워요.”

“재밋어요 다만 6살 남자아이는 이해력이 좀 달리네요 ㅋ”

“아이가 무척 좋아하네요”

“5세 아이가 빠져있는 책이에요 재밋있네요~”

“아이가 너무 재밋어해요~”

리뷰가 대체로 성인은 일하는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인 반응은 구체적인 언급보다 ‘재밋있다.’, ‘좋아한다.’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반응 대다수는 그림이 불러일키는 정서, 즉 공포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성인은 위로를, 아동은 호불호를 표현하고 있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 2. 문학상 수상과 평판

백희나 작가의 인지도를 높인 결정적 계기는 아동문학상에서 최고의 수상금을 수여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을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2002년 스웨덴 정부가 『내 이름은 뽀삐 롱스타킹』의 저자 Astrid Lindgren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문학상이다. Astrid Lindgren은 18세에 나이 많은 상사와 불륜으로 임신해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 미혼모로서 성공한 작가이다(Swanson, 2007). Lindgren이 쓴 ‘뽀삐 롱스타킹’은 스웨덴에서 전통 육아 및 사회 계급 구조, 법체계, 교육 체계를 공격하는 존재(Russell, 2000)로서 아이가 어른을 전복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졌다고 한다. 힘없는 여성으로서 사회 혁신 운동의 모델이 되는 Lindgren은 전통적 가족과 가치를 거부하는 인물로서 혁명의 본보기가 되었다. ALMA는 이러한 전복적 이

님이 담긴 작품에 수상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ALMA, 2021).

ALMA의 홈페이지(2021)에는 Astrid Lindgren이 풍요로운 내면의 삶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으며, 어린이 문학의 재창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도덕적 확신을 대중에게 어필하고, 유머로 대화하며,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주목하는 확고한 인본주의자(humanist)로 소개한다. 인권의 역사적 관점을 연구한 김영길(2020: 839)은 인본주의에 대한 현대인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인권 담론의 역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의 본격적 시작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거나, 프랑스 시민혁명에 나타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 사상이 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께서 직접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생명권, 소유권 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로 기독교 성경에서 왔으며, 초기 칼뱅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계몽주의 정치사상가들이 가져온 것이다.

ALMA 홈페이지(2021)가 밝힌 공식적인 제정 목표는 “모든 어린이의 훌륭한 이야기에 대한 권리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해마다 아동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스웨덴 예술 의회에서 관리한다.”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면, 국제연합(EU)은 1989년 Janusz Korezak의 어린이 권리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Korezak의 아동 권리 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권리”로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원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이다(우지연, 2011: 67). 이것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을 위한 선언문들은 모순이 있음을 Wolterstorff(배덕만 역, 2017: 195-19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이 인권과 인권이 소유하는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소유한 권리’ 중에 하나다. UN 문서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목록을 나열한 것뿐이다.” 그는 인권이란 신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본질적 권리(Standing rights)로서 자연적인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인권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권리를 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권은 소멸해가고 행위들만이 명명되어 인권이라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ALMA를 수상한 그림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크로스오버이다. 2017년 수상한 독일의 Wolf Erlbruch와 2013년 수상한 아르헨티나의 Marison Misenta는 그림책에 ‘아동용’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작업했음을 밝힌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다루거나, 죽음, 성과 같은 주제들의 기괴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창작자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에 따른 고민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2010년에 수상한 벨기에의 Kitty Crowther와 2014년 수상한 스웨덴의 Barbro Lindgren은 양육의 불안을 주제로 다루었다. 현실에서의 양육과 다른 모습을 그림책을 통해 다루

거나 제시하곤 하는데, 이를 ALMA는 초현실주의라 한다.

Shaun Tan은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림책 및 노블 작가로 ALMA를 수상하였다. 그는 사회문제를 주로 그림책에 담고 있다. 이민자의 생활, 소녀가 겪는 불안, 삭막한 도시에서 숨어 지내는 동물과 공존하는 인간 등, 그의 그림책의 특징은 비규정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으로 주제에서 성인문학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거나, 성인과 아동의 대립을 통해 성인의 잘못을 지적한다. ALMA(2021)는 백희나의 수상 평가에 대해 “내면의 독백, 아버지 잔소리로 이루어진 한 페이지의 텍스트, 죽은 할머니를 부르는 사탕을 예찬”한다. ALMA 역시 백희나의 영지주의 세계관을 주축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ALMA의 수상으로 평판이 좋아지는 작가들이 많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세계관은 우리가 어린이 문학에서 생각하는 가족 개념과 달랐다. 그림책의 주제 역시 도전적인 크로스오버 성격으로 성인의 문학 주제를 다루었다. 아동의 권리라고 ALMA는 주장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권리에 따른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만으로 그림책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볼 수 없다. 또, ALMA 수상자들 대부분이 어린이 관련 학자들이 없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제시는 하지 못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작가들은 문제를 부각시키기만 할 뿐이다.

결국, 저명한 아동문학상이라도 부모, 교사가 생각하는 양식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부모, 교사는 어린이에게 발달적 도움, 도덕성, 바른 가치 기준, 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이로움을 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수상 그림책은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김현경, 2021). 그러나 아동문학상이 가진 기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동의 발달이 성인과 같다고 보는 크로스오버(crossover) 성격, 도덕적 상대성인 상대주의, 가치 기준이 없는 허무주의(nihilism), 신학적으로 이교적인 영지주의 등을 보이고 있다.

## V. 텍스트 세계관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 1. 텍스트 세계관

세계관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문화, 미디어, 문학, 예술, 가까운 사람들,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다. 백희나의 그림책도 누군가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Naugle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계관의 역사와 총체적 이해를 가지고 시

작하였다. 백희나 그림책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Wilkens와 Sanford의 『은밀한 세계관』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하여 뉴에이지(New age) 세계관으로 결론을 내었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에서 판타지 장르에 나타난 인물은 선녀라는 형상을 했지만, 주술사와 같은 무속신앙과 연관된 화장과 치장을 하고 있다. 도교에서 다루는 민간신앙은 불교의 국교화로 무속신앙으로 변질되었고, 불교와 혼용되었다. 오늘날 선녀는 어느새 영지주의 성격으로 그림책에 나타났다. 성인들의 공포문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안타고니스트이다. 백희나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 평상시 악역이던 안타고니스트가 종교 예식에 해당하는 음식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주인공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치유를 가져왔다. 결국 안타고니스트가 전복하여 주인공 역할을 하며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크로스오버 형식을 보였다. 서론에서 뉴에이지 특성을 보이는 그림책의 조건으로 동양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영적 존재를 반영하고, 종교적 성향의 무속신 또는 이교적 종교 예식인 음식과 관련되거나, 심리나 스트레스 치료와 관련된다면 뉴에이지 특성을 가졌다고 전제했다. 백희나의 『이상한 엄마』는 위의 세 가지를 텍스트 자체의 세계에서 모두 충족하고 있다.

텍스트 뒤의 세계에서 만난 작가의 염세주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다. 정일권(2020)은 염세주의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을 설정하는 영지주의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백희나의 교육적 배경인 CalArt는 반사회적 이념을 내세운다. 이는 기독교 전통의 창조세계를 부정하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념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포스트모던 이념은 직, 간접적으로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텍스트 앞의 세계에서 문학상 수상에 따른 높은 평판을 가진 작가임을 알 수 있었다. 독자 반응으로 성인은 맞벌이 엄마로 위로받고, 공감되는 내용이었음을 적고 있다. 성인이 적은 자녀의 반응은 재미있고, 좋아하지만, 무서워한다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성인이 더 선호하는 크로스오버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는 스웨덴에서 수여하는 국제적인 아동문학상인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수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ALMA 수상작들이 ‘아동용’을 거부하고 성인의 주제를 다루기를 원했으며, 표현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수상작의 예술적 뛰어남과 파격적 주제는 그림책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수상작품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어린이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백희나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는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영지주의를 보이는 뉴에이지 세계관을 가진다.

크로스오버의 커다란 영향은 그림책에 뉴에이지(New age)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뉴에이지란 매우 혼합적이고 절충적이다. 크게 오컬티즘(고대의 애니미즘, 원시종교, 이방종교)과 작게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행태(주술사, 점성술사, 명상가)이다(Sire, 김현수 역, 2017). 뉴에이지의 기원은 고대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존재에 믿음을 강요하게 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던 문화권에서 신봉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한다. 동시에 재미로 여겨지는 타로카드<sup>4)</sup>를 통해 점을 치거나, 별자리 운세를 보고, 사주를 따지는 등의 헛된 믿음도 뉴에이지 안에 속한다. 동양에서 전생을 믿고, 명상을 하면 열반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개인이 도를 닦아 신이 되려는 것도 뉴에이지로 볼 수 있다. 그런 오랜 행태임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라는 뜻의 뉴에이지를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Wilkens & Sanford, 안종희 역, 2014).

“세계관이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설과 가치들의 묶음이다”라고 Brand & Chaplin(김유리 역, 2004: 196)은 말한다. 작가 또는 시대상이 반영된 텍스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로서 쉽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가치로서 삼는다. 뉴에이지 세계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체로 범신론적 세계관의 무속신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Sire(김현수 역, 2017: 289)는 “성경의 영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대해 경고한다. 가장 오래되고 분명한 경고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거저 종교와 무속 행위로 가득 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졌다.”라고 하였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다른 신의 힘을 빌려 운명을 움직이려는 자는 신성모독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Sire, 김현수 역, 2017).

## 2. 뉴에이지를 보이는 판타지 텍스트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이 대상임을 명시하고, ‘아동용’이라는 말을 삭제한다.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 혼합성, 아이러니 형식과 성인용으로만 간주되는 심오한 논란의 내용, 예를 들면, 성, 죽음, 귀신, 자살의 내용을 다루는 주제를 가진다(Beckett, 2002). 시각적으로 독특한 예술을 시도하여 이러한 형식을 부각하고, 논란의 내용은 주로 판타지 장르로 다룬다. 판타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도구와 같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르도 판타지이다.

Todorov는 환상문학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로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Freud의 정신분석과 연계하여 해석했다. 결국 논지에서 기독교 관점은 배제되었고,

4) 타로(Tarot)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78매의 카드를 뽑아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점이다. 타로카드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막연히 옛날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 여러 지역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로 카드는 흔히 정통 또는 클래식으로 불리는 ‘마르세유 타로’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그 종류만도 1,000여종이 넘는다(시사상식사전, 2022).



환상이 기이함으로 혼용되는 것에 일조했다(Todorov, 2013). 판타지를 장르 분석이 아닌 사회 분석으로 바라본 Jackson은 억압되고 은폐된 욕망의 표출로서 현재의 질서를 전복(subversion)시키는 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18세기 이전에는 악이 매우 분명했으나, 고딕소설(Gothic Fiction)<sup>5)</sup>이 등장한 18세기 이후로 악의 형상이 평범해졌다고 한다. 19세기에는 악이 인간의 내면세계로, 20세기에서 악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Jackson,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2001). 뉴에이지 역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사상의 하나로서 나타난다. 악으로 표상되던 영지주의가 마치 판타지의 정설인 듯 어린이 그림책에 나타나서 선과 악의 개념을 상대화 시킨다.

Tolkien은 판타지, 요정 이야기, 여러 ‘로맨스’ 문학이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Lewis도 이에 동의했다(Duriez, 홍종락 역, 2005). 그러나 Tolkien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로 가정하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점점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는 훗날 『반지의 제왕』 속의 중간지역을 설계하는 근본이 되며, 아이들에게 적합한 판타지가 탄생한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Tolkien은 분리된 공간인 환상을 2차 세계로 설정하였고, 현실의 1차 세계와 다른 차원으로 보았다. 환상 세계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마법이 일어나는 세계와 현실이 완벽히 분리되는 곳이다. 어린이 문학의 분리된 환상 구조에서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아동 심리학자인 Bettelheim도 『옛이야기의 매력』에서 아동을 위한 문학구조로 Tolkien과 같은 구조를 언급한다. “이야기는 단순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어린이를 경이로운 세계로 여행하게 한 후 마지막에는 가장 안도감을 주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현실 세계에 데려다 놓는다.”(Bettelheim, 김오순·주옥 역, 2019: 105). 그는 아동 심리학자로서 아이들의 문학 경험이 주는 불안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Tolkien과 Lewis는 문학에서 선과 악의 뜻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112). 악이 선에 기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를 떠올리면 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악은 선이 동요하지 않고 신앙의 깊이를 가질 때 침범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오늘날 그림책은 선과 악에 대해 불분명한 경계를 보인다. 아무도 잘 못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누구도 옳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잣대는 내적인 가치를 키우지 못한다.

Tolkien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이기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눈부시고 영원한 진실에서 떨어져 나온 단편임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역경과 고난, 악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에 의해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 선

5) 고딕소설(Gothic Fiction)은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의 낭만주의 소설 양식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딕소설들은 잔인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 신비한 느낌과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유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22).

파국의 종결을 갖는 형식 또한 기독교의 믿음을 굳게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담긴다고 한다. 선파국(eucatastrophe)이란, 분명히 슬픈 결말의 이야기에서 갑작스럽게 행복한 반전이 이루어져 깊이 감명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악하게 된 것이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곧 구속으로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 머무는 것으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삶에 대한 허락을 얻는 자격이 된다. Tolkien은 문학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선파국이 어린이 문학의 가장 큰 기능이며, 구속을 통한 회복의 기쁨은 뛰어나고 완전한 좋은 동화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Mouw(박일귀 역, 2021: 171) 역시 “Tolkien이 말했듯이, 좋은 어린이 문학은 이야기 내내 긴장감을 늦추기 않고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면서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주장을 지지했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보이는 그림책은 허무한 세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 안에서 머물다 어쩌다 찾아온 이상한 존재의 행운에 잠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문제라는 의식만을 남긴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백희나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도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빠진 그림책은 타락한 세상 속의 허무한 삶을 보여줄 뿐이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서 은혜의 영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림책에 함축된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일부라고 설명한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 소수의 사람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에 대해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영적 안녕을 제공하는 것”(현은자, 2017: 36)임을 알린다. 어린이에게 삶에 대해 안녕을 알려주는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키워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판타지 장르가 기독교의 성격을 버리게 됨을 Pearce(김근주·이봉진 역, 2001)는 강조한다. 그림책에 나타나는 뉴에이지는 판타지를 서투르게 모방한 것이며, 현실에서 도망가는 위로일 뿐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좋은 가치를 모르는 작가들은 악한 모습이 주는 기괴함을 다룬다.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 즉, Tolkien이 작품 속에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한 ‘영혼’은 종교적인 차원이며, 종교적으로 무지한 작가들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게 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에 담긴 세계관을 Vanhoozer(2009)가 『문화신학』에서 제시한 방법론인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후 도출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았다.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표지와 면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앞, 뒤 면지의 이야기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나의 단편 서사가 종결됨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앞, 뒤표지는 엄마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Serafini, 2012; 한아름, 2016)를 참고한다면, 『이상한 선녀』의 앞표지에 나타난 초현실 존재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문학 구조인 주인공, 주제, 플롯, 배경은 영지주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문학에서 주인공인 프로타гон리스트(protagonist)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의 원형이며 공포문학의 등장인물인 ‘무서운 선녀’가 프로타гон리스트 역할로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있다. 그림책에서 지면을 차지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안타고니스트가 전복의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림책의 주제가 되었다. 즉, 현대는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픈 자녀를 돌보아줄 기관도, 사람도, 도움을 받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다. 플롯(Plot)은 나약한 소년과 외로운 엄마는 귀신과 유사한 분장을 한 선녀에게 의지하여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영지주의를 보이며, 이상한 선녀가 떠난 뒤의 허무함을 내포하는 허무주의를 보였다. 배경은 어린이 문학에서 전형적인 판타지의 2차 세계를 현실인 1차 세계와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의 공포문학에 나타나는 배경으로 영지주의의 절정을 보인다.

텍스트의 뒤의 세계를 보면 작가가 처음 만든 그림책 『구름빵』을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하여, 그림책의 흥행에 비해 수익은 적었다. 저작권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염세주의 작가라고 하였으며, 어른을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크로스오버 현상을 가져왔으며 사회문제를 다루게 된다. 백희나 작가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드러내는 미국의 Disney가 만든 대학인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r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다. CarArts 홈페이지(2021)에 “역사적으로 Disney의 유토피아적 개념을 가진 반문화적 기반의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반의 영향으로 그녀의 다른 작품에도 영지주의

가 드러난다. 할머니 영혼을 부르는 『알사탕』, 개의 영혼이 이야기하는 『나는 개다』, 『이상한 손님』에서도 하늘에서 온 도깨비인 천알록, 천달록과 달갈귀신이 등장한다. 작가는 확실히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그림책에 반영하고 있다.

텍스트의 앞의 세계를 보면 독자반응으로 성인은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공감한다는 반응이며, 성인이 보는 자녀의 반응으로 재밌다, 좋다는 반면 무섭다가 다수 있었다. 아이들 보다 성인이 더 공감하는 크로스오버 성격이 독자 반응에서 나타난다. 백희나 작가의 인지도가 높아진 계기는 스웨덴 정부가 수여하는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받은 이후이다. 국제적으로 최고의 상금을 주는 아동문학상으로 알려진 ALMA는 그 명성이 높음에도 연구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없다. ALMA 수상 작가들을 살펴보면, 그림책이 아동용이길 거부하는 작가들이 많다. 그래야만 자신의 세계를 담을 수 있고, 솔직한 인간의 참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작가의 주제는 아동과 성인의 대립, 불합리한 성인의 모습, 죽음과 자살, 외톨이 등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결국, 백희나 작가 역시 ALMA의 수상기준에 비추어 크로스오버 성격을 가진 작품이며,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anhoozer(2009)의 『문화신학』의 방법론에 따라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 텍스트의 세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Wilkens와 Sanford의 『은밀한 세계관』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하여 뉴에이지(New age) 세계관으로 결론을 내었다. 뉴에이지란 크게 고대의 애니미즘, 원시종교, 이방종교를 말하는 오컬티즘과 작게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행태인 주술사, 점성술사, 명상가 등을 말한다(Sire, 김현수 역, 2017). 고대부터 이어진 뉴에이지를 사람들은 새로운 것, 멋진 것이라 착각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을 위해 그림책이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 문학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인 선한 결말이 가져오는 기쁨이라는 Tolkien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Tolkien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상이 편지를 쓰면서 판타지 속의 인물과 플롯, 배경 및 주제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내재한 작품을 설계하고, 문학에 이루어낸다. 그러나 뉴에이지 그림책은 창조-타락에 머물러 허무한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책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담을 수 있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닿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그림책의 세계관을 분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근주·이봉진 역 (2001) **톨킨 - 인간과 신화**. Pearce, J. (1998) TOLKIEN: MAN AND MYTH. 서울: (주) 자음과모음.
- [Kim, K. J. & Lee, B. J. (2001). Tolkien-Man and Myth. Seoul: JAEUM & MOEUM. Trans. Pearce, J. (1998). *TOLKIEN: MAN AND MYTH*. New York: HarperCollins.]
- 김영길 (2020). 인권의 담론과 성경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신앙과 학문**, 37(03), 834-847.
- [Kim, Y. K. (2020). The issue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ible and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37(03), 834-847.]
- 김오순·주옥 역 (2019). **옛이야기의 매력1**, Bettelheim, B. (1975). The Uses of Enchantment. 서울: IVP.
- [Kim, O. S. & Joo O. (2019). The Charm of an old story 1. Seoul: IVP. Trans. Bettelheim, B. (1975). *The Uses of Enchantment*. New York City: Alfred A Knopf.]
- 김유리 역 (2004). **예술과 영혼**. Brand, H. & Chapline, A. (2001). Art and soul 서울: IVP.
- [Kim, U. R. (2004). Art and Soul. Seoul: IVP. Trans. Brand, H. & Chapline, A. (2001). *Art and soul: Signposts for Christians in the Arts Westmont*, Illinois; IVP.]
- 김정준·신원애 (2016). 그림책에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의미 분석. **한국육아지원연구**, 11(3), 179-202.
- [Kim, J. J. & Sin, W. A. (2016). The meanings of the 'para-texts' in children's picture book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1(3), 179-202.]
- 김한중·이성호·문여경·송인영·이희근·최혜경 (2015) **한국사 사전2: 역사 사건**. 문화와 사상. 책과함께어린이.
- [Kim, H. J., Lee, S. H., Moon, Y. K., Song, I. Y., Lee, H. K. & Choi, H. K. (2015). *Korea History Dictionary2: History Event*. Cultural and Idea. Seoul: Children with Books.]
- 김현수 역 (2017).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서울: IVP
- [Kim, H. S. (2017). Christian Worldview and Modern Thought. Seoul: IVP. Trans.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USA: InterVarsity Press.]
- 김현경 (2021). 문화해석방법론으로 그림책 세계관 읽기-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한국독서아카고라연구**. 3(0), 229-258.
- [Kim H. K. (2021). Reading Worldview in Picture Books with Cultural Interpretation Methodology-Focusing on Anthony Browne's Piggybook. *Acagora Reading Reserch*, 3(0), 229-258.]

- 남지현 (2016). 백희나 판타지 그림책의 환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 327-356.
- [Nam, J. H. (2016). A Study on Fantasy of Beak Heena's Picturebooks.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19), 327-356.]
- 류훈 (2019). 현대영화의 프로타고니스트 활용방법. *영상기술연구*, -(31), 23-42.
- [Ryoo, H. (2019). How to Use Characters as 'Protagonists' in Modern Films.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31), 23-42.]
- 박세혁 역 (2018).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Naugle, K. David(2002) *WORLDVIEW*. 서울: CUP
- [Park, S. H. (2018).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Seoul: CUP. Trans. Naugle, K. D. (2002). *WORLDVIEW*.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 박일귀 역 (2021). **왜곡된 진리**. Mouw, J. R. (1989). *Distorted Truth*. 서울: CUP.
- [Park, I. G. (2021). *Distorted Truth*. Seoul: CUP. Trans. Mouw, J. R. (1989). *Distorted Truth*. New York: HaperCollins.]
- 배덕만 역 (2017). **하나님의 정의**. Wolte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서울: 복있는사람.
- [Bea, D. M. (2017). The Justice of God. Seoul: BlessedPeople. Trans. Wolte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Michigan: Baker Academic.]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2001). **환상성: 전복의 문학**. Jackson, R. (198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서울: 문학동네.
- [Sogang Women's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200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Seoul: Munhakdongne. Trans. Jackson, R. (198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London: Routledge.]
- 신국원 역 (2016). **행동하는 예술**. Wolterstorff, N. (1980). *Art in Action* 서울: IVP.
- [Shin, K. W. (2016). *Art in Action* Seoul: IVP. Trans. Wolterstorff, N. (1980). *Art in Action*. Michigan: Eerdmans.]
- 송은정 역 (2017).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Pike, A. M. (2013). *Mere Education*. 서울: IVP.
- [Song, E. J. (2017). *Mere Education* by C. S. Lewis. Seoul: IVP. Trans. Pike, A. M. (2013). *Mere Education*. Cambridge: The Lutterworth Press.]
- 안종희 역 (2014). **은밀한 세계관**. Wilkens, S. & Senford, L. M. (2009). *Hidden Worldviews*. 서울: IVP.
- [Ahn, J. H. (2014). *Hidden Worldviews*. Seoul: IVP. Wilkens, S & Senford, L. M. (2009). *Hidden Worldviews*. Illinois: IVP.]
- 엄다혜 (2021).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안타고니스트 연구: '로키'캐릭터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Eom, D. H. (2021). *A Study on <Marvel Cinematic Universe> Antagonist Analysis -Focusing on Loki characte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 우지연 (2011). **어린이 인권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성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Woo, J. Y. (2011). *Christian pedagogical reflection on children's right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윤석인 역 (2009). **문화신학**.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서울: 부흥과 개혁사.
- [Yoon, S. I. (2009). *Cultural Theology*. Seoul: Revival and Reform History.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Michigan: BakerBooks.]
- 이영경·김은주 (2019). 백희나 그림책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29-55.
- [Lee, Y. K. & Kim, E. J. (2019). Exploring the meaning of family in Baek Hee-na's picture book.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8(2), 29-55.]
- 임대희 (2020) 칸트의 근본악 개념으로 본 영화 속 악인 캐릭터 스토리텔링 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 289-304.
- [Lim, D. H. (2020). A Complex Study on Storytelling of the Character of The Villain in Film through Kant's Fundamental Evil Cogitatio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8(3) 289-304.]
- 임재영 (1994). 중국 고대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1), 463-485.
- [Lim, J. Y. (1994). A Study on the Cosmetic Culture of Ancient China. *A collection of papers from Hansung University*, 18(1), 463-485.]
- 임정진 (2019). 그림책 속 공중목욕탕의 비밀. **아동문학평론**, 44(1), 199-206.
- [Lim, J. J. (2019). Secrets of the public bath in the Picture Book. *Criticism of Korea Children's Literature*, 44(1), 199-206.]
- 임철규 역 (2000). **비평의 해부**.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파주: 한길사.
- [Lim, C. K. (2000). *Anatomy of Criticism*. Paju: Hangilsa. Trans.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정일권 (2020). **문화막시즘의 황혼**. 서울: (사)기독교서문서선교회
- [Chung, I. K. (2020). *Twilight of Cultural Marxism*,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 최애영 역 (2013).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Todorov T. (1976).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서울: 일월서각
- [Choi, A. Y. (2013). *The Fantastic*. Seoul: Ilwolbooks. Trans. Todorov T. (1976). *Introduction à la*

- littérature fantastique*. Paris: Editions du Seuil.]
- 최혜림 (2012) **백희나 그림동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Choi, H. R. (2012) *A Study on the Children's Stories with Illustrations by Heena Baek*. Masters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산: 국학자료원.
- [Korean Literature Critics' Association (2006). *Dictionary of Literary and Critical Terms*. Ilisan: KooHak.]
- 한아름 (2016). **해외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페리텍스트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Han, A. R. (2016). *A Study on Peritext of Foreign Children's Literature Award-winning Korean Created Picturebook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 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Radiant Child>(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김주아·국경아 (2018). 존 클라센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4), 199-225.
- [Hyun, E. J., Kim, J. A. & Kook, K. A. (2018). Worldview Approach to John Klassen's Picturebooks <Hats Trilogy>.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9(4), 199-225.]
- 현은자·이지운 (2022). 김경수작가의 『고민해결사 펭귄선생님』평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1), 1-17.
- [Hyun, E. J. & Lee, J. U. (2022). Criticism on Kang Gyeong-Soo's 『Troubleshooter Dr. Pengui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3(1), 1-17.]
- 현은자 (2017). 그림책 해석의 영성적 접근: 은혜 개념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21-42.
- [Hyun, E. J. (2017). Spiritual Approach to Picture Book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Grac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8(3), 21-42.]
- 홍종락 역 (2005). **루이스와 톨킨 우정의 선물**. Duriez, C. (2003). Lewis and Tolkien The Gift of Friendship. 서울:홍성사
- [Hong, J. R (2005). Lewis and Tolkien The Gift of Friendship. Seoul: Hongsungsa. Trans. Duriez, C. (2003). *Tolkien and C. S. Lewis*. New Jersey; HiddenSpring.]
- 교보문고 포털사이트. 개설일자 미상. “이상한 엄마 Klover리뷰”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

- code=9791158360214&orderClick=LAG&Kc=(검색일 2022.04.26.)
- [“Strange Mom Klover Review”, Kyobobook Portal Site(Unknown), Retried from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58360214&orderClick=LAG&Kc=> (2021.05.01.)]
- 대학내일 2016.04.08.일자. “백희나:염세주의자의 동화” <https://univ20.com/36821> (검색일 2021.06.08.)
- [“Baek Hee-na: A Tale of the Pessimistic”, Tomorrow at University(2016.04.08.). Retried from <https://univ20.com/36821> (2021.06.08.)]
- 북라이브 2020.10.28.일자. “[작가탈탈] 어린이만? 아니 어른도! 위로하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 <http://www.booklive.kr/4476> (검색일 2021.04.26.)
- [“Baek Hee-na, picture book writer comforting adults!”, Book Live(2020.10.28.). Retried from <http://www.booklive.kr/4476> (2021.04.26.)]
- ALMA 홈페이지 2002년 “수상, 수상자들” <https://alma.se/en/> (검색일 2021.06.01.)
- [“The Award, The Laureates”,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Homepage (2002). Retried from <https://alma.se/en/> (2021.06.01.)]
- 월간문화재사랑 2008.02.01.일자 “도가와 만나다 - 우리나라의 도교 흔적을 찾아서”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검색일 2021.06.07.)
- [“Meet Doga-Find traces of Taoism in our country.”, Monthly Cultural Heritage Love(2008.02.01) Retried from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 (2021.06.07.)]
-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홈페이지. 개설일자미상. “칼아츠에 대하여 - 역사” <https://calarts.edu/about/institute/history> (검색일 2021.06.08.)
- [“CalArts About- History”,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Arts Homepage (Unknown) Retried from <https://calarts.edu/about/institute/history> (2021.06.08.)]
- 한겨레. 2020.04.18.일자. “‘구름빵’ 작가는 얼마나 아빠가 없는 친구들에게 미안했대”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 (검색일 2021.06.07.)
- [“The writer ‘Cloud Bread’ said she was sorry for her friends who didn’t have a mother or father.” The Hankyoreh(2020.04.18.), Retried from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 (2021.06.07.)]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6.12.28.일자. “옥황상제”

- 
- <https://folkency.nfm.go.kr/kr/mainSearch/%EC%98%A5%ED%99%A9%EC%83%81%EC%A0%9C> (검색일 2021.06.07.)
- [“the Great Jade Emperor”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2016.12.28.) Retri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mainSearch/%EC%98%A5%ED%99%A9%EC%83%81%EC%A0%9C> (2021.06.07.)]
- NEWS1 2014.08.28.일자 “4400억 대작에 저작권료 고작 1850만원.. ‘구름빵’ 비극 없앤다”  
<https://www.news1.kr/articles/?1834186> (검색일 2021.07.06.)
- [“440 billion, just 18.5 million won for copyright. “Cloud bread.” They are going to get rid of the tragedy.” NEWS1 news(2014.08.28.). Retri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1834186> (2021.07.06.)]
- Beckett S. L. (2012). *Crossover Literature: A genre for all ages*. New York: Routledge.
- Judith, R. (1997). Breaking the Age Barrier. *Children’s literature*. 244(37), 28-31.
- Meibauer B. K. (2017). *From baby books to picturebooks for adults: European picturebooks in the new millennium*. World & Image.
- Serafini, F. (2012). Taking Full Advantage of Children’s Literature. *The Reading Teacher*, 65(7), 457-459.
- Stott, J. C. (1977). Midsummer Night’s Dreams: Fantasy and Self-Realization in Children’s Fiction. *The Lion and The Unicorn*, 1(2), 25-39.
- Swanson, S. M. (2007). Astrid Lindgren’s Swedish Legacy, *The Horn Book Magazine*. November/December. 637-643.

##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이수형 (성균관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 초록논문

어린이 문학에 끼친 크로스오버 현상으로 성인만의 공포 문학이 그림책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림책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를 대상으로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표지를 통해 가정의 문제가 지속됨을 나타냈다. 주인공은 프로타고니스트를 전복(subversion)한 안타고니스트로 사회에 문제가 많음을 드러내고자 악인이 선인을 돕는다.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를 부각시키는 허무주의를 가졌다.

둘째, 텍스트 뒤의 세계로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 소송을 패소하며, 염세주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작가 본인도 이 시기의 감정이 작품에 반영되어 어둠이 드러남을 고백했다.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는 CalArts에서 공부했다. 우수한 영상미를 보이지만, 그 성격은 오컬티즘이 반영된 영지주의 그림책을 다수 만들었다.

셋째, 텍스트 앞의 세계로 성인은 위로를, 아동은 재미와 무서움을 표현하며 각 독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백희나 작가는 ALMA를 수상하고 인지도를 높였다. ALMA의 수상 작가들은 ‘아동용’을 벗어나 자유로이 작업함을 강조하며, 크로스오버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하며 허무한 세상을 대체할 뉴에이지(newage)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는 창조, 타락에 멈추어선 반영이며 구속으로 회복을 제시하는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문학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을 수 있음을 Tolkien의 판타지 이론으로 예시하였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 담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닿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현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라가는 그림책 문화 형성기에 있지만 이를 세계관 분석으로 파악하고,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회계하고 다시 회복하는 문학인, 비평인,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뉴에이지 그림책, 문화 해석학.





##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강 병 덕 (Byungdeok Ka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 성 봉 (Sung-Bong Cho)\*\*\*

정 예 은 (Ye-Eun Jeong)\*\*\*\*

손 해 인 (Hae-In Son)\*\*\*\*\*

#### ABSTRACT

The majority of Korean missionaries working abroad are not properly preparing for their life after retirement. Korean churches or organization sending out missionaries often have had limited understanding of and contribution to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ir missionaries, while many of them have been forced to accept that it is their own responsibility to prepare for life after retirement. As a result, many Korean missionaries are found to struggle to manage for living after retirement in pover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percep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readiness for life after retirement among Korean missionaries. To collect data, we examined a total of 408 missionaries through online survey and interviewed 8 missionaries in person. Through analysis, we presented Korean missionaries' financial readines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information such as age, sex, and marital status, and their verbal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readiness and actual struggles living in Korea, as well as possible solu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made a few suggestions for Korean missionaries and churches in Korea to better help and support Korean missionaries to live a more secure and stable life after finishing their service for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Korean missionaries, retirement preparation, financial readiness, life after retirement, elderly poverty

\* 2022년 5월 23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8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bkang@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cho@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부생,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gowjddpdms@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생,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iinnaa@handong.ac.kr

## I. 서론

최근 발표된 한국선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은 총 22,259명이고 그 중 60대 이상인 선교사는 전체의 21.82%인 4,858명에 이른다(한국선교연구원, 2021). 해당 조사에 의하면 한인 선교사들 5명 중 1명은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기준이 되는 나이(70세)를 넘긴 상황이고, 과반수는 은퇴 후 사역을 중단할 예정이거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근곤(2016)의 경우, 특정 선교회 소속 선교사 3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50~60대이고, 은퇴 후 고국인 한국으로 들어와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사역 중인 5-60대 한인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향후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유난히 높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통계청(2021)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인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38.9%로 나타났다. 그간의 동향과 비교해 볼 때 2011년 4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40% 미만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노인 열 명 중 네 명이 빈곤하다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의 노인 빈곤율의 높은 수준은 OECD 회원국과들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5%인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이혜리, 2022).

은퇴를 앞둔 한인 선교사들 중 다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윤은혜(2019)의 연구에 따르면, (예장합동 소속)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거주할 주택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고, 김근곤(2016)은 선교사들의 70% 정도가 전반적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의 최소 기준이기도 한 공적 연금에 가입한 선교사는 절반 정도에 그칠 뿐 아니라 그나마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윤은혜, 2018). 즉, 한인 선교사들의 과반 이상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실질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는 은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선교연구원, 2021). 물론 이 같은 인식은 그간 국내의 관습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반응일 뿐, 사역 후 삶에 대한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거나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적절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소수의 중대형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은 은급제나 은퇴기금 등을 통해 소속 선교사의 은퇴를

상대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준비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것이 국내 선교사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즉, 파송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처는 소속 교단이나 단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작은 단체의 경우 은퇴 후 생활, 은퇴 준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종합해서 볼 때, 최근의 연구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은퇴 후 국내로 돌아올 한인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해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모습이 많이 부족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은퇴 후 선교사의 생활과 이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수년 내 은퇴를 앞둔 많은 선교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및 문제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인 선교사들의 은퇴에 관한 관심이나 은퇴 후 삶의 준비에 대한 필요는 주로 뉴스기사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간간히 다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몇몇 수의 연구들 또한 대개 특정 교단 혹은 선교단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해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크고 작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에 소속되어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 준비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은퇴 후 삶 준비의 실질적 어려움과 한계를 확인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 정도, 그리고 재정 준비가 부족한 선교사를 위한 도움 방법을 탐색하고, 재정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영역들에서 연령,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인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은퇴 준비와 관련된 현실적 제약 및 어려움의 현황을 확인하여 이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 그리고 한국 교회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 전에는 사역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재정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와 그 방향/방법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 재정적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83.5세로 빠르게 증가해 왔고(통계청, 2021) 이 같은 지속적인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2015년부터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 13365호, 2015.06.2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76호, 2015.12.23. 시행)을 시행하였다(김연화·황종규, 2017).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는 전체 성인의 73%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65세 이상의 준비 비율은 45%에 불과하였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준비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성인의 60% 정도가 국민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을 주요 준비 방법으로 응답하였지만 65세 이상은 50%로 10% 포인트 더 낮았다. 반면, 부동산이나 개인의 예적금에 대한 응답은 65세 이상의 응답 비율이 전체 성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보험연구원, 2015, 재인용).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삶 영위에 노후준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김효신, 2008 외).

노후준비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계승·김동하, 2017). 충분한 노후준비에 있어 재정적 준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광민주·이희숙(2015)은 경상소득과 금융자산 등과 같은 재정적 요인들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헌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정적 노후준비에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은퇴준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은퇴준비 정도에 대한 연구나 재정적 노후준비의 충분성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 연구 등이 확인된다(백은영·정순희, 2012; 여운경, 2011; 장지영·양세정, 2013). 특히 특정 인구/대상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을 탐색한 연구들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들(김경호, 2013; 김희정, 2016; 민주홍 외, 2017; 박숙정·이영민, 2021; 전인수, 2014 등)이나 여성(심우정 외, 2016; 이호숙, 2020; 홍지현 외, 2020; 손유경·최성문, 2020 등)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특정 인구/대상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 관련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로 재정적 노후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은 30대 이하인 경우 20.4%에 불과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은퇴가 가까운 50대는 48.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연화·황종규(2017)의 연구에서는 노후필요자금의 조달방안에 있어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며 월급과 부동산임대료를 통해 자금조달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노후자금 준비기간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10년 이하라는 응답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해당자와 비해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을 비교한 안서연 외(2020)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 해당자 중 50-60대의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는 배우자의 소득이며, 70대와 80세 이상은 정부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비해당자의 경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상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43.2%가 준비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1순위로 국민연금(56.0%), 2순위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45.6%), 3순위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44.2%)과 부동산 운

용(21.4%)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국내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계수, 조성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80.0%에 달하였으며 주된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45.6%), 예적·금(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특히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노후 시기에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필요한데, 이여봉(2012)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여봉, 2012). 베이비부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 준비에 약하며,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손판도·김진곤, 2016).

한편, 국민연금공단(2020)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4.5만원, 부부 기준 26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적정노후 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월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연령별로 개인과 부부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50대는 182.3만원과 296.1만원, 60대는 167.3만원과 275.4만원, 그리고 70대는 146.8만원과 235.5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정 노후생활비가 낮아지는 패턴이 확인된다(국민연금공단, 2020). 또한 김연화·황종규(2017)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은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5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이외에 필요한 노후자금의 금액은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49.3%)고 보고하였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51.5만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범식, 2018). 안서연 외(2020)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학력자일수록 예상하는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예상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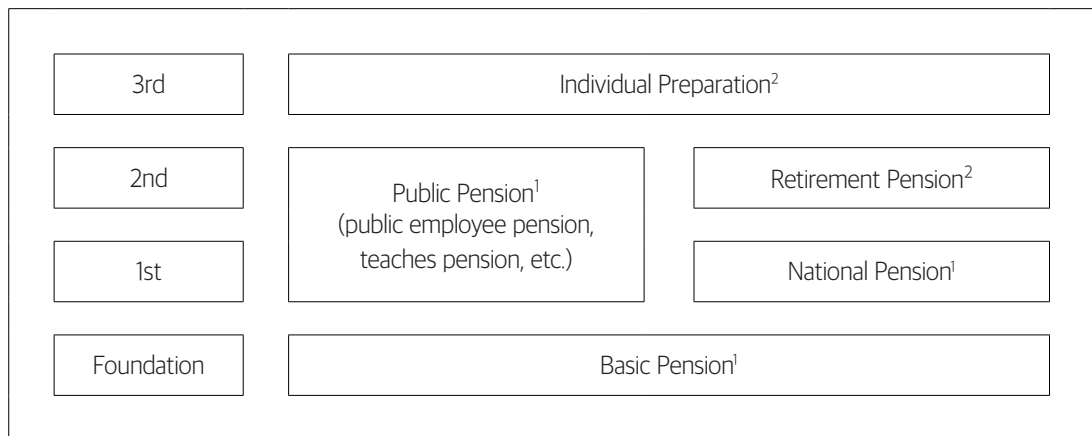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은퇴 예상 연령은 68.2세이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62.9세로 약 5년 간의 시차가 존재한다(통계청, 2021). 즉, 자신이 은퇴하고 싶은 또는 은퇴를 계획하는 시점보다 더 일찍 은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시점이 아닌 더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퇴 후 삶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준비 상황을 보면, 5점 척도에서 긍정 응답(아주 잘 되어 있음 & 잘 되어 있음)의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부정 응답의 비율은 54%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였다. 부족한 은퇴 준비는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은퇴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한 응답은 여유 있다(충분히 여유 있음 & 여유 있음)는 응답 비율은 12%였고, 부족하다(매우 부족함



& 부족함)는 응답 비율은 55%를 차지하였다.

##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은퇴 후의 적절한 재정적 보장을 위한 준비는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적을 것이고,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Averting the Old Age Crisis는 3층(pillar) 구조의 연금제도 설계를 권고한 바 있는데(한겨레·김교성, 2019), 이 같은 구조는 다층보장체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혼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 나라들이 3층 구조를 채택하여 다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확대하여 2014년 기초연금도 제도화되었다(한겨레·김교성, 2019). 이를 통해 <Figure 1>과 같은 현재의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0층은 기초연금(Basic Pension), 1층은 국민연금제도 등의 공적연금(Public Pension), 2층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Retirement Pension), 3층은 임의가입의 개인연금(Individual Preparation) 등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Figure 1 > The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in S. Korea

<sup>1</sup> = Public Supports; <sup>2</sup> = Individual Preparation

출처: 보험연구원 (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p. 17)

우해봉·한정립(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통합 소득대체율은 43~4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달리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급여,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한 개인만이 다층보장체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제약에서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김교성(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의 약 27%는 공/사 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약 35%는 단층적으로, 약 38%는 중다층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인 선교사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만으로는 은퇴 후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불충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자 일찍부터 준비한다. 또한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하고자 노인이 되거나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은퇴 후 삶을 위한 이와 같은 접근과 준비는 적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선교사의 은퇴준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의 비율은 80%(김충환, 2021), 58%(한인선교사지원재단, 2018)로 나타난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은퇴와 동시에 기존에 교회 및 교단으로 받던 후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도 거의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 또한 미리 들어 놓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윤은혜(2019)는 한인선교사들의 61%는 은퇴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퇴준비는 각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구조적,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더구나 선교사들의 경우,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 시작 전에는 현지에 정착하고 적응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일단 사역이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의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은퇴 후의 한국에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 준비와 관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즉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자신의 몫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사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가 은퇴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로써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이들은 은퇴후 노인이 되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문화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노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선교사의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에 대해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은퇴 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준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각각 분석하는 병렬형 혼합연구 방법(convergent mixed methods design)을 채택하였다(Rubin & Babbie, 2016). 연구 질문의 내용에 따라 응답을 표준화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질문들, 응답에 대해 보다 개별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질문들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설문지를 통한 양적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 수집을 각각 진행한 후 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각 결과를 함께 융합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 접근 또는 질적 접근만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편파성은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II. 양적 연구

### 1.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21년 7월에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인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는 선교사 대회 개최 전 참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국내외 한인 선교사 308명, 그리고 포항에서 개최된 선교사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들 중 112명이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하였다.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선교사 대회를 위한 참여 선교사 등록이 가구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420명이었고, 참여자 중 이미 은퇴가 임박한 70대 12명을 제외한 40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 (2)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측정을 위해 구글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과 인쇄된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문항은 참여자의 은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파송방법, 소속교단/선교 단체, 부부 선교사 유무, 주요 재정지원 대상, 선교지 사역 및 생활 재정 부족 등), 재정적 노후 준비 현황(재정적 노후 준비 여부 및 하지 않는 이유, 노후 시기 필요한 예상 생활비와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 소득 활동 필요성 및 은퇴 후 희망 활동 등)에 관한 것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연령대에 따른 재정적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참여자 수는 408명이었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해당 설문 문항에서 100% 응답하였지만, 소수의 참여자에게서는 문항별 무응답이 발생하였다. 문항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참여자를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고, 해당 문항 분석에서만 제외하였다. 항목 무응답의 경우 정보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무응답의 값을 특정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나 문항에 따른 무응답의 수가 많지 않아 정보 손실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목별 완전제거법을 사용하였다(이화정·강석복, 2012).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선교사 파송 방법에서는 2명의 무응답이 있어 408명 기준이 아닌 406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은퇴 준비에 대한 문항에서 은퇴를 위한 재정 준비 어려움 항목에서는 6명이 무응답이어서 402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분석 결과

이번 연구 참여자(408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240명, 59%)가 여자(168명, 41%)보다 조금 더 많았고, 부부 유무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359명, 88%)이 부부였다. 연령대로 보았을 때, 50대(179명, 44%)가 가장 많았고, 60대(139명, 34%)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선교 파송과 재정 영역(Dispatch of Missionari)에 대해서는 교단 선교부 또는 교단 지역 조직의 파송(220명, 54%)이 가장 많았고, 주요 재정지원(Main Financial Support Source)은 개별 교회(261명, 64%)가 가장 많았다. 선교지에서 사역 및 생활 재정 부족 경험(Experience of Financial Shortage)에 대해서는 재정 부족을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181명, 44%)이 가장 많았다. 재정 부족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열 명 중 일곱 명이었지만, 열 명 중 두세 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퇴 후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Expected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16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 문제(104명, 26%), 건강 문제(56명, 14%) 순이었다. 재정 문제와 주거 문제를 분리하기는 하였지만, 주거 문제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 열 명 중 예닐곱 명이 재정 문제라고 응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N = 408)

Variable	n	%	Variable	n	%
<b>Gender</b>			<b>Marital Status</b>		
Male	240	58.8	Married	359	88.0
Female	168	41.2	Single	49	12.0
<b>Age Group</b>			<b>Main Financial Support Source</b>		
40s or Under	90	22.1	Individual Church	261	64.0
50s	179	43.9	Family, Relative, or Friend	57	14.0
60s	139	4.1	Denomination	39	9.6
<b>Dispatch of Missionary*</b>			Self-Support	28	6.9
Central or Regional Branch of Denomination	220	54.2	Missionary Organization	23	5.6
Missionary Organization	127	31.3	<b>Experience of Financial Shortage</b>		
Individual Church	32	7.9	Never	125	30.6
Mixed	14	3.4	Sometimes	181	44.4
Self-Support	9	2.2	Often	69	16.9
Others	4	1.0	Very Often	33	8.1
<b>Missionary's Affiliated Organization (Denomination/Missionary Org): Top 10</b>					
1.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80	19.6	6.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17	4.2
2.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58	14.2	7.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15	3.7
3.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onghap)	34	8.3	8.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15	3.7
4. The Korean Methodist Church	33	8.1	9. Global Bible Translators (GBT)	13	3.2
5. Baptist	24	5.9	10. The Paul Mission International	8	2.0

\* N = 406

Table 2.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asons for not being Prepared

Variable	n	%	Variable	n	%
<b>Expected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b>			<b>Reasons for not being Financially Prepared (for only those who answer 'no' in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b>		
Finance	162	40.3	Currently no financial room to prepare for retirement	152	76.0
Housing	104	25.9	No idea how to prepare (feeling the need to prepare)	36	18.0
Health	56	13.9	No feeling the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10	5.0
Loss of Roles	55	13.7	No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having enough money for retirement)	2	1.0
Loniless/Alienation	12	3.0	Total	200	100.0
None	6	1.5			
Others	7	1.7			
Total	402	100.0			
<b>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money for retirement)</b>					
Yes	205	50.4			
No	202	49.6			
Total	407	100.0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재정적 노후 준비(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는 연구 참여자의 절반(205명, 50%)만이 하고 있었다.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Reasons for not being Financially Prepared)에 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은퇴 준비 필요성 못느낌’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은 12명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해당하였고, 대부분(152명, 76%)은 ‘재정적 여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재정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205명)에게 구체적인 준비방법에 관해 추가로 질문하였고, 그 응답을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Tabel 3 참조). 노후 보장 체계(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는 전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층 모두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19명으로 5%였다. 이는 95%의 응답자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 응답자(100명, 25%)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국민 연금과 개인 준비를 함께 하는 응답자가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3.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based on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Level of Preparation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n	%
	Foundation: Basic Pension	1 <sup>st</sup> Layer: National Pension	2 <sup>nd</sup> Layer: Retirement Pension <sup>2</sup>	3 <sup>rd</sup> Layer: Individual Preparation <sup>3</sup>		
No Preparation	O	X	X	X	202	50.0
One Layer	O	O	X	X	52	12.9
	O	X	O	X	17	4.2
	O	X	X	O	14	3.5
	O	O	O	X	36	8.9
Two Layers	O	O	X	O	54	13.4
	O	X	O	O	10	2.5
	O	O	O	O	19	4.7
Three Layers	O	O	O	O	19	4.7
Total					404	100.0

국민 연금 가입자는 161명으로 전체에서 40%에 해당하였고, 노후 준비를 하지만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41명으로 전체에서 10%였다. 즉, 재정적 노후 준비를 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 하고 있었다.

Table 4. The Estimated Cost of Living required after Retirement and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

The Estimated Cost(Korean Won) of Living after Retirement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Attribute	n	%	Attribute	n	%
1 million or under	35	8.6	0~20%	85	20.9
about 1.5 million	80	19.7	21~40%	109	26.8
about 2 million	137	33.7	41~60%	126	31.0
about 2.5 million	85	20.9	61~80%	60	14.7
about 3 million	59	14.5	81~100%	27	6.6
3.5 million or over	11	2.7	Total	407	100.0
Total	407	100.0			

은퇴 후 필요한 예상 생활비(The Estimated Cost(Korean Won) of Living after Retirement)는 200만 원 정도(137명, 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4 참조). 다음으로 250만 원 정도(85명, 21%)와 150만 원 정도(80명, 20%) 순이었다. 예상 생활비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도를 비율로 살펴보면, 절반 수준(41-60%)이라는 응답이 126명(31%)으로 가장 많았다. 40% 이하라는 응답이 47%였고, 61% 이상이라는 응답은 20%였다. 필요한 생활비를 100% 준비 또는 100% 준비에 근접한 경우는 7%(27명)에 불과하였다.

Table 5. 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Desired Activities

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Desired Activities		
Attribute	n	%	Attribute	n	%
No need at all	6	1.5	Missionary Mentoring/Counseling	100	30.5
Need a Little	38	9.4	Missionary Training & Strategy Development	50	15.2
Need Somewhat	250	61.7	Missionary Mobilization	49	14.9
Need a Lot	111	27.4	Regional Expert	40	12.2
Total	405	100.0	Individual Church Ministry	36	11.0
			Total	328	100.0

은퇴 후 소득 활동 필요성(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에 관해서는 대부분(361명, 8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참조). 은퇴 후 희망 활동(Desired Activities)(우선 순위로 두 가지 선택)을 1순위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교사 상담 및 멘토링이 100명(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교 훈련 및 전략 수립(50명, 15%), 선교 동원가(49명, 15%) 순이었다. 즉, 선교사 은퇴 후에도 선교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었다.

재정적 노후 준비 여부(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를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결혼 여부(Marital Status)와 성별(Gender)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Age group)에 따른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12.639; 유의확률 = 0.002). 특히, 40대 이하(43%)와 50대(44%)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60대(63%)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정적 노후 준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열 명 중 약 네 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한국인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은퇴(70세 기준) 후 15년, 백세 시대를 고려한다면 은퇴(70세 기준) 후 30년의 시기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응답자가 열 명 중 네 명이라는 것이다.

Table 6.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Chi-Square (p-value)
	Yes	No	Total	
Age Group				
40s or under	39 (43.3)	51 (56.7)	90 (100.0)	12.639 (0.002)
50s	79 (44.4)	99 (55.6)	178 (100.0)	
60s	87 (62.6)	52 (37.4)	139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Marital Status				
Married	176 (49.2)	182 (50.8)	358 (100.0)	1.732 (0.188)
Single	29 (59.2)	20 (40.8)	49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Gender				
Male	117 (49.0)	122 (51.0)	239 (100.0)	0.463 (0.496)
Female	88 (52.4)	80 (47.6)	168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을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결혼 여부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22.834; 유의확률 = 0.000).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이 61%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대 이하(13%)와 50대(16%)는 큰 차이가 없었다. 60대는 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60대 중에서 31%(43명)는 필요 금액의 절반 정도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35%(49명)는 필요 금액의 40% 이하로 준비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The Proportion (%)				Chi-Square (p-value)
	0-40%	41-60%	61-100%	Total	
Age Group					
40s or Under	52 (57.8)	26 (28.9)	12 (13.3)	90 (100.0)	22.834 (0.000)
50s	93 (52.2)	57 (32.0)	28 (15.7)	178 (100.0)	
60s	49 (35.3)	43 (30.9)	47 (33.8)	139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Marital Status					
Married	170 (47.5)	110 (30.7)	78 (21.8)	358 (100.0)	0.308 (0.857)
Single	24 (49.0)	16 (32.7)	9 (18.4)	49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Gender					
Male	105 (43.9)	79 (33.1)	55 (23.0)	239 (100.0)	3.240 (0.198)
Female	89 (53.0)	47 (28.0)	32 (19.0)	168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Table 8. The Old Age Security System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Security Systems Prepared (based on Three-Layer Systems)					Chi-Square (p-value)
	Not Prepared At All	Partially Prepared		Fully Prepared	Total	
		No National Pension	Yes National Pension			
Age Group						
40s or Under	51 (56.7)	6 (6.7)	30 (33.3)	3 (3.3)	90 (100.0)	14.948 (0.021)
50s	101 (57.1)	13 (7.3)	56 (31.6)	7 (4.0)	177 (100.0)	
60s	52 (37.4)	22 (15.8)	56 (40.3)	9 (6.5)	139 (100.0)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6 (100.0)	

Marital Status						
Married	184 (51.5)	34 (9.5)	123 (34.5)	16 (4.5)	357 (100.0)	
Single	20 (40.8)	7 (14.3)	19 (38.8)	3 (6.1)	49 (100.0)	2.432 (0.488)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7 (100.0)	
Gender						
Male	124 (52.1)	20 (8.4)	83 (34.9)	11 (4.6)	238 (100.0)	
Female	80 (47.6)	21 (12.5)	59 (35.1)	8 (4.8)	168 (100.0)	2.036 (0.565)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6 (100.0)	

다층 노후 보장 체계(The Old Age Security Systems)를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Table 8 참조). 다른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결혼 여부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14.948; 유의확률 = 0.02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0대 이하(57%)와 50대(57%)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0대는 3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중에서 3층을 모두 다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9명)로 아주 적은 인원이었고, 부분적(1층 또는 2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56%, 78명)를 차지하였다.

### 3. 결과 요약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인 선교사 408명의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은퇴 후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문제였다.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절반 정도의 선교사만이 재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재 재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정 부족이었다.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 준비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선교사들의 준비 비율(50%)은 기존의 일반 시민의 준비 비율(2013년 73%)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준비가 80%라는 2011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준비 비율(2018년 42%; 2021년 20%)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선교사의 은퇴 준비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은퇴 준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었고,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정 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노후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선교사의 준비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층 노후 보장체계가 필요한 현실에서 세 가지 준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준비)를 모두 하고 있는 선교사는 19명(5%)로 매우 적은 수였다. 또한 자신이 예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80% 이상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 또한 27명(7%)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은퇴 후 소득 활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없으니 결국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 준비 정도에 관해서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또는 이미 은퇴를 한 사람에게서도 소수의 인원만이 재정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부분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적 은퇴 준비 여부는 결혼 여부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60대의 선교사가 재정적 은퇴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퇴가 10년도 남지 않은 60대 선교사 중에서도 37%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에 대해 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준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0% 초과 비율이 34%에 불과하였다. 은퇴가 가까운 60대의 은퇴 준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비 여부와 준비 수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질적 연구

#### 1. 연구 방법

##### (1)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의 하나인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면담 이전 여러 학술 문헌과 인터넷 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해 질문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사회과학분야(사회복지, 상담심리) 교수 2명과 연구참여자 4명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반구조화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에선 주로 1) 자기소개 2) 대략적인 은퇴 시점 3) 전반적인 은퇴준비 현황 4) 선교사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국가/교단/교회/개인 차원 필요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면담 도중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방 질문을 이어나갔다.

연구자료수집은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전화를 통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한 후 기록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녹음과 현장 기록을 동시에 하며 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듣기를 통해 그대로 전사하여 전사 자료의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코딩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쳐 중심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김영천, 2006).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 교수와 연구참여자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한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연령대를 고려하여 편의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6번의 면담을 실시했고, 연구참여자는 8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2명, 50대 3명, 60대가 3명으로, 이 중 독신 선교사가 1명이다. 여섯 번의 인터뷰 중 두 번의 인터뷰는 부부를 섭외하여 실시하였다.

Table 9. Interviewee's Personal Characteristics

Interview	Gender	Age	Marital Status
Interview 1	Male	50s	Married
Interview 2	Female	60s	Single
Interview 3	Male & Female	50s	Married
Interview 4	Male	60s	Married
Interview 5	Male	60s	Married
Interview 6	Male & Female	40s	Married

## 2. 분석 결과

### (1) 귀국 후 한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지내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역을 종결(은퇴)하게 되면, 선교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 또한 중단될 수 있다. 먼저,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사역비와 생활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받았던 의료 혜택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받

지 못할 수 있다.

일부러 완전히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멈추지 않는 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선교사들은 (한국에) 계속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외선교부로 질문이 와요. 이 사람(선교사)을 계속 후원해야 하는가? 계속 한국에 있는데 선교사냐 이거죠. (인터뷰 2)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선교사 할인을 받을 때는 보통 파송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3)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병원도 본부지원도. 본부 지원은 all stop (모두 중지) 됩니다. (인터뷰 5)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 신분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선교사가 무직자로 해외 장기거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번에 와서 놀란 것이 제가 신용등급이 제일 아래쪽이었어요. 한국에서 했던 것이 없으니까, 아무 기록도 없고 ...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야 하는 지역이어서 완전히 무직자에 실업자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인터뷰 1).

또한 대부분의 선교사는 국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겠지만, 노령으로 인한 은퇴 준비를 위한 국민 연금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선교사는 또한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비자발적 실업을 대비한 고용 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파송교회에서 파송할 때 조건이 4대 보험 안되고,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조건이었어요. (인터뷰 1)

4대 보험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이나 보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 2)

우리가 알아서 이제 국민연금을 넣는 다던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 3)

그런 영역(연금 준비)은 말하기도 힘들지만,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서요. 그것이 (교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 6)

은퇴 후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선교사들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부터 현재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한 친구는 북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인터뷰2)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 못 받아 봤어요. 지난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는 거 그것만 한 번 받아봤고. 잘 모르겠네?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인터뷰1).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달라진 한국의 생활양식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흔히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과거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고, 연령대가 높은 선교사의 경우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선교지에서만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한 선교사는 “한국은 말이 통하는 낯선 나라”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마치 새로운 나라처럼 적응하기 힘든 선교사들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한국의 공공(또는 정부)시스템은 선교사의 삶의 특성을 세세하게 반영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선교사의 생활은 한국에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이 없으면/적으면 한국에서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는 언급에) 잘 모르겠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한국(정부)은 몰라. 이제 면사무소(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알아봐도 그런 케이스(선교사 상황)들이 그곳에는 없었거든 (인터뷰 1)

동사무소나 국세청 여기서 편지가 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이름도 바뀌었지요. 그런 것도 혼란스럽고요. 다 한국말인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겪은 어려움들이예요. (인터뷰 2)

옛날에 사람들이 다 해 주던 것을 이제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기계에다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니까. 노인들은 따라하기 정말 힘들죠. (인터뷰 2)

선교지에 있을 때 운전면허 재발급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한국에서도 한두 시간 걸리겠다 해서 기다리는데, 금방 제가 창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 것도 충격이었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인터뷰 2)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은 말이 통하는 낯선 나라입니다.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4)

## (2) 은퇴 준비 인식

은퇴 준비에 대한 선교사의 인식은 사람마다 달랐다. 젊은 선교사들은 은퇴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였지만, 곧 은퇴를 앞둔 선교사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은퇴 준비에 대해 '해라',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보여주었다.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은퇴 준비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은퇴 준비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선교사가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교회와 선교사 모두에게 있었다.

저는 지금은 50세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께 '은퇴 준비해라. 얼마가 되었든 저금해라. 교회가 절대 안 도와준다. (중략) 해외에서 일하던 선교사를 돌봐 줄 교회가 없다' (인터뷰 2)

선교사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을 해야 한다. (인터뷰 4)

선교사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있는 동안 집을 장만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가 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집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더 나오고, 계속 또 빚으로 사야 되니까. 그게 그거다 싶어서 우리는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은퇴 후에는 그저 부딪혀요.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인터뷰 5)

은퇴 준비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은퇴 준비하면 앞으로 나가기 힘든데... (인터뷰 6)

최근에 보는 것은 어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비량 선교사. 선교사가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6)

### (3) 은퇴 준비 현황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현황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교사별로 준비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준비가 전혀 없는 선교사도 있었고, 교단의 준비(퇴직 적립금, 은퇴 연금, 또는 국민 연금 가입)로 인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선교사도 있었다. 특히, 교단 본부 소속 선교사에게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모든 선교사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교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만으로는 한국에서 은퇴 후 평균 적정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교단 자체에서 국민 연금 가입을 시작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선교사는 매월 연금액을 내지 못해 해약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연금이나 이런 건 넣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인터뷰 1)

(은퇴 준비에 대해) 아...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좀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준비하는 것이 거의 없죠. ... 총회선교부에 은급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은급을 들어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회선교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상황이고요. (총회선교사 소속이 아닌 현재의) 저희는 상관없고. (인터뷰 3)

그런데 저희는 개교회 파송이기도 하고 아직 저희는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고요. (인터뷰 6)

(교단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직 적립금이라고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 최고참 선교

사가 은퇴할 때 한 5천여만 원 될 겁니다. (인터뷰 4)

교단에서 은급금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나오는데. 벌써 23년째 들고 있어요. ... 지금은 나이가 늘어나고 수령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수령 액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인터뷰 5)

여기 \*\*교단은 초창기 회장님이 국민 연금을 들어놓아서. 제가 61살이 되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인터뷰 2)

(연금) 이게 또 어려운 친구들은 해약해버렸어요. 해약하고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죠. (선교사가) 해약한다고 하면 (본부에서) 해약 못 하게 막아놓았어야 한다고. 연금을 받는 것은 머나먼 얘기였는데, 지금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터뷰 2)

#### (4) 해결 방안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관한 해결책은 일차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연금 가입을 포함한 교단 또는 선교 단체에서의 은퇴 준비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선교사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곧 은퇴를 앞둔 선교사에 대한 방안으로,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공동주택을 지어 게스트 유닛을 만들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디 너무 시골도 아닌 곳에다가 공동 주택 만들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지만, 누가 나서야죠. 컨테이너라도 게스트 유닛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고... (인터뷰 2)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더라고요. 같이 농사나 어떤 자립하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 각자 배워서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뷰 6)

초교과적인 연금 조합 구성 또한 언급되었다. 이는 각 교단이나 교회, 단체를 넘어 선교사 은퇴 준비를 돕는 초교과적인 기구를 만들어 개별 교단 수준에서 준비가 어렵다면 교단 연합으로 준비하



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선교사 연금조합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 단체별로는 그것을 하긴 힘들고,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은퇴 준비가 되지 않는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인터뷰 3)

은퇴 후 선교지에서 사역을 지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역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선교사가 사역했던 지역의 언어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해에 우즈벡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즈벡 커뮤니티 사역하는 분도 있고요. 사하라에서 온 분은 강남에 러시아말 쓰는 분이 많아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 국내지부라고 해요.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하는 것인데, 자기가 섬기던 민족 그렇게 하고(한국에서 섬기고 있다). (인터뷰 2)

선교사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기획을 해야 한다. 그 기획이 은퇴하고 난 뒤에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은퇴하고 난 뒤에 현장을 지켜라. (중략) 지금은 은퇴 이후에 한 15년 동안은 여유가 있는데, 그 15년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터뷰 4)

### 3. 결과 요약

이번 연구를 위한 여섯 번의 인터뷰에 참여한 8명의 선교사의 답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선교사에게 은퇴를 포함하여 선교지를 떠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입(선교 후원금)의 중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선교사 은퇴를 하면 현직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용 혜택 또한 중단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고용보험이 보호하는 비자발적 실업(추방 또는 선교지의 비우호적인 상황)에 따른 수입 중단 또는 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없어 선교 활동 중 부상 또는 건강의 손상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국민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 이러한 위험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 보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단과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장기간 해외 선교사로 사역 후 은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은퇴 준비는 필수적이어서 적은 금액이어도 해야만 한다는 의견과 아직 은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은퇴 준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은퇴 준비에 대한 현황 또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은퇴를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은퇴 준비에 대한 해결책 또는 은퇴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는 의견은 세 가지였다: (1)은퇴 선교사들이 모여 자립하는 공동체를 구성, (2)초교과적 연금 조합을 구성, (3)사역의 연장(은퇴 후지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지속하는 것과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에 참여).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 또한 선교사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불가능하고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IV. 결론 및 논의

상당수 선교사들은 은퇴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과 함께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은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은퇴가 얼마남지 않은 60대 선교사들의 경우 노후 준비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후를 위한 다층적인 준비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의 은퇴 후 생활의 어려움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선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408명의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8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6번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선교사 은퇴 준비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인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선교사 은퇴 준비 현황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선교사 규

모에 비해 적은 수가 참여한 것으로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조사 참여자를 구성하여 그 필요와 규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문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선교사 개인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별, 가구별, 교단별로도 자료를 수집하여 은퇴 후 생활을 위한 필요 항목과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개입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이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선교사들이 은퇴 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개인적인 여력의 부족이었다. 즉 현재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20년-30년 후의 은퇴 생활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장의 사역을 위한 재정조차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 현재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교사도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이해함을 통해 지금 준비를 시작,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소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노후를 위한 다층 구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단/교회 또는 선교 단체 또한 기관 차원에서 선교사 노후 준비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외국 선교회의 경우 많은 경우 장기 선교사들을 선교회 자체 연금 재단이나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할 뿐 아니라 선교사가 자신의 후원금에서 일정 비율을(예를 들어 매달 5~10%), 그리고 선교회에서 일정 비율의 은급비를 납입하여 노후 연금을 마련하거나(조장연, 2005), 은퇴기금을 건정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선교사들의 노후를 돕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신기황, 2016). 무엇보다 이것을 각 교단/교회 또는 각 선교 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 선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층 노후 보장의 1층(국민연금)과 2층(퇴직연금) 마련을 위한 공동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선교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 부족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공동의 준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시작(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연금 가입(또는 유지)을 위해 절반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교단 또는 단체 차원의 퇴직 연금 또한 적극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등 이미 노후 준비가 늦은 경우를 위해서는 은퇴 후 선교사가 생활할 수 있는 선교사 공동체(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를 준비, 시작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직면해야 하는 경제적 현실은 빈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파송 교회가 선교사의 은퇴 후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선교사 파송 기간 동안에도 사회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은퇴 후 지원은 더욱 힘들 것이다. 개별 교단에서 단기간에 적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초교단/초교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은퇴 후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한 초교파적인 논의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은퇴 후 삶에 대한 대책은 연령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은퇴를 하게 될 선교사에게 국민연금 가입은 실제적인 가능성이 없고, 연금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65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30대와 40대를 위한 은퇴 준비와 60대를 위한 은퇴 준비는 달라야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은퇴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은퇴 준비가 부족한 선교사는 결국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은퇴 후 선교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일과 돈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은 선교사의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의 유무형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한국 교회에 또한 필요하다. 은퇴 후 선교사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유의미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선교사 개인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함께 상호 이익(win-win)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역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아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은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지 상황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선교사가 은퇴 후 한국에서 이러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선교사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은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닌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노후준비는 개별 선교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을 개인적 위험(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위험(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별 선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교회/교단/선교 단체의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인식 또한 변해야 한다. 인식 변화 캠페인과 함께 선교사에게는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별히, 개별 선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선교사에게 선교 준비를 하는 기간에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을 활용하여 선교지에서 재정 관리와 함께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

조하고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는 혼합 방식의 연구 접근을 통해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대한 현황과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정 준비 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선교사의 총 인원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전체 선교사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은퇴 준비는 개인적 영역과 함께 가구 단위의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만을 분석 단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이번 연구에서 부부가 따로 참여함으로 한 가구의 특성에서 동일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간과하여 과대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에 따른 노후 준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같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은퇴 준비로는 선교사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선교사 개인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곽민주·이희숙 (2015). 재무적 요인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 [Kwak, M. J. and Lee, H. S. (2015).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 김연화·황종규 (2017).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5(2), 189-204.
- [Kim, Y. H. and Hwang J. G.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Aging for Each generation. *Korea Real Estate Society*, 35(2), 189-204.]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Kim, Y. C. (200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MunEumSa.]
- 김은미 (2004). 선교사의 스트레스와 해결방안. *신학정론*, 22(2), 619-640.
- [Kim, E. M. (2004). Stress of Missionaries and Solution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2(2), 619-640.]
- 김충환 (2020). 선교사의 은퇴준비에 대한 고찰: HIS 소속 선교사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39(1), 407-444.
- [Kim, C. H. (2020). A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missionaries: focusing on missionaries of HI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9(1), 407-444.]
- 보험연구원 (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from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19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6). *Aging and retirement preparation 2016*. from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190>]
- 성지미·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Sung, J. M. and An, J. Y. (2011). A study of retirees' satisfaction on retirement.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29(2), 175-212.]
- 손판도·김진곤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다층보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631-670.
- [Son, P. D. and Kim, J. G. (2016). Determinant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cusing on the baby boomer.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Academic Contest*, 631-670.]
- 송기영 (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 연구*, 73(1), 269-503.
- [Song, G. Y. (2018).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73(1), 269-503.]
- 신기황(2016). “방콕포럼 2014-8: 사역자와 은퇴: 미 남침례회 은퇴 프로그램의 소개 및 제안”, 미션 파트너스 (2016.12.8.). Retrived from <https://bit.ly/3MjIQsj>
- [Sin G. H. (2016). “Bangkok forum 2014-8: Ministry and retirement: introduction and proposal of the retirement program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ission Partners (2016.12.8.). Retrived from <https://bit.ly/3MjIQsj>]
- 신계수·조성숙 (2011). 베이비붐세대의 직업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 실태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4), 41-50.
- [Sin, G. S. and Cho, S. S. (2011). Analysis on Baby-boomers’ Job Satisfaction and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4), 41-50.]
- 안서연·임란·왕승현·이은영 (2020).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 8차(2019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 [An, S. Y., Lym, L., Wang, S. H. & Lee, E. Y. (2020). *Economic life and retirement preparation of middle and old people: 8<sup>th</sup>(2019) basic analysis report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National Pension Service.]
- 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Yeo. Y. G., Jeong, S. H. and Mun, S. J. (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10(3), 129-155.]
- 우해봉·한정림 (2015).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299-329.
- [Woo, H. B. and Han, J. L. (2015).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Providing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5(1), 299-329.]
- 윤은혜 (2019). **선교사 은퇴 이후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 [Yun, E. H. (2018). *A study on welfare measures after the retirement of missionarie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이계승·김동하 (2017).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4), 157-185.
- [Lee, G. S. and Kim, D. H. (2017). A Study o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48(4), 157-185.]
- 이여봉 (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4(1), 32-71.
- [Lee, Y. B. (2012). Middle-aged Women's Preparation for the Old Age. *Family and culture*, 24(1), 32-71.]
- 이재풍·이지모 (2020).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전국상담복지학회**, 4, 169-201.
- [Lee, J. P. and Lee, J. M. (2020). The effect of Semi-Elderly Preparation for Retirement on Successful Aging. *National Counseling Welfare Academy*, 4, 169-201.]
- 이화정·강석복 (2012). 설문조사에서의 무응답 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6), 1183-1194.
- [Lee, H. J. and Kang, S. B. (2012). Handling the nonresponse in sampl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6), 1183-1194.]
- 이혜리 (2022). “한국 노인 빈곤율 처음 30%대로 하락 그래도 OECD 최고 수준”, 경향신문 (2022.3.8). Retrived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080801001>
- [Lee, H. L. (2022). “Korea's poverty rate for senior citizens falls to 30% for the first time, but it is still the highest in the OECD”, The Kyunghyang Shinmun (2022.3.8). Retrived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080801001>
- 장은하 (2014).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Jang, E. H.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Preparing Senior Life to the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comparing seniors using social welfare center with seniors do not*. Masters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정지영·양세정 (201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113-127.
- [Jeong, J. Y. and Yang, S. J. (2013). Comparing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1), 113-127.]
- 조장연 (2005). 현대 한국선교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 **한국선교신학회**, 10, 111-138.
- [Joo, J. Y. (200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Korean missions movement: a historical analysis.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10, 111-138.]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조혜진 (2012).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13(3), 63-87.
- [Choi, H. J., Choo, S. H., Kim, M. J. & Cho, H. J. (2012).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of Korea. Survey research*, 13(3), 63-87.]

-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Retri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
- [Statistics Korea. (2021).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Results for 2021”, Retri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
- 한겨레·김교성 (2020).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과 성별 차이. **한국사회보장학회**, 35(1), 151-179.
- [Han, G. L. and Kim, G. S. (2020). Type of individual establishment in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gender differenc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5(1), 151-179.]
- 한국선교연구원 (2020). “2020 한국선교현황”, Retrived from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2020). “2020 Korean missionary status”, Retrived from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2018). **선교사은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Korean World Missionary Care Foundation (2018).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retirement of missionaries.*]
- 황길주·정명희 (2021).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 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한국문화산업학회**, 21(3), 171-179.
- [Hwang, G. J. and Jeong, M. H. (2021). The Effects of the Elderly Age Preparation in Successful Ag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21(3), 171-179.]
- 황윤일 (2011). 선교사 은퇴 후 복지 문제, **선교와 신학**, 28, 189-220.
- [Hwang, Y. I. (2011). A Study of Post-Retirement Plans for P.C.K. Missionaries. *Theology of Mission*, 28, 189-220]
- Denzin, N. K. (2017).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Transaction publisher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Rubin, A. & Babbie, E. (2016). *Essential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Boston.

#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강 병 덕 (한동대학교/교신저자)

조 성 봉 (한동대학교)

정 예 은 (한동대학교)

손 해 인 (한동대학교)

### 논문초록

국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 다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소속 교단, 선교단체가 은퇴 준비를 돕거나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선교사역 은퇴 후 생활은 각 개인이 알아서 감당, 감내해야 할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많은 선교사들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든 상황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및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선교사들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 질적 연구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 양적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결혼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의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 및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수집된 질적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귀국 후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어려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그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 후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교사들 및 한국교회가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인선교사, 은퇴 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은퇴 후 생활, 노인빈곤



## 문화명령과 선교로서의 과테말라 교육 실천 사례 연구\*

### Practices Case Study of Cultural Mandate and Education a Mission in Guatemala

박영철 (Young Chul Park)\*\*  
홍진근 (Jin Keun Hong)\*\*\*

#### ABSTRACT

With the unprecedented spread of Covid-19, education has particularly been hit hard and education is the first service halted.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countries. And it has been a key tool of missions from the early days of modern Protestant missionary history including the Chosun dynasty to now.

It is apparent that God created humankind with creative ability, an ability that can be used to produce art, music, literature, and technology. In fact, our technological creativity might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we ourselve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 Creator. Science and technology must be taught and accompanied by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to educate the right values. Guatemala and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ve very low Internet speed and bi-directional communication channels are not available due to digital divide and Internet networking problems.

This paper introduces education as a mission(EAM) which is a part of God's cultural mandate. The goal is to teach students in Guatemala th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eed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 IR) and to nurture Christian leaders by teaching them a Christian worldview lecture that produced very positive results. For social services, we are developing a solar electric lamp system 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are preparing 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proposal for the construction of a high-speed Internet network in Guatemala.

\* 2022년 5월 18일 접수, 6월 15일 최종수정, 6월 15일 게재확정

\*\* Centro Universitario del Norte(CUNOR) University, Guatemala 파견교수, USAC-CUNOR Km 210.5 carreta CA-14 Finca Sachamach, cob n, Alta Verapaz, Guatemala(zip code: 16001) ycpark@bu.ac.kr

\*\*\* 백석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소장/첨단 IT공학부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백석대학교 본부동 716호 jkhong@bu.ac.kr



ICT training, which can have a direct impact on future industries, will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ir countries and society.

**Key words :** Covid-19, education as a mission(EAM), cultural mandat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4 IR), ICT

## I. 코로나19와 교육 환경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미크론 변형(B.1.1.529)에 이어 전파력이 더욱 강력한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형)까지 나와서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2022년 3월 9일 UNESCO는 코로나19가 교육 격차를 증가시켰으며,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에 의한 불평등을 지적하였다(Avanesian 2021).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간 실시간(real time), 오류 없는(error free) 양방향(bi-directional)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한다(Turnbull and Jo, 2020: 1-7). 즉, 고속통신이 가능한 5G(세대) 양방향 통신 기술과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지만, 과테말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통신망 문제로 원활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도상국인 과테말라의 ICT 교육 사례와 교육을 통한 선교를 기술하였다. 과테말라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들이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였던 것을 거울삼아 과테말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를 진행 중으로 이를 간단히 소개한다.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조선 후기 선교사에 의한 교육과 일본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III 장에서 교육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문화명령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IV 장에서 실제 교육 선교 현장인 과테말라 교육선교 적용사례를 살펴본 후, V 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 II. 조선 후기 선교사에 의한 교육과 일본의 교육정책

미국 시카고 북음주의 신학대학원 테드 워드(Ted Ward) 교수는 “근대 개신교 선교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선교에 매우 중요한 복음 전파의 도구이며, 따라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 해왔다”라고 기술한다(Ward, 1994: 61). 이 사실은 초기 조선 선교에도 적용된다. 조미 수호통상 조약(1882년)이 체결되고, 다음 해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는 굳게 닫혀 있던 조선에 교육과 의료로 선교의 빚장 문을 열었다. “미국 북 장로교의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북 감리교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는 복음 전파의 방안으로써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교육”을 실시한 것이 교육 선교의 좋은 사례일 것이다(박용규, 2004: 547-548).

조선이 일본에 의해 1910년부터 식민 통치를 당한 36년 기간 중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감행하며, “대학 또는 전문학교 같은 고등교육 기관은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신용하, 1996: 6-7; 김종욱,

2005: 10).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한 것이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초 교파적, 초 신앙적, 비 무장, 비폭력 운동”으로써 기독교적 평화와 정의에 입각한 3·1운동은 독립운동의 결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일관되게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으며, 일제는 민족적 저항을 방지하려고 “2차 조선교육령”(1922년 2월 6일)을 발표하였고,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조선인의 상급학교 교육 기회”를 억제하였고, “식민지화를 위하여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다(손은실, 2019: 273-314; Paik, 1971: 1832-1910).

전호진은 선교를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 즉, 교육, 의료, 개발, 구제 사업 등 모든 교회의 봉사활동”으로 정의하였다(Coram deo, 2015).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가 1785년에 회심했을 때 존 뉴턴(John Newton)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조언(Jung 2012)을 받고 윌버포스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주로 실천하였다면, 윌버포스는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청지기모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강상우 2017). 강상우는 문화명령에 근거한 모형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 목적을 문화명령인 ‘청지기로 살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선택한 사마리아인 모형(S R Model)을 제안하였고, 그 방법으로 교육(didache, διδαχή?), 나눔(koinonia, κοινωνία), 봉사 또는 섬김(diakonia, διακονεω)으로 소개하며 문화명령에 근거한 모형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기술하였다. 잃어버린 영혼도 있지만 잃어버린 세상도 있으므로 필자 역시 디다케(정현욱, 2018) 정신을 갖고 이방인을 위해 개방된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 교육을 문화명령의 한 분야로 생각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과테말라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 및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1차적으로 진행하며, 현지 선교사에게 리더 양육을 의뢰하고 있다. 쇄국정책을 주장하던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의 의료선교(박정희, 2015)를 통해 많은 한국인이 혜택을 받았고, 교육선교(김선민, 2016)에 의해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고 한국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6.25 전쟁 후 식량 원조를 받던 한국이 200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IT 교육 강화 및 연수생 초청 등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1조 1천 149억 원 예산을 편성하며 주는 나라로 바뀐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한국은 정보통신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브라질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정영인, 2021). 과테말라는 인터넷망 등의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며 관련 전문가가 매우 빈약한 국가로 판단된다. 스페인 식민지와 오랜 내전의 영향도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교육에 투자를 못 한 것이다. 국립 CUNOR 대학교에는 330명의 교수 중 의과대학을 제외한 많은 교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은 상충적 관계가 아닌 순차적 관계로 이해하며, 다음 장에서 문화 창조로서의 선교를 살펴보고, 교육으로서 선교를 인식하여 대학에서 “문화명령으로써 교육선교”(이정호, 1990: 37-44) 와 자연과학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살펴본다.

### III. 문화명령(창조 명령)

#### 1. 하나님을 향한 문화 창조로서의 선교

우리는 맡겨진 모든 일을 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청지기직을 이해한다(창 2:15). 아프리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의 1950년대와 같이 매우 가난하며 천수답/생계 농업, 영세어업,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올 4차 산업 혁명기술 시대에는 종래의 선교 개념, 즉, 지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문화(God-ward culture)”, “문화 창조로서의 선교”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케이 가트라·카묵왐바(Kgatla and Kamukwamba, 2019)가 발표한 논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문화의 창조”를 정의하며, “특정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제한하지 않고, 함께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문화명령의 한 형태”라고 기술한다. 한편 피터스(Peters, 1984)는 그의 저서에서 일반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문화를 개발”해야 하며, “하나님의 위임(mandate)이 넓은 의미로 종교, 학문, 과학 발전, 건강, 교육 및 건강관리” 등 인간의 관심과 사회적 측면 모두를 폭넓게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적 목적에 따라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한 “건전한 문화(wholesome culture)를 구축할 책임”이 있으며. 크리스천 교수는 “지식의 전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구축”하도록 가르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Kösternberger and O’Brien, 2001: 251). 문화명령(창 1:28)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전시킨 모든 행위는 문화명령 수행의 일부”로 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명령”(고전 15:27-28)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서원모, 2000) 임을 인식하여 문화 창조로서의 선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헬라 주의적 이원론에 의하면 선교는 거룩하고 사업은 세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비즈니스 선교(BAM: Business as a mission)(다니엘 정, 2012)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으로서의 선교(EAM: Education as a mission) 또한 문화명령의 실행 분야(세르게이, 2019)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자연과학과 기독교 세계관

문화명령의 한 분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되 기독교 세계관 기초 위에서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합리적인 과학적 탐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복이 되거나 또는 저주가 될 수 있음(Ecklund, 2010: 140)을 또한 인정한다. 지난 수 세기를 통해 기독교 임무는 교육, 빈곤 퇴치와 정의와의 싸움이었으며, 전도와 교회 설립과 사람들의 더 나은 것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성취를 활용하는 것 또한 기독교 과학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과학과 기술은 보건, 교육, 농업, 복지를 향상시켜 우리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하지만 반면에 자연 파괴를 초래함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인터넷 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any time, any place)” 통신이 가능하여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과 예술계의 학자들은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문화에서 현대의 동향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공학 및 수학 분야의 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부르심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공학 및 수학 분야는 성경적 세계관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의 사고를 가지고 공학 연구와 연동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로 보인다. “공학과 수학은 처음에는 도덕적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논리와 이성을 사용하여 쉽게 도출된 “제일원리(공리)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셰퍼(Francis A. Schaeffer)는 “신학은 신성하며 영적”인 반면에 공학과 수학 등의 자연과학 연구는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chaeffer, 1968).

자연과학의 지식 획득은 경험론에 근거한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진리는 경험적이며 귀납적인 것으로, 반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즉,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과학지식은 그 의미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식되는 지식은 자가 수정이 가능한 경험적 체계인 것이다.

갑톨라(Selaelo T. Kgatla)와 카묵왁바(Derek G. Kamukwamba)는 인식론적(Epistemology)으로 수학이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 “물질적 세계관이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와 논리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질적 세계관은 “상수  $e$  또는  $\pi$  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공학 설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Tuinstra, 2012).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맥스웰 방정식<sup>1)</sup> 우주의 모든 전자기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고 과학적 지식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어렵듯이 아는 것에 불가하다. 과학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운영(operating)”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수학이 현실을 설명하고 인류의 향상을 위해 놀랍게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자연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사물을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한다.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는 과학을 “자연 현상의 시험할 수 있는 설명과 예측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구성하는 증거의 사용”으로 정의한다(NAS, 2008). 이 정의는 증거가 과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연계에서 생물 진화(organic evolution)와 대폭발이론(Big Bang theory) 등의 기원과학(origins sciences) 문제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과학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 과학의 한계 및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기원과학 문제를 해석하는데 완벽할 수 없으므로 진리가 아니다(박영철 외 2015: 91-119).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세기 1장 27절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교육에도 적용 가능한 문화명령(또는 창조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의 이름을 작명할 수 있는 창조성을 주셔서(창 2:19) 문화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자연 세계와의 관계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기술한다(윤종석, 2011).

카이퍼(Abraham Kuyper)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효시인 스코틀랜드 신학자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모든 것이 지향하는 목표이다”라는 파스칼(Pascal)의 말을 인용하여 “기독교 세계관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Orr, 1988). 문경규도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기술한다(문경규, 2016). 허정완은 박사학위 논문(허정완, 2013)에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과 교회와 온 세상을 개혁”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기독교 세계관은 선교적 세계관으로 반드시 실천적이며 선교적인 적용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실제적인 복음의 실천”이라 언급한다. 이처럼 과학은 “인간이 ‘창 1:28’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역할”(조정일, 1989)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현대 기술과 공학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과

1)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은 전기와 자기의 발생, 전기장과 자기장,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의 형성을 나타내는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이다. 맥스웰 방정식은 빛 역시 전자기파의 하나임을 보여주는데, 빛이 파동이므로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이 물질을 에테르라고 함). 결국 광속 불변의 원리에 물리법칙이 지배되는 경우(로렌츠 불변)에 한해 맥스웰 방정식이 유효하다.(출처: 위키백과, 2021년 1월 26일).



성경을 깊이 연구한 모어랜드(J. P. Moreland)는 과학주의(scientism)에 대한 논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따라서 과학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Moreland, 2018; 박영철, 2008: 305-323). 주만성도 “세계관은 전 이론적(pre-theoretical)이며 선 과학적(pre-scientific)”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한다(주만성, 2011).

한편 미국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방송국의 홈페이지의 ‘믿음과 이성(Faith and reason)’ 섹션(section) ‘용어 정의(glossary)’ 항에서 “본질적으로 과학자들은 과학을 진리에 대한 절대적이고 정당한 접근으로 보는 세계관”으로 과학적 세계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PBS, 2022). 보그만(Albert Borgmann)은 “기술이 우리 삶에서 통제 패턴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예: 디지털 통신)은 인간이 먼저 “그 가치의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이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orgmann, 1987). 인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창조물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기술은 필요한 것이며, 올바르게 사용할 때 과학·기술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프(Grayson Pope)는 인간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건전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 시킬 수 있음을 기술하며 “이러한 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대의 기술이 건강에 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Pope, 2018).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서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되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동반되어야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 시대에 경제, 정치,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총체적 삶의 실천으로서 영적, 정신적, 물질적 건강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연·김태황, 2012: 43-67).

다음 장에서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과테말라에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한 분야인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진행하며,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독교)세계관 및 성경을 가르쳐서 책임 있는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하는 사역을 소개한다.

## IV. 교육을 통한 선교: 과테말라 적용사례

### 1. 4차 산업혁명과 교육 4.0

21세기에는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단일권이 되어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돌입하였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기술은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



느냐에 달려 있어서 “속도(Speed)와 지식(Knowledge)”이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백종실·박영철, 2005: 64-71). 4차 산업혁명(Figure 1(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같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블록체인(block chain), 3D 프린팅,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big data)”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핵심기술은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요구된다(Kwan, 2021).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4 IR 기술이 대규모 사회 변화를 일으킬 만큼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일련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정의했다. 이 티핑 포인트(비등점)는 4 IR 기술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고용과 교육의 엄청난 변혁을 요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4 IR에 대한 모든 교육 계획은 “하이브리드(Hybrid) 온라인 및 대면 교육의 새로운 개발”과 유비쿼터스 화상 회의 및 다양한 “비동기(asynchronous) 교육 자원의 효율적”이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과 같이 끊어짐이 없는 통신(seamless communication)과 함께 3 IR의 결과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enprase, 2018: 207-229).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틴베르겐(Jan Tinbergen)은 “기술 진보에 따른 능력의 편향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지적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완화 시키는데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Tinbergen, 1974: 217-226). 이처럼 교육은 개별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근간이며, 강력한 도구로, “지식 기반 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에서는 국가가 보유한 지식만큼이나 강한 국가가 된다. 앞으로 다가올 “4 IR은 교육과 기술간 상호 관계가 긴밀”하게 되며,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의 ‘인포스피어(infosphere)’를 형성하게 되어 교육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될 전망이다. 특별히 디지털 격차가 큰 중남미 과테말라는 정보통신 기술과 교육 시스템에 투자하여 사전에 4 IR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Patrinis, 2020; Tatnall, 2020), 산업혁명과 같이 “교육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교육 4.0<sup>2)</sup>의 특징은 “자율성(autonomy)과 목적에 의해 구동되는 평생 학습의 시스템”으로 실시간(real time) 학습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그리고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rk, 2017). 4 IR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IR 시대에는 사람과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서 ICT 소양 능력과 창의력 등의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며, 미국(예: STEM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여 차세대 인재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 교육 4.0: 4 IR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의하는 교육 4.0 이니셔티브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혁신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더 잘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네 가지 상호 개입을 통해 영향을 준다: 1. 교육 4.0 기술을 위한 새로운 측정 메커니즘 구현 2. 핵심기술이 향상된 교육 4.0 학습 경험 3. 교육 4.0 인력 강화 4. 교육 4.0 국가 수준의 표준 및 우선순위 설정(출처: Education 4.0, World economic foru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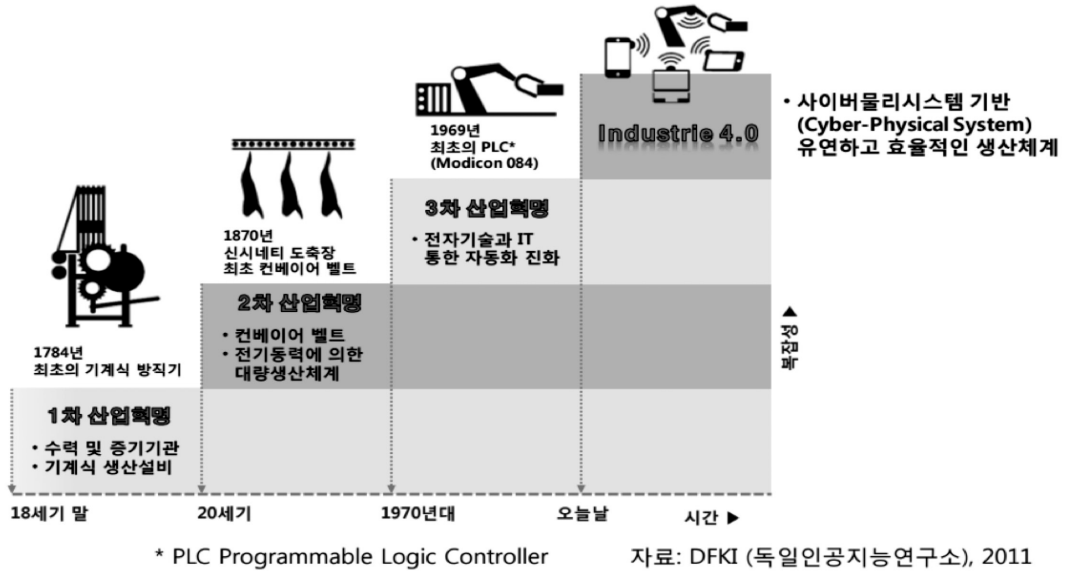


Figure 1. The historical flow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Source:(박형근, 2014) Industry 4.0, Germany's future manufacturing blueprint, POSRI Report.

과거 국력과 교육이 빈약한 조선시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육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한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한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교육과 과학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다(아시아 투데이, 2021). 교육 선교의 장점은 전문 사역이 가능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섬길 수 있으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정운태, 2021). 신성주는 그의 논문에서 4 IR 시대의 선교적 과제로 '선교 리더들의 리더십 계발과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 결국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IT 사역들을 개발, 강화해 나가야 4 IR 시대에 필요한 선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신성주, 2019). 4 IR 시대에 적합한 IT 선교는 스마트 선교(smart missions)일 것이다. 극동방송은 이미 이러한 사역을 해왔고, SAT-7(sat7.org), jesus.net 등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4 IR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디지털 사역(Digital ministry)이 필요하며 과테말라 CUNOR 대학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대학원 설립을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준비함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 절에 기술한다.

## 2.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와 개발 도상국

유엔개발 계획(UNDP)은 2016년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sup>3)</sup>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17개 목표 중 네 번째 목표인 “교육목표(SDG 4)에서 2030년까지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보장을 위하여 지속 가능 개발 교육목표로 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직업기술 교육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개발 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준별 유형화 분석을 하였는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가 채택한 2018-2020년 기준 개발 협력 수혜국 62개국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수준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유형 1(n=33)에 속하는 과테말라는 “국내 고등교육과정 진학률이 현저하게 낮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NESCO에서 분류한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8(박사급) 수준의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1.33%, ISCED 7(석사급) 수준의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11.08%”이며, “고등교육 정부 지출액 0.80%”로 과테말라는 타 라틴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안해정, 2019-20: 75-85).

기동성, 초연결, 초지능화, 융합화, 컴퓨터가 사물에 삽입(embedded)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오은순·김윤희 2019)을 전통적인 교육으로서는 충족할 수 없으며 특별히 낙후된 개발 도상국에서는 4IR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위하여 ICT 기술교육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통신망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교육시설과 교수 전문인력이 부족한 과테말라 국립 CUNOR 대학에서 ICT를 활용하여 4IR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산업현장의 ICT 기술교육”(정백, 2016: 9-33)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총체적 선교로서 또한 문화명령의 한 분야로 정보통신을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 및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테말라 청년들이 전문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과테말라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의 유익이 되는 기독교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 확대 및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인해 개도국 ICT 발전 지원의 시급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OICA는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 보고서에서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도모,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교육 주체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governance)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KOICA, 2021).

3)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유엔개발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빈곤 감소,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와 평화구축, 재난 위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유엔 총회의 하부 조직으로 SDGs는 2016-2030년까지 UNDP의 정책과 자금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SDGs 목표를 제시하였다(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goals>).

### 3. 과테말라 ICT 교육을 통한 선교

웨슬레가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에 순종했다면 윌버포스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에 순종하였다(강상우, 2017). 지상명령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역이라면, 문화명령은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사역이다. 지상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을 둔다면, 문화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실천 대상은 2019년 9월 과테말라 산카를로스 국립대학<sup>4)</sup>의 북부 지역 분교인 CUNOR 대학(University Center of the North; 총장 Mr. Erwin Gonzalo Eskenasy Morales)이고, 교육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3년간 파송되었다. 과테말라는 인구는 약 1,758만 명, 마야 원주민은 약 42%로 전기 및 수도가 없는 산에 주로 거주한다. 약 7.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며, 1인당 GNP는 \$4,610(2019 기준)이며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는 29%, 컴퓨터 보유 인구는 21%에 불과하다. “인구 대비 디지털 기술 능력(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은 142개국 중 125위”로 통신 인프라 및 산업 기술 능력이 매우 빈약하다(Schwab, 2019). 2019년 Speed-test Global Index에 의하면 과테말라의 인터넷 속도(고정 광대역)는 “하향 11.75Mbps, 상향 5.80 Mbps”로 175개국 중 144위(2019년 기준)이다. 참고로 필자가 소속된 CUNOR 국립대학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잘 안되는 실정에 있다. 또한 UN-ITU에서 정의한 “정보통신 기술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2017)는 과테말라 3.35로 176개국 중 125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 2020)는 35.5”로 134개국 중 106위이다(Dutta & Lanvi, 2019).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 개발 도상 국가의 기업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매우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CUNOR 대학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몇십 년 정도의 (정보) 기술 격차를 추격하는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곧바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 도상국의 무역과 지역 통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여 국가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 확대 및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인해 과테말라 ICT 발전 지원의 시급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낙후된 과테말라의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발전을 꾀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교육 선교의 현장인 과테말라 CUNOR 대학에서 ICT 사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4) University of San Carlos of Guatemala(USAC): 스페인 점령 시 1,676년 설립되었으며, 전교생 153,000명, 교수 3,000명으로 총 20개의 college 분교가 있다. 분교인 CUNOR 국립대학교는 전교생 3,500명, 교수 330명으로 꼬방 시(수도에서 212km 거리)에 위치한다(편집자 주).

### (1) 세미나 및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제안서 작성

첫 학기에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KOICA 및 NRF 소개(Introducción de KOICA y NRF en Corea),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 제안서 제출 방안(Ejemplos de otros países y cómo hacer una propuesta), 과테말라 인터넷 현황(Estado de Internet en Guatemala), 4차 산업 혁명(4ta revolución industrial)을 통하여 과테말라의 현 기술 수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매월 총장, 각 학부장 및 이사가 참여하는 월례 회의를 시행하고 회의록(Actas de Reuniones)을 작성하여 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과테말라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총장 직속으로 Task force(TF) 팀(교수 8명)을 구성하여 현재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제안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 (2) ICT 교육 및 적정기술 활용한 태양광 전등

CUNOR 국립대학에서 정보통신 관련 과목과 공업 영어 과목을 가르침으로 접촉점이 형성될 수 있었다. 수강생 중에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7명을 양육하며 비전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둘세와는 일대일 양육을 하며 리더로 세우고 있다. 대학 내에 정보통신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통신(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보안, 4 IR)을 강의하며, 대학 내에 실험 계층 장비가 없으므로 시스코사의 Packet tracer를 이용하여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경로 선정 프로토콜 및 제2 계층(데이터링크 계층)의 기능들을 네트워크 모의시험(network simulation) 하도록 교육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교육하였으며, 그 결과 Tigo, Claro, Telefonica 등의 통신 업체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서 정보통신학과 및 산업공학과 졸업생 15명이 2021년도에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그들 중 11명은 현재 온라인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 중 체계적인 양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협력 선교사(김성남)에게 연결해 주고 있다.

한편 산업공학과와 협력하여 태양광 전등을 시험 제작하여 전기가 없는 카탈차 마야 원주민 가구에 시범 설치/운영하였다. 태양광 전등 시스템은 미국 시장에서 약 80,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나, 적정기술(adequate technology)을 활용하여 현지 기술과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지 환경에 맞는 매우 경제적인(약 30,000원 예상) 태양광 전등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W 태양광 패널(solar cell)과 차량용 배터리를 구매하여 컨버터(converter) 및 스위치를 조합하여 실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Figure 2는 산업공학과 학생들과 제작한 태양광 전기 구성도이며, Figure 3은 태양광 전기 컨트롤러로 10암페어가 출력되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Figure 4는 설치 및 원주민 집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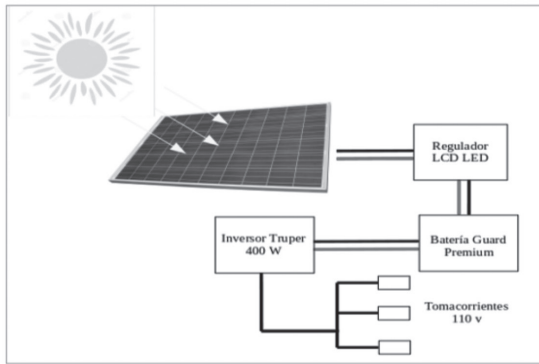


Figure 2. Block diagram of Solar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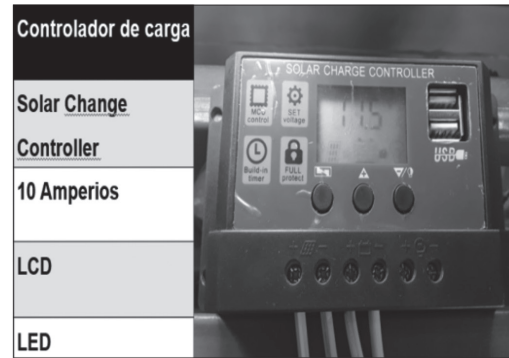


Figure 3. Solar light Charge Controller

착된 스위치이다. 우기에도 약 일주일 정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차량용 배터리를 축전지로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극빈곤층의 비율이 약 42% 정도인 마야 원주민(전기와 수도가 없는 높은 산에 거주) 많은 가구에 전기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아코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대사회적인 봉사’임을 인식하여, 현지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Figure 4. Solar light installation and the switch

현재 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일시 귀국한 상태로 CUNOR 대학교수들에게 밴드(Band) 앱을 통해 단방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2021년 ‘UNESCO Science Report: The race against time for smarter development’를 활용하여 총장 직속 task force(TF) 팀과 함께 중남미 국가의 발전

방향과 과테말라의 전략적 육성 과제 발굴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ICT 전문인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 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대학 이사진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다.

### (3) 세계관 교육

앞서 기술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은 선교적 세계관이자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삶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CUNOR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대학 측에 ‘Worldview in English’ 과목 개설 요청하여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세계관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대폭발이론, 지적설계 이론 등을 강의 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강의 시작 시 행한 설문을 강의 종료 시에 같이 적용한 결과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4개 문항에 대해 수강 전후의 양상이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①번 문항, 대폭발이론을 믿느냐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함’ 합계 비율이 90%에서 63%로 감소하였으며, ②번 문항,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믿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함’ 합계 비율이 80%에서 69%로 감소하였고, ‘매우 동의함과 어느 정도 동의함’ 합계 비율이 12%에서 28%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Survey of worldview related 4 questions on the 1st and the last day of the class (38 students)

Contents Contenido	very strongly disagree muy en desacuerdo	slightly disagree ligeramente en desacuerdo	I don't know No sé	slightly agree ligeramente de acuerdo	very strongly agree muy de acuerdo
① I believe in the Big Bang theory Yo creo en la teoría del Big Bang	12%(5%)	10%(5%)	15%(10%)	30%(21%)	33%(59%)
② I believe evolution due to natural processes Creo que la evolución se debe a procesos naturales.	18%(7%)	10%(5%)	3%(8%)	16%(19%)	53%(61%)
③ I believe in God Creo en Dios	4%(4%)	6%(7%)	5%(6%)	23%(21%)	62%(62%)
④ I believe in Intelligent Design(ID) Creo en el Diseño Inteligente(DI)	3%(7%)	4%(6%)	4%(7%)	26%(20%)	63%(60%)

Note: 강의 마지막 날 %(강의 첫째 날 %), 수강생 38명 전원 응답하였으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백분율임.



한편 ③번 문항, 하나님을 믿는가에 관한 질문은 수업 전후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가톨릭 인구가 약 61.5%로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④번 문항, 지적설계 이론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수업 전 ‘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함’ 합계 비율이 80%에서 수업 후 89%로 상향되었고, 부정적인 응답은 13%에서 7%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적 설계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으나 수강 후 지적 설계자(하나님)가 세상을 설계하였다는 설계 논리를 배우고 지적 설계자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된다. 첫 수업이었지만 세계관 수업을 통하여 필자가 의도한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4)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경 공부 및 사회봉사

4 IR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선교(smart missions)가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선교의 좋은 모델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기독교 미디어를 제공하는 SAT-7(sat7.org), 8개 국어로 미디어를 지원하는 jesus.net, 한국의 극동방송 등이 있으며, 과테말라의 기독교 청년들에게 ICT 교육과 선교 전략연구 수행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 소양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 스페인어권 중남미의 선교를 꿈꾸어 본다.

CUNOR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인터넷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선교팀의 후원으로 대학 정문 옆에 인터넷 카페를 건축(2층)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현재 통역을 도와주는 둘세(Dulce)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터넷 및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필자가 주말 성경 공부 및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하였으며, 현재는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검진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제공하며 안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말에 이 시설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목사(Vicky)를 초청하여 영어/스페인어 설교하며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꼬방 시의 국립 병원과 김박사와 협력하여 원격진료 사업을 위한 CPS 제안서를 내년에 작성할 계획이 있다. 한편 낙후된 케찰 데낭고 지역(학생 대부분이 고아)에 꼬방 시에서 Hope 중 고등학교를 건축하였는데 데이터 통신 과목 수강생 중 3명이 이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계관 과목 수강생들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시행하여 전도와 양육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동역자 Joseph Kim 박사(축산 전공)와 둘세(축산학과 졸업생)와 축산학과 학생들과 함께 ‘염소 키우는 사역(Goat mission)’을 지원하여 염소 우유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및 디지털 선교는 비록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지만, 젊은 ‘디지털 세대’에게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백종실·박영철, 2005: 64-71). 대부분의 라틴 국가 교육의 시스템은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 범

죄와 정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전문 기술을 갖춘 차세대 청년들의 교육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의료선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과테말라의 선교는 청년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세우고,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올바른 지도자를 양육하여 중남미의 선교에 이바지할 선교 동원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더 피어슨(Arther T. Pierson)은 잃어버린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의 네 고리를 소개하며, 성령께서 끊어진 사랑의 고리를 제공하셨고, 성령의 기름 받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들의 화목의 고리로써 세계선교를 독려했다(김진우, 1994). 중남미의 인구는 약 6.54억 명(2020년 기준)으로 브라질 이외의 모든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잘 훈련된 청년들이 중남미 선교 콘텐츠를 개발하고(이영제, 2001), 이를 디지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5) 현지 선교사 협력 및 목회자 교육

과테말라는 가톨릭 국가로, 가톨릭 인구가 약 61.5%, 개신교 인구가 약 38% 정도로 최근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만 명에 달하는 과테말라 목회자 대부분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 말씀 선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많은 선교사는 목회자 훈련 교육과 교회 후원을 위한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필자와 동역하고 있는 김성남 선교사는 20년간 사역하며 교회 설립, 교도소 사역, 신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필자는 신학교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로 협력할 계획이다. 과테말라 수도에 있는 배형근 목사(높은 뜻 우리 교회)와 창조과학 세미나, 현지인 비키(Vicky) 목사(와 들세와 함께 제자 양육 사역, S 선교사와 원주민 태양 전기 설치 등 여러 선교사님과 연합하며 네트워킹하고 있다.

## V. 결론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은 조선시대 이래 한국 문화를 개방하고 20세기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성경적 관점으로 연출함으로써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위안부 등의 일본의 잔혹한 행위와 더불어 일본은 한국의 문화, 언어, 역사를 쓸어버리는 일을 벌였으며, 한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땅을 빼앗으며 잔혹한 식민 통치를 하였다(Blakemore, 2018). 이러한 아픔을 당한 많은 한국인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유는 복음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해방에 대한 해결책을 교회의 힘과 조직 능력에서 찾았을 것이다. 해방 후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교회들은 개발도상국 교회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파송 선교사 수가 28,039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2월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제는 양과 질의 균형 및 교육을 통한 선교 등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세계전문인 선교회(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sup>5)</sup>에서 교수 전문 사역 선교사로서 또한 한국연구재단(NRF)의 자문단원(TPC:Techno Peace Corps)으로 과테말라 CUNOR 대학에 파견되어 ICT 교육 및 세계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4 IR 시대에는 종래의 선교 개념, 즉, 지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문화(God-ward culture) 창조로서의 선교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고, 디지털 격차로 온라인 교육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라틴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시스템은 근로자에게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과테말라에서 4 IR 시대를 위한 핵심기술인 정보통신 기술 인재를 길러낼 목적으로 파견한 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지니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내에서 달란트를 받고 준비된 자로서 그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의 사역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되기를 소망한다.

본 연구는 선교 및 교육 대상인 개발도상국 과테말라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EAM)를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4 IR 및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를 달성키 위한 관련 세미나를 수행하며, 현재는 과테말라에 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과테말라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문화명령의 한 분야로 정보통신 및 디지털 사역을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5) 세계전문인선교회(PGM): 지역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화가 되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선교사로 훈련해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선교 단체(호성기 국제 대표)로서 전 세계 280명을 파송하였다(2021년 12월 기준).

## 참 고 문 헌

- 김종옥 (2005).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0.
- [Kim, J. O. (2005). *The endless passion of learning and teachin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oosan Donga. 10.]
- 김진우 역 (1994). **이 시대의 젊은이의 세계선교**, Roger Greenway, John Kyle, Donald McGavran (1991). *Missions Now: This Generat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Kim K. W. (1994). *Missions Now: This Generation*. Seoul: Life book. Trans. Roger Greenway, John Kyle, Donald McGavran (1991). *Missions Now: This Generation*. Michigan: Baker Pub Group]
- 박용규 (2004). **한국기독교 교회사 1**. 서울: 생명의 말씀사,
- [Park, Y. K. (2004). *Hi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 1*. Seoul: Life book]
- 서원모 역 (2000).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Holmes, A. F. (1983). *All Truth Is God's Truth*. 서울: CH 북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 [Seo W. M. (2000). *All Truth Is God's Truth*. Seoul: CH books. Christian Digest. Trans. Holmes, A. F. (1983). *All Truth Is God's Truth*. Michigan: Eerdmans Pub Co.]
- 신용하 (1996).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한국 민족 문화대백과사전**. 개정 1996년. 6-7.
- [Shin, Y. H. (1996). *Japanese Occupation period.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Rev. 1996. 6-7.]
- 안해정 (2019-20).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 개발 협력 연구(III): 고등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9-20. 75-85.
- [Ahn, H. J. (2019-20). *Research o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ction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II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19-20. 75-85.]
- 오은순·김윤희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 핵심역량과 유아교육 방향. **디지털 콘텐츠 학회지**, 20(5): 1011-1021.
- [Oh, E. S. & Kim, Y. H. (2019). The Core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and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5): 1011-1021.]
-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서울: IVP.
- [Yoon, J. S. (2011). *Worldview is a story*. Seoul: IVP. Trans. Goheen, M. W. & Bartholomew, C. G.

-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Baker Academic.]
- 이정효 (2018). 한국교회의 교육 선교적 과제2, **기독교와 교육**. 4: 37-44.
- [Lee, J. H. (2018). *Education and missionary challenges of Korean churches*. *Christianity and Education*. 4: 37-44.]
- 정백 (2016).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발전과 미디어 활용 방향에 대한 실증분석**.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1(1): 9-33.
- [Jeong, B. (2016). *Improvement of High Education Through Media Applic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Broadcasting & Arts Research Institute, 11(1): 9-33.]
- 조인래 역 (2018). **토머스 쿤의 과학철학: 쟁점과 전망**. Thomas Kuhn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Essential Tension. 서울: 소화.
- [Jo, I. R. (2018). Thomas Kuhn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Essential Tension. Seoul: Sowha. Trans. *The Essential Tension: 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조정일 (1989). **창조개념체계의 과학교육을 위한 함축들**, 기독교학문학회발표 논문집 (1989.8.10.).
- [Jo, J. I. (1989). *Implications for scientific education in the creation conception system*,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1989.8.10)]
- 김선민 (2017). **한국 초기 선교의 교육선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 [Kim S. M. (2017). *Educational missions in Korea's early missions*,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허정완 (2013).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 기초한 생명을 살리는 설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백석대학교.
- [Huh, J. W. (2013). *A sermon of life giving based on the Reformed Life Theology*. Ph.D dissertation. Seoul: Baekseok University]
- Ark, T. V. (2017). *Growing Tale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Week.
- Borgmann, A. (1987). *Technology and the Contemporary 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cklund, E. H. (2010). *Science vs. Religion: What Scientists Really Think*. Oxford University Press.
- Kösternberger, A. J. & O'Brien (2001).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Varsity Press.
- Kwan, C. (2021). *Samsung's 5G trial pushes 5.23Gbps speed onto single device*. ZDnet.
- Moreland, J. P. (2018). *Scientism and Secularism: Learning to Respond to a Dangerous*

*Ideology. Cross-way*

-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 (2008). *Science, Evolution, and Creationism*.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Medicine.
- Orr, J. (1983).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erdmans.
- Paik, L. G. (1971).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2nd ed. 1832-1910.
- Peters, G. W. (1984).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Moody Publishers.
- Schaeffer, F. A. (1968). *Escape from Reason*. Inter Varsity.
- Schwab, K.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 Tinbergen, J. (1974). *Substitution of graduate by other labor*. International Review for Social Sciences. Wiley Online Library. 27(2). 217-226.
- Turnbull, D. & Luck, J. (2019). *Learning Management Systems: An Overview*. In book:
- Ward, Ted, W. (1994). *Cross-cultural Christian Education and the Korean Mission Movement*. Torch Trinity.
- 강상우 (2017). 실천 목적에 따른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유형에 관한 소고: 성경, 교회사 그리고 현 지교회 사례 중심으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통권 24호)
- [Kang S. W. (2017). A Study on the Type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actice: Focusing on the Bible, Church History, and Local Church Cases. *2017 Spring Conference*(No. 24).]
- 김희연·김태황 (2012).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과 선교 전략적 함의. **신앙과 학문**. 17(1):43-67.
- [Kim, H. Y. & Kim T. H. Analysis of ODA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Mission Strategies, *Faith & Scholarship*. 17(1):43-67.]
- 박영철·공규석·김윤태 (2015). 대폭발 이론과 성서적 우주론. **신앙과 학문**. 20(2): 91-119.
- [Park, Y. C., Kong, K. S. & Kim, Y. T. (2015). The Big Bang Theory and The Biblical Cosmology, *Faith & Scholarship*. 20(2): 91-119.]
- 박영철 (2008). 과학주의(Scientism)와 진화론의 한계. **진리 논단**. Baekseok University. 14: 305-323.
- [Park, Y. C. (2008). Scientism and the limit of evolution theory. *Truth Study*. Baekseok University. 14: 305-323.]
- 박형근·김영훈 (2014).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 제조업 청사진**, 포스코 경영연구원보고서.
- [Park, H. K. & Kim, Y. H. (2014). *Industry 4.0, German's future production industry*. POSCO



- research report.]
- 백종실·박영철 (2005).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e-learning과 ICT 활용 학습연구. **한국산학학회** 6(1): 64-71.
- [Baik, J. S. & Park, Y. C. (2005). Study of e-learning and ICT education in the Knowledge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6(1): 64-71.]
- 손은실 (2019). 3.1운동과 개신교. **선교와 신학**. 제47집, 273-314.
- [Son, E. S. (2019). *3.1 movement and Protestantism*, Mission and Theology 47, 273-314.
- 기독신문 (2020). “선교사 파송 숫자”, 2020.01.15. KWMA 발표(검색일 2022.2.25.).
- [Christian newspaper (2020). Missionary dispatch number, KWMA,(2020.10.05.)]
- 다니엘 정 (2012). “교회여, 헬라적 이분법과 도피주의적 종말론에서 벗어나라”, Christianity daily, Feb 15, 2012.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60245/20120215>.
- [Jung Daniel (2012). Arise church, Escape from Hellenism dichotomy and Escapist eschatology. Christianity daily, Feb 15, 2012.]
- 문경규 (2016). “코람데오, 기독교 세계관”, <https://blog.daum.net/hks301/14656076>(검색일 2022.2.20.).
- [Moon, K. K. (2016). Coram deo, Christian worldview Retrieved from <https://blog.daum.net/hks301/14656076>.(2022.2.20.).
- 세르게이 (2019). “선교칼럼: 두 가지 명령, 선교와 문화”, 기독 일보 오피니언. 2019. 5. 20. Christianitydaily.com.
- [Sergei (2019). Mission column: Two types of commissions, mission and culture. Christianity Daily. Opinion. May 20, 2019. Retrieved from Christianitydaily.com.]
- Coram deo (2015). “선교론: 섬김과 선한 열매/지상명령(선교)”, <https://blog.daum.net/hks301/14655331>
- [Coram deo (2015). Missiology: Serving and good fruit/Great Commission(Mission). Retrived from <https://blog.daum.net/hks301/14655331>.]
- 아시아 투데이 (2021). “삼성전자 ‘반도체의 왕’됐다... 인텔 2위, SK 하이닉스 3위”, m.asiatoday.co.kr. (검색일 2022.06.07.).
- [Asia today (2021). Samsung electronics ‘King of semiconductor... Intel 2nd, SK Hynix 3rd. Retrieved from m.asiatoday.co.kr.(2022.06.07.)]
- Chung, Daniel In (2012). “텔사에서 쓰는 교육 칼럼, 일곱산: 문화명령”,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2월,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2년 2월 뉴스레터. <https://educhung.com/2016/11/07/%ec%9d%bc%ea%b3%b1%ec%82%b0/>

- [Chung, D. I. (2012). Education column, seven mountain, culture mandate, Christina today, Feb. 2102. LA Christian Ethics Movement, New letter, Feb. 2012. Retrieved from <https://educhung.com/2016/11/07/%ec%9d%bc%ea%b3%b1%ec%82%b0/>]
- 신성주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적 과제”, 2019. 03. 31. 코람데오 닷컴.(검색일 2022.6.14.)  
<http://www.kscoramdeo.com/>
- [Shin S. J (2019). Missional task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ramdeo.com  
Retrieved from <http://www.kscoramdeo.com/>.]
- 이영제 (2001). “21세기와 컴퓨터 선교”, 한국컴퓨터선교회. [http://kcm.kr/dic\\_view.php?nid=38369](http://kcm.kr/dic_view.php?nid=38369)(  
색일 2022.6.14.).
- [Lee Y. J. (2001). 21st century and Mission by Computer. Korea Computer Mission. Retrieved  
from [http://kcm.kr/dic\\_view.php?nid=38369](http://kcm.kr/dic_view.php?nid=38369).]
- 정영인 (2021). “IMF 韓, 코로나 여파로 브라질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등극”,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190.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190.html). 2021. 4. 21(검색일  
2022. 6. 14.)
- [Jung, Y. I (2021). IMF “South Korea became the 10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last year.  
Chosun Biz. Apr. 21, 2021. Retrieved from 2022.6.1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190.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190.html)]
- 정윤테 (2021). “교육 선교 전략”, 기독교 정보넷. [www.cjob.co.kr/mission/519](http://www.cjob.co.kr/mission/519)(검색일 2022.3.15.).
- [Jeong, Y. T. (2021). Education mission strategy. Christian information network. Retrieved from  
[www.cjob.co.kr/mission/519](http://www.cjob.co.kr/mission/519)(2022.3.15.)]
- 정현욱 (2018). “디다케(the Didache): 12 사도들의 가르침”, 한국 인터넷 신학대학, <http://www.theology.ac.kr/institute/dtdata/기독교교육/디다케.htm>(검색일 2022.6.14.)
- [Jung, H. W (2018). The Didache: 12 Apostles teaching. Korea Internet Theology, Retrieved  
from <http://www.theology.ac.kr/institute/dtdata/기독교교육/디다케.htm>(검색일  
2022.6.14.)]
- 주만성 (2011). “기독교 학문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참조 점으로서의 창조 세계”, 창조신학연구소. 11.  
[Rhttp://m.blog.naver.com/davidycho/220367702926](http://m.blog.naver.com/davidycho/220367702926).(검색일 2022.1.20.).
- [Joo, M. S. (2011). Christian World-view as a Biblical Paradigm for Christian Studies.  
Korea Institute for Creation Theology. 11. Retrieved from <http://m.blog.naver.com/davidycho/220367702926>.(2022.1.20.).
- KOICA (2021).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21-2025.
- Blakemore, Erin (2020). *How Japan Took Control of Korea*, Updated: 2020, 7.28, Original: 2018. 2.

27. Retrieved from <https://www.history.com/news/japan-colonization-korea>.
- Kgatla, Selaelo T. & Kamukwamba, Derek G. (2019). *Mission as the creation of a God-ward culture: A critical missio-logical analysis*, *Verbum et Ecclesia*, 40(1). Retrieved from <https://doi.org/10.4102/ve.v40i1.1911>.(2021.12.14.).
- Network Readiness Index(NRI)(2020) Retrieved from <https://networkreadinessindex.org/wp-content/uploads/2020/10/NRI-2020-Final-Report-October2020pdf> (2021.12.19.).
- OECD DAC(2020). <http://data.uis.unesco.org>(2022.3.11.).
- Patrinós, Harry A. (2020). *The Learning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working Papers.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596/1813-9450-9214>(2021.12.15.).
- Penprase, Bryan Edward (201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igher Education*, Springer link, [https://doi.org/10.1007/978-981-13-0194-0\\_9](https://doi.org/10.1007/978-981-13-0194-0_9). 207-229(2021.12.6.).
- Pope, Grayson (2018). *A Framework for Assessing and Applying Technology*. Retrieved from <https://graysonpope.com/2018/12/24/technology-in-the-cultural-mandate-and-the-coming-kingdom/>(2021.12.10.).
- Public Broadcasting Service(PBS)(2022). *Faith and reason*. Retrieved from <https://www.pbs.org/faithandreason/gengloss/scitism-body.html>.(2022.3.2.).
- Tatnall, Arthur (2020). *Encyclopedia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Springer Nature, 1-7. [https://citations.springernature.com/book?doi= 10.1007/978-3-030- 10576-1](https://citations.springernature.com/book?doi=10.1007/978-3-030-10576-1)(2021.12.7.).
- Tuinstra, Timothy R. (2012). *God and the Engineer: An Integration Paper*, Faculty Integration Papers, 4. Retrieved from [https://digitalcommons.cedarville.edu/faculty\\_integration\\_papers/4](https://digitalcommons.cedarville.edu/faculty_integration_papers/4) (2021.12.16.).
- UNESCO Report (2021). <https://en.unesco.org/news/new-unesco-report-calls-better-education-data-and-action-include-those-left-behind-caribbean-it>.(2022.3.16.).

# 문화명령과 선교로서 과테말라 교육 실천 사례 연구

## Practices Case Study of Cultural Mandate and Education a Mission in Guatemala

박영철 (Centro Universitario del Norte University)  
홍진근 (백석대학교)

### 논문초록

코로나19의 유례없는 확산으로 교육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고, 교육이 가장 먼저 중단된 서비스이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근대 개신교 선교 역사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핵심 도구였다.

하나님은 창조력, 곧 예술, 음악, 문학, 기술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우리의 기술적 창의성은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직접적으로 기인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은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함께 가르쳐지고 동반되어야 한다. 과테말라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낮고 정보 격차와 인터넷 네트워킹 문제로 양방향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일부인 선교로서의 교육(EAM: Education as a Mission)을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4IR)에 필요한 ICT 기술을 과테말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를 위하여 적정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전등을 개발 중이며, 과테말라의 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 전략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미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CT 교육은 과테말라가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기독교) 세계관은 선교적 세계관이자 실천적이며 선교적인 적용으로서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19, 교육선교, 문화명령, 4차 산업혁명, ICT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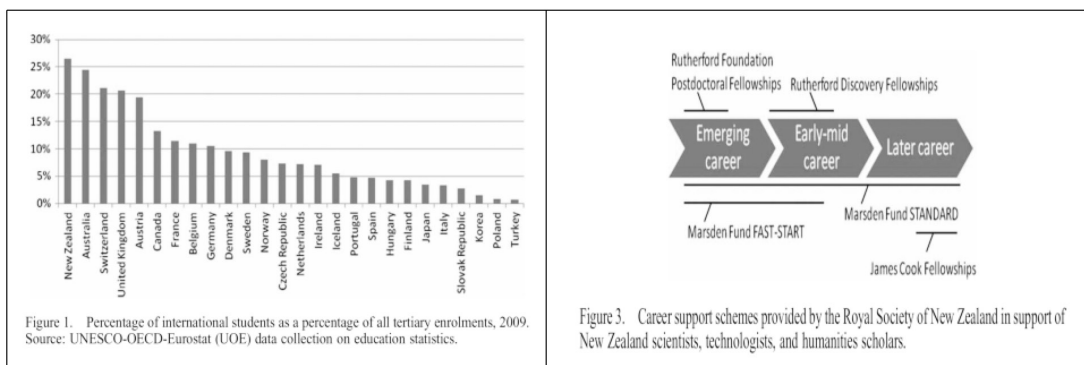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경민 (전남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동아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2호 (통권 91호), 2022년 6월호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